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사우디아라비아

# 목차

※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 I. 일반

1. 개요	4
2. 한국과의 관계	5
3. 경제현황	10
4. 정치	12
5. 주요산업	14

## II. 무역

1. 수출입	15
2. 한국과의 수출입	24
3. 수출 유망항목	27
4. 무역협정	28
5. 수입규제 및 관세	30
6. 통관 · 물류	35

## III. 투자

1. 투자환경	39
2. 외국인직접투자	49
3. 한국기업 투자	52
4. 투자진출방식	61
5. 외환	69
6. 노무	71
7. 세무	76
8. 지식재산권	82
9. 청산 및 철수	83

##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88
2. 비즈니스 에티켓	90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97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5.출입국 안내	99
6.유관기관	101
7.물가정보	105
8.출장정보	109
9.생활정보	111
10.KOTRA 무역관 안내	123
11.전시회 정보	131
	132

# I. 일반

## 1. 국가개요

###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왕국(Kingdom of Saudi Arabia)
면적	2,149,690 km <sup>2</sup> (자료원 : The True Size, 2024)
수도	리야드(Riyadh)
인구	33,475,000 명 (자료원 : IMF, 2024)
민족(인종)	사우디인 58% (아랍인, 아프로아랍인 등) 사우디인 외 42%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등)
언어	아랍어
종교	이슬람교(수니파 90%, 시아파 10%)
기후	리야드 등 내륙 지역 : 일반적으로 고온 건조 제다 등 홍해연안과 담맘 등 걸프연안 : 고온 다습
국가원수	국왕 ○ 이름 :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Salman bin Abdulaziz Al Saud) ○ 칭호 : 성스러운 두 사원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 ○ 취임일 : 2015년 1월 23일

## 2. 한국과의 관계

###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 국교 수립일

1962-10-16 (자료원 :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사우디 경제기술협력협정	1975-01-19		
한-사우디 문화협정	1975-08-04		
한-사우디 항공협정	1984-01-21		
감천항 개발차관 협정	1984-01-27		
사우디에서의 한국의료단 활동에 관한 협정	1991-02-23		
한-사우디 항공운수소득면세협정	1991-07-18		
한-사우디 교육교류약정	1997-04-23		
한-사우디 투자보장협정	2003-02-19		
한-사우디 고등교육 협력 약정	2007-03-24		
한-사우디 이중과세 방지협정	2008-12-01		
한-사우디 원자력협력협정	2012-08-04		
한-사우디 관광공예 분야 실행계획서 체결	2013-05-14		
국방협력협정	2014-02-09		
한-사우디 창조경제 협력 약정	2015-03-03		
한-사우디 IT 협력약정	2017-03-24		
한-사우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018-07-19		
한-사우디 사증발급 간소화	2019-02-01	사우디 입국시마다 최대 90일 간 체류 가능한 5년 복수 비자 발급 및 비자비용 90달러 수준으로 인하	
한-사우디 지식재산협력파트너십협정	2022-01-17		2년간 5개분야(IP생태계, 국가IP전략, 특허심사, 교육, 정보화) 35개 과제 추진 위한 11명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한-사우디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2023-10-22		
-------------------------	------------	--	--

## 한국교민 수

4,102 명 (자료원 : 재외동포청 2023 재외동포편람 / 2023년(거주증 소지자 기준))

##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 정치

1962년 10월 16일 외교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사우디는 국제연합(UN), 비동맹회의(NAM)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온 주요 우방국 중 하나이다. 양국관계는 1998년 압둘라 왕세제 방한, 1999년 前 리야드 주지사 살만(現 국왕) 왕자 방한, 2000년 제2부 총리 겸 국방장관인 술탄 왕자 방한과 더불어 2005년 이해찬 前 국무총리(8월, 11월)와 2007년 3월, 노무현 前 대통령, 2012년 1월 이명박 前 대통령, 2015년 3월 박근혜 前 대통령, 2022년 1월 문재인 前 대통령,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의 상호방문으로 양국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 ○ 사우디 의장국 자격으로 2020년 G20 온라인 정상회담 개최

사우디는 의장국 자격으로 2020년 11월 21~23일 이틀간 2020년 G20 온라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2020년 G20 정상회담 주제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며, 킹 살만 국왕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치료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G20 국가 모두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하며,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G20 정상회담은 2008년 시작되었으며, 사우디는 G20을 개최한 최초의 아랍국가이다.

#### ○ 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회담

2022년 7월 20일, 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파이잘 빈 파르한 알 사우드)이 방한하여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양측은 K-POP 등을 중심으로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 및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 윤 대통령-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회담

2022년 11월 17일, 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방한하여 한-사우디 투자포럼 개최 및 윤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한-사우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 ○ 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회담

2023년 1월 8일,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한-사우디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졌다.

#### ○ 윤 대통령, 사우디 국민 방문

2023년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방문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면담 및 협정 체결, 나아가 제3차 한-사우디 투자포럼 개최 및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참석 등 양 국 간 관계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국가는 '미래 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심화 및 발전에 합의했다.

#### ○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 한국 방문

2024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하고 국방 및 방산 협력 확대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대한민국 육군 훈련을 참관하고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경제

### ○ 사우디 비전 2030

2016년 4월 25일 사우디 정부는 'Saudi Vision 2030'을 발표했다. 사우디의 사회·경제·국가경영의 목표를 설정한 중장기 국가운영 계획으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는 것에 대비해 '제도 개혁', '경제전략 수립',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정책 로드맵과 세부 이행계획'이 주요 내용이다. 에너지, 조선, 방산, 보건의료, ICT 등 비석유 부문 제조업 육성을 통한 Post-Oil 시대 新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사우디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Saudi Vision 2030을 내걸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 ○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사우디 정부는 한국을 미국, 일본, 인도, 중국과 함께 'Saudi Vision 2030'의 5대 중점 협력국가로 지정했다. 한-사우디 비전 2030, 5대 협력 분야는 1. 에너지 및 제조업(Energy and Manufacturing), 2. ICT, 3. 인력양성(Capacity Building), 4. 보건의료(Healthcare and Life Sciences), 5. 중소기업 협력 및 투자 강화(SMEs and Investment)이며, 약 40개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양국 기업 협력강화를 위해 2017년 10월 1차, 2019년 4월 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개최되었다.

### ○ 제19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 개최

한-사우디 양국은 지난 2019년 12월 18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제19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 6월 모하메드 빈 살만(MBS) 왕세자 공식방한 시 양국 지도자 간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인적교류, 보건, 교육, 전자정부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공동위원회 본회의 이후 양국 수석대표(한국: 강경화 前 외교장관, 사우디: Mohammed Al-Tuwaijri 前 경제기획장관)는 합의의사록에 서명했고, 양측은 에너지효율물질 연구협력 MOU,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연구협력 MOU 등 다수의 MOU를 체결했다. 공동위원회 이후 강경화 외교장관은 King Salman 국왕을 예방했으며, 양국관계 전반 및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에 중장기 금융지원 발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1년 1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에 약 3조 3000억 원(30억 달러)의 중장기 금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사우디 국가 프로젝트 참여를 전제로 합의된 금융지원계약으로, 한국 기업 참여를 조건으로 해당 금액만큼의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제공하게 된다. 이 보험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금은 한국 기업의 기자재 수출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되며, 이번 금융 제공을 빌미로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한-사우디 경제계,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 개최

한-사우디 양국은 지난 2022년 1월 18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을 개최하였다. 문재인 前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사우디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여 왕세자 별도 면담 후, 사우디상의연합 회장, 사우디 투자부 장관 등 주요 사우디 재계 인사와 한-사우디 경제협력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한국 재계 인사와 현재 진행 중인 한-사우디 협력사업을 검토함과 함께 미래먹거리인 수소 경제와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 협업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 한국 국토부장관, 사우디 방문 및 원팀코리아로드쇼 개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2022년 11월 방문하여 '원팀코리아 로드쇼'를 개최했다. 사우디 교통물류부가 협업하였으며 리야드 외에도 네옴시티 방문 등 양국 협업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으며, 기업 차원에서도 다양한 발주처 및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진출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 사우디 왕세자 및 투자부장관, 한국 방문 및 한-사우디 투자포럼 개최

2022년 11월, 한-사 수교 60주년을 맞아 사우디 왕세자 및 투자부장관이 방한하여 한-사우디 투자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행사의 후속행사로, 동 행사를 통해 25개의 MoU가 체결되었으며 특히 미래먹거리 분야에 대해 세부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 한국 중기부장관, 사우디 방문 및 BIBAN 23 참가

이영 중기부장관이 지난 2023년 3월 방문하여 BIBAN 23 참가 및 기초연설을 하였다. 동 행사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을 현지에 소개하고, 양국간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협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한국 방문 및 제2차 한-사우디 모빌리티 및 혁신 로드쇼 개최

2023년 5월,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이 방한하여 지난 2022년 11월 행사의 후속행사로 제2차 한-사우디 모빌리티 및 혁신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 외에도, 양국 간 협업 가능한 분야에서의 MoU 체결 등 긴밀한 협업을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 환경부장관, 사우디 방문 및 한-사 녹색기술 로드쇼 개최

2023년 5월,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사우디 방문하여 한-사 녹색기술 로드쇼를 개최했다. 총 14개 국내기업이 참가하여 기술을 소개하여 참가한 발주처 및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의 기회를 가졌다.

○ 한국 농림부장관, 제3차 한-중동 서틀 경제협력단으로 사우디 방문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2023년 9월, 한훈 농림부차관이 제3차 한-중동 서틀 경제협력단으로 사우디 방문하여 한-사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식품 및 농기술 기업 16개사와 플랜트기업 14개사로 총 30개 참가하여 발주처 및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의 기회를 가졌다.

○ 한국 윤 대통령, 사우디 국민 방문 및 제3차 한-사우디 투자포럼 개최

2023년 10월, 윤 대통령이 사우디 국민 방문하는 계기에 맞춰 제 3차 한-사우디 투자포럼을 개최했다. 동 행사는 2022년 1월 최초 개최 후, 작년 서울에서 제2차 포럼이 개최되었고, 금번을 계기로 양 국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의 기회도 가졌다.

○ 한-GCC FTA 타결

2023년 12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걸프협력이사회(GCC) 장관회담 계기에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GCC 회원국으로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통상과 산업·에너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리야드 시장, 한국 방문

2024년 10월,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리야드 시장은 한국을 방문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한-사우디 스마트 시티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리야드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도 각각 면담을 진행하고 리야드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 중기부장관, 사우디 방문 및 BIBAN 24 참가

오영주 중기부장관이 2024년 11월 사우디 방문하여 BIBAN 24에 참가하고 기조연설을 하였다. 동 행사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을 현지에 소개하고, 양국간 스타트업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 스타트업 및 K뷰티 기업들도 함께 참가하여 사우디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 문화

○ 사우디아라비아 내 한류동향

사우디는 약 3,500만 인구의 50%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모하메드 빈 살만(MBS) 왕세자의 문화개방정책으로 음악, 드라마, 영화, 공연 등 해외문화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월 아시아 가수로는 최초로 슈퍼주니어의 단독 콘서트가 사우디 제2도시 젓다에서 개최됐으며 전석(약 4,000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후 2019년 10월에는 방탄소년단(BTS)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King Fahad International Stadium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전석 매진(약 30,000석)을 기록했다. 사우디 정보통신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8%인 약 2,300만 명이 Youtube, Facebook 등 SNS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슈퍼주니어, 방탄소년단 등 K-Pop의 인기가 높아지며 한류를 접하는 사우디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1970년대 각종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근면·성실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최근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선진국 수준에 속하는 편이다. 특히 2012년에는 중동 지역에서도 PSY 열풍이 불면서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사우디스타일’이 제작되고 신문에 가수 싸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확대는 향후 사우디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와 한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사우디, 35년 만에 상업영화관 개장

2018년 3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 문화공보부는 상업영화관 개장 영업면허를 발급했으며, 이에 맞춰 리야드 내 'AMC'와 "Vox Cinema" 두 영화관이 영업을 시작했다. 사우디는 1983년 종교적 이유로 상업영화관 운영을 금지하였으나, 2017년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 등극 이후 추진된 사회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35년 만에 영화관이 재개장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사우디 전역에 총 350개의 영화관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사우디 인구(3,500만 명) 중 절반이 30세 이하의 젊은 층인 만큼, 관련 업계는 영화관 관련 사업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우디 여성 관광객 등 외국인 여성 대상 복장 규정 완화

2019년 9월 2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49개국 관광비자 발급과 함께 사우디 내무부는 사우디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성 관광객의 복장 등을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지 여성이 입는 목부터 발까지 가리는 검은색 옷, 즉 아바야를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입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다만, 성적인 자극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의 복장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여성은 사우디에서 아바야 착용이 필수가 아니며,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단정한 복장 착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몸에 달라붙는 옷이나 이슬람 종교를 모독하는 글 또는 그림이 있는 옷은 착용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 사우디 관광청 한국 사무소 개소

2021년 10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관광청이 한국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일반여행자 관광유치 목적의 마케팅 및 국내 주요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인지도 상승 및 인적교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2022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수교 60주년으로 서울시 관광협회, 국내 여행사 주요 관계자와 양국간 관광 활성화에 대한 협업을 다지기도 했다.

○ 사우디 프린스 술탄 대학교, 한국어 교육 세종학당 설립

202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 위치한 프린스 술탄 대학교에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설립된다. 중동지역 내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간 문화 교류로 작용할 예정이다.

○ 사우디 수도에서 첫 K-CON 개최

2022년 9월 30일-10월 1일, 양일간 10개 이상의 가수가 참가했으며 총 2만 여명이 운집하는 등 성황리에 첫 사우디 K-CON을 마쳤다.

○ 사우디 수도에서 블랙핑크 단독 콘서트 개최

2023년 1월 20일,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블랙핑크가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2만 명 이상의 관객이 모여 사우디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 사우디 자체 행사인 Gamers8 에 한국관 운영

2023년 7월, 작년 리야드 시즌이 개최된 불라바드 시티에서 E스포츠 행사인 Gamers8이 개최되었고, 동 행사에 일본관(Japamura)와 함께 한국관 참가하여 운영하며 많은 참관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에서 2022년에 이어 2023년 K-CON 개최

2023년 10월 6일-7일, 양일간 10개 이상의 가수가 참가하며 많은 관중이 몰리는 등 성황리에 2회차 K-CON을 마쳤다.

○ '리야드 시즌' 연계 롯데홈쇼핑에서 한류 문화공연 진행

2024년 10월 30일-11월 2일, 롯데홈쇼핑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사우디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불라바드 리야드 시티에서 한류 문화공연 및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 행사에는 소녀시대 '유리' 등이 참가하였다.

○ 국기원, 사우디 최초로 '중동 태권도 교육센터' 개관

2024년 11월, 국기원은 사우디 담맘의 알라살라 대학교 내에 '중동 태권도 교육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중동 국가 태권도 보급 확대 및 문화적 교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3. 경제현황

####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	-3.6	5.1	7.5	-0.8	
명목GDP (십억\$)	734	874	1,109	1,068	
1인당 GDP (PPP, \$)	39,825	47,754	54,252	54,992	
1인당 명목 GDP (\$)	20,970	25,460	34,454	32,530	
정부부채 (% of GDP)	31	28.8	23.9	26.2	
물가상승률 (%)	3.4	3.1	2.5	2.3	
실업률 (%)	7.7	6.7	4.9	3.8	
수출액 (백만\$)	173,419	275,489	410,156	319,218	
수입액 (백만\$)	137,653	152,467	189,402	206,422	
무역수지 (백만\$)	35,766	123,022	220,754	112,796	-
외환 보유고 (백만\$)	452,522	454,232	458,701	435,816	
이자율 (%)	1	1	5	5.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3.75	3.75	3.75	3.75	

〈자료원 : IMF, World Bank, GASTAT(통계청), SAMA(중앙은행)〉

#### 나. 경제 동향

사우디아라비아 2023년 총 GDP는 1조 680억 달러, 1인당 GDP는 3만 2530달러를 보였으며, 인구 3348만 명으로 중동 내 주요 시장임과 동시에 GCC 최대 시장이다. 또한, 전 세계 석유의 약 16%가 매장돼 있는 세계 제2의 산유국이다. 오일, 가스 등 광물자원 관련 사업이 전체 GDP의 40%,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원유 수출에 따른 정부수익을 바탕으로 한 공공부문이 사우디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는 원유 수입 상당 부문을 원유 및 가스 개발 뿐만 아니라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등을 통한 정부주도의 경제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사우디 VISION 2030 발표 후, 비석유

부문 성장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인프라 외에도 석유화학, 전력, 담수화, 교통(철도),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다.

1970년대의 오일머니를 소모성 예산지출, 군비 확충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사용했고, 그 결과 1980~1990년대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다. 사우디는 이런 어려움을 교훈 삼아 원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제조업 육성 및 비석유 부문 집중투자를 통한 산업 다각화 추진을 통해 오일머니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재검토하는 등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ARAMCO(국영석유회사), Maaden(국영광물회사), SABIC(석유화학회사), SEC(전력청) 등 주요 기업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영기업은 사우디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자리 창출 및 주택 수요, 천연자원의 수요관리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우디에는 전체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정부는 Saudization 등 민간부문에서의 자국민 고용 증대를 위한 노동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는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20년 7월부 부가세를 기존 5%에서 15%로 늘렸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비석유 부문의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Vision 2030 정책에 따라 2018년 최초로 부가세 5%가 도입되었으며, GCC 국가 중에서는 사우디와 UAE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 정부 재정적자 심화로 수입원이 감소하며 2020년 7월부로 부가세 3배 인상(5→15%)을 결정했다. 2018년 부가세 5% 도입 이후 연간 12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했으며, 2020년 부가세가 15%로 인상되면서 세수 확보가 크게 증가하여 국가재정 개선에 기여하였다.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Public Investment Fund) 설립 초기부터 사우디 비석유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이래 자동차(CEER), 부동산개발(New Murabba), 관광(The Rig), 항공(Riyadh Air, King Salman International Airport), 생활(Kayanee), 전기전자(Alat) 등 다양한 분야에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최근 설립한 회사들이 그 동안 사업 준비 단계 및 일부 기업들과의 물밑 접촉 위주로 활동해 왔지만, 2025년에는 이런 기업들의 활동이 공개적인 파트너 발굴 또는 발주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National Development Fund(NDF) 관리 펀드 중 하나로 그 동안 제조업 지원에 특화되었던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SIDF)는 지원 범위를 에너지, 광업, 물류 등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리야드는 2030년까지 인구 1천만 명 이상을 목표로 성장 중에 있으며, 최근 외국기업 진출 및 고용 증가 등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했다. 이에 사무실 및 주택 임차료도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폭등하였다. 이러한 인구밀도 증가 및 도시화는 생활편의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 산업 발달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사우디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는 69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배달, 요식업, 도소매업 등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활동의 증가 역시 정부 민원 서비스의 디지털화, 핀테크 서비스 발달, 컨설팅 서비스 등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다. 경제 전망

IMF는 2025년 사우디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다. 2023년에는 석유 감산의 영향으로 0.8%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석유감산 및 저유가의 여파는 2024년까지 미쳐 1.5%의 경제성장률로 이어졌다. 하지만 비석유 부문은 2024년 3.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IMF는 2025년에도 비석유 부문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실질 GDP 기준 비석유 부문의 비중은 50%에 도달하였으며, 추후에도 비석유부문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또한 중동사태가 사우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기가프로젝트 등의 대형 사업의 지출 효율화, 법제도 개선, 디지털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탄소중립 실현의 어려움과 국부펀드 활동의 불투명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보았다.

사우디 정부의 2025년 예산안 초안에 의하면, 재정수입은 3162억 달러이며 재정지출은 3432억 달러로, 약 27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사우디 재무부는 예산안 초안 보고서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 지출을 조절하고 집행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24년, NEOM 프로젝트의 속도 조절이 주요 외신들을 통하여 보도되었고, 이처럼 대형 프로젝트들의 재조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4. 정치

### 가. 정치체제

- 1) 정부형태 : 전제군주제. 사우디 국왕은 국가 최고지도자이자 정부수반으로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왕은 샤리아의 수호자이자 집행자이다.
- 2) 국가수반 : 킹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King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은 2015년 1월 23일에 즉위하였다.
  - 기존에는 국왕이 총리를 겸직하였으나, 2022년 9월 27일 무함마드 빈 살만(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총리로 임명되었고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3) 의회형태 : 사우디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의회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 국왕의 자문기구인 마즐리스 샤후라(Majlis al-Shura, Shoura Council)를 통해 정부법안 심의를 함으로써 입법부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왕이 내린다.
  - 슈라 위원회는 국왕이 임명한 1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인 30석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
  - 2024년 9월, 4년 임기로 슈라 위원회가 재구성되었다.
- 4) 사법부 : 대법원, 상급재판소, 초심원의 3심 법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법감독위원회가 법원을 감독한다. 사법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왕이다.

### 나. 최신동향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7년 6월 제1왕위 계승자 등극 이후 국정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2022년 9월 총리직 임명 이후 국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부터 CEDA(Council of Economical and Development Affairs Council)와 2017년부터 CPSA(Council of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의장직을 수행 중이다.
  - 부패척결, 여성인권 신장 등의 사회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사우디 내 국민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며 정책을 추진 중이다.

###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 주요국과의 대외관계

- (미국)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국방 및 에너지 협력 지속
  - 2022년 7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과 함께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방산 및 보안, 우주항공, 지역갈등 완화 등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으나 이후 사우디의 감산정책 등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다.
  - 다만 지역갈등 해결책 협의 등을 위해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2024년 4월과 10월에 사우디를 방문했고 양국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전략적 관계 유지 중이다.
- (중국) 최대 교역 관계에서 정치적·경제적 협업 관계로의 발전
  - 2024년 9월, 중국 리창 총리가 사우디를 방문하여 제4차 사우디-중국 고위급 공동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빈살만 왕세자와 회동했다.
  -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2년 12월 사우디를 방문한 이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사우디와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관계 강화 중이다.
  - 2024년, 사우디 공립학교에서 175명의 교사들이 시범적으로 중국어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2029년까지 중국어 교육 확대 등 다양한 협력 진행 예정이다.
- (일본) 사우디와의 청정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 협력 기대
  - 2016년 양국 간 'Saudi-Japan Vision 2030' 협력 방안을 수립한 이후 2023년 7월 기시다 총리의 사우디 방문, 2024년 5월 화상회담 개최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 최근 수소, 암모니아 등 청정에너지와 광물 자원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 (중동) 중동사태 해결 및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사우디 외교장관 Prince Faisal bin Farhan은 2024년 9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인정하는 '2국가 해법' 실현을 위한 Global Alliance for Two-State Solution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 또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전제조건 역시 팔레스타인 독립임을 강조했다.
  - 전 국민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분위기가 강하며 KSRelief 통한 구호활동이 활발하다.
  - 이란과는 2023년 6월 주사우디이란 대사관 재개관에 이어 2024년 5월 이란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망에 대한 조의

표명, 2024년 10월에는 사우디-이란 홍해 합동군사 훈련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 (BRICS) 경제협력체 공식 가입은 모호, 개별국과는 협력 확연히 강화
  - 일부 언론에서 2024년 1월부 사우디의 BRICS 정회원국 가입을 보도한 가운데, 사우디 국영통신사 SPA는 사우디 외무장관이 2024년 10월 BRICS+ 회의에 '초청 받은 국가(invited country to join the group)' 자격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 한편 러시아, 인도 등 국가와도 2024년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라. 정책 · 법령

- 헌법 : 알라의 경전인 '코란'과 모하메드의 어록을 담은 경전인 '하디스'
  - 1992년 왕실 칙령으로 선포된 기본법에 의거한다.
- 법령체계 : 헌법 하에, 행정, 민가, 형사, 조세, 산업, 통산, 경제, 방송, 지식재산권, 환경, 교육, 보건, 사회복지, 국토개발 등 각 분야별 세부법령으로 구성된다.
- 주요법령 : 회사법의 경우 개정회사법이 2022년 6월 30일에 공포되었고, 2023년 1월 29일부터 시행중이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비전 2030 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는데, SDAIA (데이터 및 AI 관리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개정 노동법 : 2021년 개정 이후 2024년 다시금 노동법을 개정했다.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2024년 8월 6일 사우디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180일 이내 시행 예정이다.
- 개정 외국인투자법 : 2024년 8월, 사우디는 국제투자유치의 확대와 국내외 투자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외국인투자법을 발표했다. 2025년 2월 발효 예정이다.
  - 시행령은 2025년 2월 전까지 발표될 예정이며 실무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법은 현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라이선스 요건이 삭제되며 간소화된 등록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적 대우를 보장하며, 국가 수용으로부터 투자가보호, 투자가 자금 이체 권리 보호 등이 포함된다.
  - 이밖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도입, 법원 구제 外 중재, 조정, 화해 등과 같은 대체 해결수단 도입이 포함된다.
- ESG : 사우디는 비전 2030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ESG 정책을 적극 도입 중이다. 사우디 국가환경전략(NES)에 따르면 사우디는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50%까지 높이고, 2060년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사우디화(Saudization)도 지속적으로 수행중인데, 외국 회사들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사우디 국민을 채용하게 되어있다. 최근에는 여성 고용시 유리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사우디 여성 경제활동 인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투명한 기업활동에 대한 기업 내부적 규정 제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인권보호 관련 규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5. 주요산업

### 가. 개요

- 사우디는 전 세계 석유의 약 21%가 매장되어 있는 대표적 산유국으로 오일, 가스 등 광물자원 관련 산업이 전체 GDP의 40%,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원유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보인다.
  - 이에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국가 경제지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 국가경제 변동 취약성을 탈피하기 위해 2016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발표한 VISION 2030 하에 국가 개혁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 비석유분야 육성을 위해 제조업 정착을 위한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회사, 생산공장 유치 및 설립, 운영까지 추진하고 있다.
  - NEOM, RED SEA, Qiddiya, Amaala 등 다양한 산업의 프로젝트를 추진 통해 포스트 오일시대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 단순 외국인 자본 및 기술의 도입 외, 자국민 및 자국 제품, 서비스 이용률 확대를 통해 사우디 내 환경 마련,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수소산업, 바이오,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 선점 위해 기술개발 및 글로벌 공급망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 나. 주요 산업별 현황

- 원유산업
  - 대표적 원유 보유국으로 2023년 기준, 매장량 2,672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17.03%로 2위다.(1위는 베네수엘라)
  - 대표적 원유 생산국으로 2023년 기준, 일일 생산량 960.6만 배럴로 전 세계 일일 생산량의 13.1%로 2위다.(1위는 미국)
  - 대표적 원유 수출국으로 2023년 기준, 일일 수출량 665.9만 배럴로 전 세계 일일 수출량의 15.17%로 1위를 기록했다.
- 석유화학 및 제조업
  -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산업에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VISION 2030 일환, 단순 원유수출 경제 탈피 목적)
  -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국영석유회사인 ARAMCO 주도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 2020년 SABIC 인수 후, 다운스트림 사업 강화 통해 영업이익 대폭 신장
  - 제조업의 경우, 글로벌 제조기업과의 합작투자로 현지 생산공장 설립에 집중하고 있다.
    - \* ARAMCO, DUSSUR 등 주요 국영기업 및 투자공사 필두로 제조업 분야 기반 확립을 위한 현지 생산공장 설립계약 체결 가속화 (현대중공업-ARAMCO-DUSSUR 선박엔진공장, 두산중공업-ARAMCO-DUSSUR 주단조공장, 세아창원특수강-DUSSUR 스테인리스 무게목 강관/튜브공장 등)
- 프로젝트
  - VISION 2030 일환으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NEOM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RED SEA 관광단지, Qiddiya 엔터테인먼트 시티, 리야드 북서부 뉴무라바(New Murabba) 신도시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 주거단지 공급 위한 공공/민간 차원의 부동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 \* 리야드를 비롯한 동부(Hofuf), 서부(Madinah, Makkah) 등 지역별 주택단지 공급 지속
  - 의료, IP 등 특화산업도시 개발 및 지하철, 천도 등 교통망 구축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 \* 사우디 철도청(SAR) 통해 Landbridge 프로젝트 추진(동부-서부 철도망)
    - \* 사우디-바레인 고속도로(Causeway) 증축 추진
    - \* 리야드 메트로 시범운영 및 메트로 연계 버스 시스템 확장 운영 중
    - \* Medical City 및 IP specialized City 등 계획 수립
- 관광/문화산업
  - 관광, 문화산업 육성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및 정부 주도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게임 이니셔티브 시행 통해 게임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 사우디 관광청 해외사무소 확대 및 관광지로서의 사우디 홍보, 관광상품 협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리야드시즌, 젯다시즌 등 연례 관광축제 경례화 및 동계 아시안게임, 스포츠 토너먼트 유치, 콘서트 유치 등 단순 관광 및 문화산업이 아닌 항공, 예술, 공연 등 연계산업까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II. 무역

### 1. 수출입

#### 가. 개요 및 동향

-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 정책을 통해 석유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기반 육성 추진하며 수출 및 수입을 다변화하고 있다.
- 네옴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면서 수송기기, 건설기계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아직 제조업 기반에 확립되지 않아 공산품, 식품 등 소비재의 수입이 많다.
- 주요 수출품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대 에너지 자원 보유 및 생산국 중 하나로 원유, 광물 등 에너지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국제유가 및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 원유 수출규모 변동이 커 수출액 변화도 등락이 크다.

#### 나. 국가별 수출입

##### - 국가별 수출입 현황

- 2023년 기준 사우디의 10대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프랑스, 이집트, 네덜란드, 스페인, 브라질 순이다.
-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한국으로의 수출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 2023년 기준 사우디의 10대 수입국은 중국,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브라질, 스페인 순이다.
- 중국으로부터 자동차, 소부장 품목 수입이 확대되어 매년 수입액이 늘어나고 있다.

#####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38,554,331,561
2	일본	18,430,048,892
3	인도	18,421,514,696
4	한국	16,197,237,043
5	미국	10,172,546,326
6	아랍에미리트	10,063,627,228
7	싱가포르	5,234,978,225
8	대만	4,798,445,821
9	바레인	4,654,879,890
10	태국	3,976,685,709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55,294,496,263
2	인도	27,630,326,390
3	일본	27,376,128,209
4	한국	24,832,422,904
5	아랍에미리트	14,860,898,734
6	미국	14,082,704,527
7	이집트	10,082,049,927
8	대만	8,019,262,355
9	싱가포르	7,228,928,393
10	프랑스	6,246,825,518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77,888,912,004
2	인도	46,081,982,922
3	일본	42,285,322,579
4	한국	41,631,864,844
5	미국	23,880,948,539
6	대만	11,471,137,553
7	싱가포르	8,966,458,504
8	아랍에미리트	8,769,880,054
9	말레이시아	8,603,876,354
10	이탈리아	7,767,724,576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64,353,101,477

2	일본	34,644,199,939
3	미국	16,302,263,734
4	말레이시아	9,470,182,710
5	폴란드	7,643,269,731
6	프랑스	5,630,937,484
7	이집트	3,988,655,565
8	네덜란드	3,937,889,216
9	스페인	3,678,393,444
10	브라질	3,673,163,514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27,219,717,414
2	미국	15,693,194,621
3	아랍에미리트	11,430,532,578
4	독일	7,837,350,518
5	인도	6,801,456,418
6	일본	5,932,355,167
7	프랑스	4,381,985,267
8	이탈리아	4,227,601,981
9	한국	4,066,966,596
10	영국	3,238,277,831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30,403,564,844
2	미국	17,926,522,712
3	아랍에미리트	13,570,410,393
4	인도	8,136,528,237

5	독일	7,716,346,308
6	일본	6,468,890,422
7	프랑스	5,256,118,641
8	이탈리아	4,622,443,996
9	이집트	4,377,945,860
10	한국	3,744,525,824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32,753,207,186
2	아랍에미리트	25,143,305,210
3	미국	10,594,553,489
4	인도	9,672,463,417
5	독일	6,498,654,036
6	일본	5,000,746,938
7	스위스	4,982,084,139
8	한국	4,752,066,614
9	영국	4,144,492,085
10	이탈리아	3,881,879,210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40,869,611,729
2	미국	12,634,210,102
3	독일	8,818,447,376
4	스위스	6,743,209,310
5	일본	6,276,056,428
6	영국	5,448,580,732
7	프랑스	4,210,036,079
8	네덜란드	4,061,352,855

9	브라질	3,172,874,518
10	스페인	2,735,454,550

<자료원 : UN Comtrade>

## 나. 품목별 수출입

### - 품목별 수출입 현황

○ 2023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성 연료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했다. 그 외 석유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의존도가 높으나, 점차 금속제품, 수송장비, 기계류 등도 증가세를 보이는 등 수출품목 조금씩 다각화되고 있다.

○ 2023년 기준 사우디의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및 전기기기, 수송장비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점차 내수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보석류, 채소류, 금속제품 또한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 - 상위 10개 수출품목

####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32,298,540,903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10,402,409,078
3	271019	기타	6,457,888,597
4	390210	폴리프로필렌	4,766,602,520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136,039,909
6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3,821,597,727
7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3,673,357,936
8	2909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2,114,778,588
9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016,868,405
10	3901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1,853,820,135

<자료원 : UN Comtrade>

####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05,577,782,800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8,520,746,506
3	271019	기타	8,008,109,181
4	390210	폴리프로필렌	6,831,589,789
5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5,509,296,787
6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4,840,123,796
7	271113	부탄	3,920,759,978
8	2909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2,938,351,886
9	271112	프로판	2,785,914,644
10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753,337,963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59,017,013,970
2	271019	기타	28,097,657,367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2,373,146,650
4	390210	폴리프로필렌	5,087,559,154
5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4,609,563,361
6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3,849,878,291
7	2905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3,817,516,689
8	271113	부탄	3,220,017,046
9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2,771,636,207
10	3901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2,561,028,509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27,941,392,099
2	271019	기타	13,926,387,547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539,067,161
4	390210	폴리프로필렌	2,481,001,616
5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2,376,317,183
6	2905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2,218,616,456
7	3901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1,507,414,495
8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1,171,004,283
9	290250	스티렌	1,039,864,245
10	290511	메탄올(메틸알코올)	938,871,081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553,584,342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4,795,037,253
3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4,490,071,231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031,475,607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559,481,640
6	300490	기타	3,359,879,543
7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898,775,187
8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685,589,328
9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1,536,001,084
10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1,311,726,04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9,044,338,767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756,596,039
3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5,923,379,114

4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5,261,526,135
5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004,290,822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683,447,620
7	300490	기타	3,357,918,041
8	72031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2,059,086,370
9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694,430,986
10	871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1,561,718,593

<자료원 : UN Comtrade>

##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5,438,349,777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5,177,665,383
3	271019	기타	2,966,862,638
4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2,908,257,280
5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2,837,764,808
6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2,034,986,835
7	300490	기타	1,948,891,760
8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938,135,992
9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658,858,100
10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492,137,874

<자료원 : UN Comtrade>

##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4,437,479,468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993,286,055
3	851713	스마트폰	2,937,225,442
4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891,468,804
5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2,285,966,565
6	300490	기타	2,014,036,150
7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1,722,740,138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540,372,153
9	854143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1,336,102,174
10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324,775,479

<자료원 : UN Comtrade>

## 2. 한국과의 수출입

### 가. 개요 및 동향

2024년 1~10월 누적액 기준 우리나라의 對사우디아라비아 총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였다.

2024년 1~10월 수출액은 총 4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총 26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 감소하였다.

2024년 10월 기준 무역수지는 -221억 달러로 적자를 지속하였다.

###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2024년 1~10월 수출액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상대국 중 23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MENA 지역 국가 중에서는 튀르키예에 이어 두번째로 가장 큰 규모이다.

2024년 1~10월 수입액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전체 수입 상대국 중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번째를 기록하였다. 對사우디아라비아 수입 중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4%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0	3,302	15,980	-12,678
2021	3,325	24,271	-20,946
2022	4,865	41,640	-36,775
2023	5,325	32,763	-27,438
2024	4,313	26,368	-22,05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2024년 1~10월 우리나라의 對사우디아라비아 수출 품목 중 승용차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다. 전체 11.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세부 품목 분류시 불꽃점화식 1500cc 초과 승용차가 10.5억 달러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승용차 관련 품목인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도 각각 수출품목 상위 5위와 7위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현지 발전 프로젝트 발주 증가로 우리 기업의 접속기 및 차단기, 변압기 등의 수출도 크게 늘어났다. 접속기 및 차단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0.1% 증가한 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변압기는 61.7% 증가한 2.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對사우디아라비아 수입품목 중 원유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1~10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0.6% 감소한 24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원유 외 나프타, LPG, 석유화학제품, 석유화학원료 등 석유 관련 품목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석유 관련 품목 외에는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동괴 및 스크랩이 수입품목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었다.

수입 품목 순위에서 볼 수 있듯이 對사우디아라비아 수입 중 광물성연료(MTI 13)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약 94~96% 수준의 수입 비중을 보이고 있고, 원유가격의 증감과 OPEC 및 주요 산유국의 정책이 수입 변동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1,360	0	1,360
2	8413	접속기 및 차단기	263	0	262
3	8412	변압기	173	0	172
4	2140	합성수지	142	78	63
5	3203	타이어	142	0	142
6	7251	건설중장비	202	0	201
7	7420	자동차부품	111	0	110
8	7131	공기조절기	143	0	143
9	6134	아연도강판	102	0	101
10	7112	펌프	115	0	11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4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1,144	0	1,144
2	8413	접속기 및 차단기	360	0	360
3	8412	변압기	228	0	228
4	2140	합성수지	149	45	104
5	3203	타이어	125	0	125
6	7251	건설중장비	103	0	103
7	7420	자동차부품	87	0	87
8	7131	공기조절기	86	0	86
9	6134	아연도강판	76	0	76
10	7112	펌프	75	0	7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30,570	-30,571
2	1334	나프타	0	477	-477
3	2282	암모니아수	0	204	-205
4	1350	LPG	3	41	-39
5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51	143	-92
6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9	197	-188
7	6221	동괴및스크랩	3	198	-196
8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60	115	-56
9	1335	중유	0	415	-416
10	2120	석유화학중간원료	1	97	-9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4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24,726	-24,726
2	1334	나프타	0	596	-596
3	2282	암모니아수	0	164	-164
4	1350	LPG	1	152	-151
5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29	144	-115
6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7	143	-136
7	6221	동괴및스크랩	0	131	-131
8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5	88	-83
9	1335	중유	0	54	-54
10	2120	석유화학중간원료	1	48	-4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3. 수출 유망품목

####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 자동차부품

HS CODE	8708	수입액 (US\$백만)	1,481
수입관세율(%)	0~15%	대한 수입액 (US\$백만)	217
선정사유	사우디의 자동차 부품 수입 규모는 꾸준히 확대 중이며 '23년 총수입액은 14억 8,147만 달러로 전년대비 17.34% 증가하였다. 대한국 수입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3년 총수입액은 2억 1,725만 달러로 전년대비 15.37% 증가하였다.		
시장동향	한-GCC FTA로 차체, 엔진, 샤프트 등 핵심 부품의 관세 철폐와 함께 현지 진출 우리 완성차 기업의 내연차·친환경차 조립 생산 지원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대한국 수출 확대 전망된다. 유가회복 및 경제회복으로 내수시장 수요가 지속 회복 및 증가하고 있다.		
경쟁동향	일본이 자동차부품 수입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 중국, 미국, 태국 등이 주 경쟁국가이다.		
진출방안	사우디 대부분 지역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사고 발생 및 잦은 정비가 필요해 주요 교체 부품 위주의 소비자 마케팅이 필요하다.		

####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 건설/플랜트

선정사유	국제유가 회복 이후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거부터 국내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다.
시장동향	도시개발 프로젝트 및 플랜트 발주 재개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및 병원, 메디컬시티 설립 등 특수목적 프로젝트가 다변화되고 있다.
경쟁동향	네옴 등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건설사 및 시행사 각축전이 지속되고 있다.
진출방안	기업별 최적화된 기능 더하여 컨소시엄 형태 진출로 수주 가능성 극대화가 필요하다. 네트워킹 통해 프로젝트 지속 현행화 필요하다.

## 4. 무역협정

###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	2001-12-31	2003-01-01	걸프 역내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 간의 경제, 안전보장, 국방에 대한 결속을 목적으로 하며 역내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범아랍자유무역협정(GAFTA: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UAE,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1997-02-17	1998-01-01	1982년 아랍연맹 정상회의에서 처음 고안되었으나 무산되고 1997년 동 회의에서 16개 회원국(현재 회원국에서 알제리,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제외한 16개국)이 동의하며 공식화됐다. GAFTA는 아랍연맹의 일부인 아랍 경제위원회가 관리, 감독, 운영한다. 각 회원국은 점진적인 무역장벽 철폐를 추구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1일에는 GAFTA 회원국들 중 대부분의 관세가 폐지됐다. 현재 알제리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총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GCC-싱가포르 FTA(GSFTA: GCC Singapore Free Trade Area)	GCC 6개국, 싱가포르	2008-12-15	2013-09-01	GCC 국가들이 FTA를 체결한 최초의 비중동국으로 대상 영역은 상품 및 서비스 거래뿐 아니라 투자, 원산지법, 관세절차, 정부 조달, 전자상거래, 경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계획이 발표됐다.
GCC-유럽자유 무역연합(EFTA) FTA	GCC 6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09-06-22	2014-07-01	전자기기, 석유화학제품, 보석, 일반기계, 철강 관련 산업, 시계 등 각 나라에서 수입, 수출이 많은 제품군을 포함한 상품이 관세 면제 혜택에 적용되며 지식재산권, 기타 서비스 분야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자료원 : WTA, GCC, GAFT, SEDA〉

###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	--------	--------	----

한-GCC FTA	GCC 6개국, 대한민국	2009년 7월 3차 협상 이후 13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2월 28일(목) 서울에서 Jassim Muhammad Al-Budaiwi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 계기에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	2008년 7월 협상 시작
GCC-뉴질랜드 FTA	GCC 6개국, 뉴질랜드	2009년 10월 31일 협정 최초 서명이 이루어졌고, 양 측에서 협정서 검토 후 최종 합의를 준비 중	2007년 7월 협상 시작
GCC-EU FTA	GCC 6개국, EU	마지막 협상은 2014년 4월 리야드에서 개최, GCC 관세동맹 설립과 관세통일 이후 일부 쟁점이 남아있었으나, 유럽 측의 입장 고수로 협상이 잠정 중단	1991년 협상 시작
GCC-파키스탄 FTA	GCC 6개국, 파키스탄	2006년 2월 협상 시작, 2023년 9월 29일 타결	2006년 2월 협상 시작
GCC-남미공동시장(MERCOSUR) FTA	GCC 6개국, MERCOSUR	2차 협상 진행	2006년 10월 협상 시작
GCC-일본 FTA	GCC 6개국, 일본	2023년 7월 협상 재개	2006년 9월 협상 시작
GCC-중국 FTA	GCC 6개국, 중국	현재까지 총 11차례 진행, 마지막 협상은 2023년 10월 개최	2005년 4월 협상 시작
GCC-호주 FTA	GCC 6개국, 호주	현재까지 총 4차례 진행, 마지막 협상은 2009년 6월 개최	2007년 7월 협상 시작
GCC-인도 FTA	GCC 6개국, 인도	2차 협상 진행	2006년 3월 협상 시작
GCC-튀르키예 FTA	GCC 6개국, 튀르키예	2020년 외교문제로 잠정중단 후 2024년 3월, 협상 재개 발표	2005년 11월 협상 시작
GCC-영국 FTA	영국	6차 협상 진행	2022년 8월 22일 협상 시작
GCC-인도네시아 FTA	인도네시아	1차 협상 진행	2024년 9월 9일 협상 시작
GCC-말레이시아 FTA	말레이시아	검토 중	2011년 협상 시작

〈자료원 : WTA, GCC, GAFT, SEDA〉

## 5. 수입규제 및 관세

###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85071000	납축전지(자동차배터리)(Electric lead-acid accumulators)(Automotive batteries of capacity from 35 to 115 ambers)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17.6.25 ~ 2027.6.24	○ 판정결과 : 12 ~ 25%
2	390690	고흡수성 수지(Super absorbent polymers)	반덤핑(규제중)	중국, 벨기에, 싱가포르, 한국, 프랑스	○ 부과기간 : 2023.3.4 ~ 2028.3.3	○ 판정결과 · 중국 : 6~27.7% · 벨기에 : 8.3~40.7% · 싱가포르 : 13.6~21.2% · 프랑스 : 51% · 한국 : 124%
3	39269061,59031000	PVC 코팅 직물(Textiles or Fabrics coated by PVC)	반덤핑(규제중)	한국, 중국	○ 부과기간 : 2024.12.17 ~ 2029.12.16	○ 판정결과 · 한국 : 26.83% ~ 41.84% · 중국 :

### 수입금지품목

사우디는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생필품, 소비재 등 완제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종교, 안보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부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수입품 전반에 대해 엄격하게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非 할랄 제품, 주류 및 관련 제품(알코올 함유 물품, 와인 잔류물 등)과 돼지고기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비롯한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非 의료용 약품, 신체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광고를 사용한 제품이나 성인잡지 등 HS Code 8단위 기준 약 9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모조품이나 위조 상품들의 수입은 불가하며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된다.

### 나.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 1) 개요

사우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보호, 종교 및 공공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인 거래방지를 위해 국내외 제품 여부

에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품질표준을 정하고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기관인 사우디 표준청(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에서 수립하고 관리한다. SASO는 금지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한 표준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 WTO 가입과 함께 무역에 관한 WTO 기술장벽협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 사항을 준수해 기술적인 표준을 정비했으며 관련 변경사항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우디 표준규정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제도의 운용은 수입상품의 경우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국내 상품의 경우 지방자치주택부(Ministry of Municipal, Rural Affairs and Housing), 환경수자원농업부(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and Agriculture), 상무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도화하면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제도는 수입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상품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특별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적 특수 사정을 고려해 WTO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다.

## 2) 對사우디 수출인증제도: 강제 적합성 인증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는 수입상품을 비롯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사우디 규격과 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출품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 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 ○ 제도 개요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으로 명명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요구했다. ICCP는 1995년 11월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적용 후, 1998년 8월에는 적용 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부품, 가스 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로 ICCP를 운영해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관장했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무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 적용품목을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인증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주무부서도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에서 상무부로 상위 이관돼 현재 운영 중이다. 사우디 정부는 2006년 5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는데, 한국기술표준원(KATS)은 발 빠르게 사우디 표준청(SASO)과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KATSSASO MRP(상호인증 프로그램)를 체결해, 한국기술표준원의 KOLAS 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기로 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에 통보했다. 당시 MRP 체결로 인해 양국의 기술장벽(TBT)이 낮아지고, 무역이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는 외국 수출업체들에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사우디 측은 해당 인증제도가 수입규제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보호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수입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3) 인증 대상 품목(Regulated Products)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 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좋으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수출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사우디 상품 적합성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도 보

다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 수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 여부가 필요한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 4) 인증취득 방법 및 절차

ICCP 폐지 이후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서를 첨부하면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인증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기관의 Test Report, Certificate, L/C 사본 혹은 Contract Sheet, 구매의뢰서 (PO: Purchase Order), 선적서류(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등이 있다.

#### 5) 사우디 표준청, 사우디 수입안전관리 프로그램(SABER) 도입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제품안전 프로그램인 'SALEEM(Saudi Product Safety Program)' 구현을 위해 온라인 인증 시스템인 'SABER(<http://saber.sa>)'를 도입했다. 'SABER'는 기존의 사우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품의 품질 및 적합성 검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SABER'를 통한 제품 증명서(PCoC) 및 선적 인증서(SCoC) 발급은 사우디 수출 전 필수 서류이며, 제품 적합성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SABER 등록은 현지 사업자등록증(CR: Commercial Registration)을 보유한 사우디 기업만 가능하며, 현지기업이 SABER 플랫폼에서 수출국 인증 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수출업자는 지정된 대행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 등 추가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국내 SABER 등록 대행기관은 Intertek Korea, TUV,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이 있다.

##### ○ 제품인증서(PCoC) 발급 절차

- ① (수입업자) SABER에 제품 정보 등록
- ② (수입업자) SABER에서 인증기관(Certificate Bodies, CB) 선정
- ③ (수입업자) PCoC 수수료 납부
- ④ (인증기관) SABER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입업자의 요청 확인
- ⑤ (인증기관) 수출업자에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 요청
- ⑥ (수출업자)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공
- ⑦ (인증기관) 제품 서류 SABER에 등록
- ⑧ (수입업자) SABE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품인증서(PCoC) 발급

##### ○ 선적인증서(SCoC) 발급 절차

- ① (수입업자) SABER에 온라인 선적인증서(SCoC) 발급 신청
- ② (인증기관) 제품에 대한 제품인증서(PCoC) 유효여부 확인
- ③ (인증기관) 선적물품 확인
- ④ (인증기관) 제품인증서(PCoC), 인보이스정보(날짜, 금액, 수량, 총액 등) SABER에 등록
- ⑤ (수입업자) 선적인증서(SCoC) 수수료 납부
- ⑥ (수출업자) SABER 통해 온라인으로 선적 인증서(SCoC) 발급

○ 제품인증서(PCoC) 필요서류: 제품 기본정보(품명, 모델명, HS Code, 사진, Rating Label, Barcode 등), 제품 위험분석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품질증명서(ISO 9001 등), 제품 설명서(아랍어 필수 및 영어), 기술시험 성적서 등

○ 선적인증서(SCoC) 필요서류: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L/C(해당 경우에 한함)

## TBT

사우디는 2005년 WTO에 가입하면서 WTO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를 재개정할 때 WTO 사무국을 통해 다른 WTO 회원국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www.saso.gov.sa](http://www.saso.gov.s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중 고온의 환경적인 요인과 막대한 보조금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로 에너지 절약이라는 생활의식

의 부재에 따라 에너지 낭비가 심각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제도(SEEP)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과거 TBT 관련 이슈로 지난 2016년 5월 1일에는 조명기구의 에너지 효율, 기능 및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조명인 램프가 강제 인증대상이 돼 2단계로 적용됐다. 1단계(2016년 5월 1일)는 60W 이상의 전력을 가진 램프, 제2단계(2017년 5월 1일)는 모든 종류의 램프가 적용 대상이며 백열등, 밸러스트 내장 콤팩트 형광등, 할로겐램프, LED 램프(백열등, 할로겐램프 개조 타입) 등이 주요 품목이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2023년 4월 6일에는 전기 및 전자 장비의 대기 및 오프 모드 전력 소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을 승인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이 대기 및 오프 모드에서 허용된 전력 소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 ○ 주의사항

프로젝트 관련 기자재 납품 시 자금출처 또는 인보이스나 계약서상의 금액만큼 수입자가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증명서를 첨부해야 제품을 인수할 수 있는 규정이 갑자기 생긴 사례도 있다. 현지 사정에 따라 별도의 공지 없이 새로운 규제들이 시행되고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한 설명 없이 불특정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한다. 따라서 통관, 판매, 유통 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수시로 우리 기업들은 세관 당국 및 관련 부처나 현지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또는 현지 언론을 통해 수입규제와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 기타

2021년 9월 2일 GCC 장관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에서는 상설위원회의 최종 안(제38/45/2021호)을 검토한 끝에 GCC관습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GCC로의 수입 관련 세이프가드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아연도금 및 페인트 강판, 철근 등이 해당된다.

(해당 HS CODE:

721030,721049,721069,721220,721250,721230,721260,722591,722592,722599,721240,721310,721320,721391,721399,721410,721430,721510,721550,721590,721710,721720,721730,721790,722100,722300,722920,722990,722710,722720,722810,722820,722840,722850,722860,721491,721499,722211,722219,721610,721631,721631,730110,730810,721621,721650,730120,730431,730539,730590,730661,730690,730840,730890)

도금컬러강판에 적용되었던 세이프가드는 2021년 5월 14일까지로 부과기간이 종료하였다. 2016년 6월 9일 조사개시, 2018년 4월 19일 최종 판정에 이어 당해년도 5월 15일부터 1년간 USD 169 / 톤 부과, 이듬해 추가 1년간 USD 153 / 톤 부과, 2020년 5월 15일부터 1년간 USD 137 / 톤이 부과되었으며 3년간 부과 조치가 완료되었다.

(해당 HS CODE: 721070, 721090)

2022년 6월 24일까지 납축전지(자동차배터리)에 적용되었던 반덤핑은 규제는 일몰재심판정을 거쳐 2028년 4월 22일까지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납축전지에 대해 12~25% 관세를 지속하게 되었다.

(해당 HS CODE: 85071000)

고흡수성 수지는 2021년 11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3년 1월 최종 부과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028년 3월 3일까지 124% 관세가 결정되었다.

(해당 HS CODE: 390690)

## 다. 관세제도

### 관세제도 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거 확정되는데, 관세 적용 품목의 분류는 HS 2002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HS 8단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국 유치산업 보호, 건강 관련 일부 특수 품목의 경우 고관세를 적용(대추야자 40%, 담배 100%)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0~25%로 구분된다.

2020년 6월 20일부로 사우디는 약 1,390여 개 품목의 관세를 인상했다. 5월 27일 발표하고, 6월 10일 적용 예정이었던 관세인상 품목

은 총 2,290여 개였으나, 6월 20일 최종 발표 시 1차 발표(5.27)보다 약 900여 개의 품목을 축소했다. 특별보호 산업을 제외한 일반 제품의 관세는 기존 0~15%였으나, 6월 20일 관세인상 이후 5~25%로 높아졌다. 한국의 對 사우디 수출 1위 품목의 자동차(HS Code 8703)의 관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5%이지만, 이 외 전력 기자재(케이블, 변압기 등), 프로젝트 기자재(밸브, 파이프 등), 가전(에어컨, 세탁기 등), 시멘트, 섬유, 철강(비합금강, 연연, 후판, 냉연, 봉강, 선재 등) 제품의 관세가 5~15%p 내로 인상됐다. 특히 철강 제품의 관세 인상이 급격히 증가해 평균 5%의 관세가 8~20%로 증가했다.

또한 2022년 6월 12일부 사우디는 추가적으로 주요 수입품목 99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 0~20% 관세에 대해 품목당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15%까지 인상폭 적용했다. 품목은 주로 농수산품을 집중되었으나, 일부 화학제품 및 기계류의 경우 우리기업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 인상의 이유를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으로 명시한 것에 기인하여 점차 로컬 콘텐츠 소비 장려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도 기존 현지생산 불가품목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는 유지 중이지만, 과거 관세 인상 조치처럼 정부 발표, 언론보도 등 사전 안내 없이 긴급 발표 및 적용의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걸프 지역 국가나 아랍국가들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해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관세행정의 미비 등으로 최저 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래 관세는 송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가격 기준 또는 국내 제조업자와의 상의 등을 통해 최저 수입 가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 시에는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별도 부담금은 없다.

2023년 12월 28일에는 한-GCC 장관회담 계기에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89.9%, GCC는 80.5%에 적용되는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거나 감축하기로 했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사우디아라비아 수입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관세율은 Item No. HS Code(8단위), Description, Unit, Duty Rate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수입금지품목도 확인할 수 있다. 수입금지품목, 관세 관련 법령정보, 계절관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 관세율 검색 방법

- 홈페이지 접속: <https://eservices.zatca.gov.sa/sites/sc/en/tariff/Pages/TariffPages/TariffSearch.aspx>
- Search For: HS Heading으로 설정 후 HS Code 4자리 입력 후 관세율 조회

## 6. 통관 · 물류

### 가. 물류정보

#### 물류정보

○ 주요 무역항: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는 서쪽 홍해와 동쪽 아라비아만에 위치해 있다. 서해안인 홍해는 수에즈운하를 지나는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동해안인 아라비아만은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대부분의 석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우디의 주요 항구로는 서해안의 양부에 위치한 King Fahad Industrial Port Yanbu 및 Yanbu Commercial Port와 젓다의 Jeddah Islamic Port, 동해안의 주바이에 위치한 King Fahad Industrial Port Jubail 및 Jubail Commercial Port와 담맘의 King Abdulaziz Port 등 항구가 있으며, 수도인 리야드에도 Dry Port가 운영 중에 있다.

○ 주요 공항: 사우디의 주요 국제공항은 4개가 있다. 일부 지역의 국내공항에서도 국제노선이 있기는 하지만 대도시 위주로 국제선이 연결되어 있다. 연간 이용객과 항공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공항으로는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King Khalid International Airport : RUH)를 비롯하여 젓다의 킹 압둘아지즈 국제공항(King Abdulaziz International Airport : JED), 담맘의 킹 파드 국제공항(King Fahd International Airport : DMM)이다.

○ 유의사항: 예멘 반군 등에 의한 국지적 도발은 사우디-이란 외교관계 복원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홍해 해역에 위치한 사우디 서부 무역항 이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해상 물류가 동부 담맘항으로 몰리고 있어 물류 이동에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 2024년 초 이란-이스라엘 마찰로 호르무즈 해협 등도 물류 이동에 제한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 기타 참고사항: 사우디 정부는 탈석유 및 경제다각화를 위하여 Vision 2030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물류와 운송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재개되며, 현재는 메카/메디나를 중심으로 국한된 고속철도 등 인프라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나.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 1) 통관 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통관 시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요구하는 서식이 많아 통관이 쉽지 않지만 정부 주도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류 절차 등 요구되는 부분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환경을 많이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통관 부분에서의 개선할 여지가 필요한데, 이는 통관업무 수행기준이 통관 담당자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고 아직 정책 및 규정의 변경사항을 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수출 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이런 연유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수출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다소 수월한 편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기적으로 통관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관에도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데 소비재 물품의 경우 제품 포장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검토가 까다롭고, 특히 돼지고기와 그 기름이 포함된 식품이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식품, 주류 등은 통관이 불가하다. 이슬람 문화에 반하는 디자인이 포함된 소비재에 대해서는(소비재 역시) 통관이 매우 까다롭다. 또한, 통관 시 담당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박람회 전시되는 물품 또는 견본제품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한다.

##### 2) 수입신고

상품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하역하고, 수입상은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작성한 후 선하증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C/O), Packing list 등을 첨부해 세관의 Documentation Department에 제출한다.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상품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세, 가격, 중량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3) 물품검사

물품검사는 샘플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수입제품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해 수입금지품목 여부, 수입신고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입신고서와 기재 내용이 다르거나 품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거부하거나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금지품목이나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통관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 검사에서 적발됐을 경우 검사에 발생하는 경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무작위로 폭발물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며 이때 추가 조사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현지 통관 기간을 여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 4) 통관 절차

기본적인 통관 절차는 "상품 도착 → 세관창고 하역 → 통관서류 제출 → 시스템 등록"이다.

- FCL의 경우: 상품검사 및 관세부과를 위해서 상품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옮긴 후 샘플링검사 → 관세부과 → 관세납부 → 통관완료
- LCL의 경우: 상품검사 → 관세부과 → 관세납부 → 통관완료

상품이 도착해 지정된 장소에 하역되면 수입상(혹은 통관업자)은 BILL OF ENTRY에 수입상품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세, 가격, 중량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후 B/L, C/O, P/LIST, COMMERCIAL INVOICE 등과 함께 세관 DOCUMENTATION DEPARTMENT에 제출한다. BILL OF ENTRY 및 CLEARANCE ORDER에 서명하고 수입상은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통관이 완료된다. 관세가 납부된 상품은 통관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관 정문에서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지시하에 재검사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5일이 소요되며, 세관 업무시간은 8:00~14:30이고 금, 토요일은 휴무이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보세구역이 없다.

### 5) 세관 제출서류

- 원산지증명서 3부(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INVOICE(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BILL OF LADING
- 보험증명서(CIF의 경우)
- 수입검사인증서(SASO 적합 인증서)
- 유전자변형식품 시 GE 마크 필히 부착
- 위생검사서(SFDA 인증서/의약품,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 통관 시 유의사항

### 1) 통관 시 유의사항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입금지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이 포함 여부 및 가능 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할 수 있으므로, 통관 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을 선정해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유통을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의 인증이 필수이다. 아울러 Label 부착은 각별한 유의를 요하는 분야로 특히 식품류, 개인위생 구류, 의약품 라벨은 SASO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중고자동차는 수입통제품목에 포함해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5년 이상이 경과된 중고승용차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관은 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통관 시 문제가 될 경우, 수출품을 수출국이나 제3국으로 백싹 방법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 2) 최근 이슈

### ○ 통관규정 변경

2012년 말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은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의 대 테러단체 유입감시를 목적으로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발표했다. 이 규정은 수입자가 세관에서 물품 인수 시 인보이스나 계약서상에 있는 금액만큼 수입자가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관에서 지급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이나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서류 준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직접 시공하는 우리 진출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1건당 최대 10만 건에 달하는 오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오더에 건당 지급증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자재가 1차 공급업체가 아닌 2차, 3차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로 배송되는 경우 제품가격과 지불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통관 시 큰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에서 동 규정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유입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들에는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세부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거쳐 재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특성상 규정 변경 등 실제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실무적용 여부를 판단 가능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과의 상담을 통해 프로젝트 종료 후 관련 서류 일괄 제출 등과 같은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규정 불이행 시 물품이 발송국가로 반송되므로, 수출 전 반드시 현금지급증명서 및 신용장, 전신환 또는 그 밖의 법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증명서류를 인보이스와 함께 첨부하거나 수취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결제증명을 바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Letter of Undertaking을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가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결제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세관에서 벌금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무상 샘플 및 현지 공장에서 제공하는 단체복, 회사 기념품 등도 모두 현지 세관에서 가격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걸프협력회의(GCC)의 관세 동맹에 따라 GCC 역외국에서 GCC의 회원국으로 수입 시 수입통관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GCC 회원국으로 운송 시 수입통관절차는 면제되나, 회원국 간 품목의 관세율이 차이가 날 경우 초과 관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 ○ 원산지 표시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 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으나 포장에는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원산지 확인,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 Ahmed Saleh Al-Zahrani Est.

주소	P.O.Box 4118, Dammam 31491, KSA
전화번호	+966-50-196-4645

이메일	jypark55@hanmail.net
-----	----------------------

◦ Sel International

주소	P.O. Box 2038, AL-Khobar 34627, KSA
전화번호	+966-55-779-9295
이메일	dave@sel-intl.com

<자료원 : 각 기업 담당자>

# III. 투자

## 1. 투자환경

### 가.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 1) 개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56년 외국인투자법을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WTO 가입을 위해 2000년 4월 이전 외국인 투자법을 전면 개정했으며, 2014년 3월에 추가 개정을 실시했다. 2016년에는 석유분야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 경제개발 정책인 'Saudi Vision 2030'을 선포하였으며, 이후 외국 제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2017년 2월 추가 개정을 했다. 사우디 투자부는 이후 2024년 8월 투자법 개정을 발표하고 기존의 여러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 아래 더 큰 투명성과 유연성을 제공하자 하며 이는 2025년 발효 예정이다.

1956년 투자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프레임워크이었다. 이 법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며 국가 주권과 경제 보호주의를 우선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사우디 국민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했으며, 100% 외국인 소유권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특정 전략적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자원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고 투자자 보호나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 초기 법은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지만,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0년 사우디 정부는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SAGIA)를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법을 도입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같은 여러 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었고 외국인 투자 보호 및 현지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016년 4월 사우디 정부는 Vision2030을 발표하면서 국가 전략방향을 비석유 산업 활성화와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이 2017년 2월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도 반영되었다. 2017년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석유가스 또는 국방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100% 지분이 허용되었다. 사우디 파트너의 최소 25% 지분 보유가 필수였던 기존 투자환경에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높은 최소자본금 및 투자금을 의무화하거나 높은 매출을 기반으로한 현지인 고용 등의 의무를 포함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우디 투자청(SAGIA)은 2020년 2월 사우디 투자부(MISA, Ministry of Investment in Saudi)로 승격하여 투자 유치, 승인, 허가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8월에 투자법이 또 한번의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으며, 투자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통합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 투자자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투자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투자부에서 세부적인 이행 방식에 대한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2025년 발효를 앞두고 있다.

##### 2)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기관(사우디 투자부)

투자부는 설립 이래 정상급 경제외교 행사를 전담하며 사우디의 외교 활동에 핵심 축을 구축하고 있고, 그만큼 사우디가 외교에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상급 행사 외에도 투자부에서는 사우디 내 여러 산업분야의 정부 발주처들과 함께 연중 수시로 사절단을 구성하여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들을 순회하며 프로젝트 정보와 투자진출 기회를 소개하는 로드쇼를 개최하기도 한다.

또한 이런 투자유치 활동 외에도 투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라이선스(Investment License) 발급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 투자와 관련된 거시경제 지표 및 산업정보 조사, 투자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의 애로사항 대응, 투자환경 개선 등 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배정하여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제공하기도 한다.

○ 주요 업무

- 외국인투자 허가 심사 및 승인
- 외국인 투자가 및 잠재투자자에 한 각종 지원
- 외국인투자유치환경 개선 및 각종 투자유치 정책 수립 및 시행
-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

○ 주요 제공 서비스

- 투자 관련 문의 접수 시 48시간 내 답변
- 외국인 투자 관련 정부기관 담당자 연결 지원
- 투자자 애로사례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전담팀 구성
- 사우디 투자 허가증 3시간 이내 발급(구비서류 완벽 시)
- 사우디 파트너와의 분쟁 방지를 위한 상업중재센터 운영
- 투자자 라이선스 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

○ 연락처

- 주소: Imam Saud bin Abdulazeez bin Mohamed Road - Nakheel district Building: 3966Additional: 6244Postal Code: 12382
- 전화: +966-11-506-5777 (WhatsApp 문의 답변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https://www.misa.gov.sa/en/>
- 이메일: InvestorCare@misa.gov.sa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신청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할 허가나 승인들을 담당하는 각 정부 부서의 직원들이 상주하여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상주 직원의 주요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직원은 투자신청이 승인되면 상업 등기서류를 발급
- 내무부의 여권국(General Directorate of Passports)과 고용관리국(General Administration for Recruitment), 노동사회부의 노동실(Labor Office) 직원은 투자 신청이 사우디인 고용의무조건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노동허가서와 거주허가서를 발급
- 사우디 국세청(ZATCA) 직원은 회계와 세무 보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
- 사우디 산업개발기금(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SIDF)의 직원은 개발 프로젝트인 경우 동 기금의 지원 가능성을 확인

3) 투자장려 분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광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개선하고자 제조업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외국 투자유치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기술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금속가공, 건설자재, 포장재, 소비전자 클러스터에 태양광 분야를 추가, 6대 산업클러스터(NICDP: National Industrial Clusters Development Program)로 지정하고, 이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는 에너지(Energy), 운송 및 물류(Transport and logistics),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건강(Health), 생활과학(Life Science),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주요 부문(Key Sector)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ICT 시장의 경우 중동지역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의 ICT 시장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전자정부, e-learning 시장 등에 대한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 및 보건 분야의 경우 최근 우리 보건복

지부 장관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통해 한-사우디아라비아 의료 분야 협력을 체결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인 투자로 우리 의료기술, 교육, 병원 등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 4) 사우디 지역본부유치(RHQ) 정책

2021년 1월 개최된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FII)에서 왕세자가 지역본부유치(RHQ Programme)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지역본부 유치를 하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았으나 기업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사우디 내 중동지역본부가 없는 글로벌 기업은 2024년부터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RHQ 라이선스 취득에 따른 주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 10년간 Saudization 조건 면제 (전원 외국인으로 구성 가능)
- 비자 무제한 발급 가능 및 행정처리 소요기간 단축
- 엔지니어링 또는 의료 분야과 같이 자격증(professional accreditation)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RHQ에 한해 자격증 보유의무 면제
- 배우자도 Work Permit 발급, 자녀는 25세까지 인정(일반은 21세)
- 법인설립 전 과정 지원
- 2024년부터는 RHQ 라이선스 보유기업만 정부조달 참여 가능

사우디 투자부에 의하면 2024년 하반기 기준 RHQ 라이선스 발급 기업은 540개사 이상으로 이미 2030년 목표인 500개사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투자인센티브

#### 1) 개요

사우디는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3,500만 인구로 GCC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다. 선진국에 비해 느린 행정처리와 업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사우디는 190개 국가 중 기업하기 좋은 국가 62위를 차지했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외국인은 출판과 미디어 서비스 중 몇개 분야, 내륙 운송업 그리고 upstream 석유생산 부문 등 총 15개 분야(국가정보 '주요투자법 내용'에서 확인 가능)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투자가 가능하며, 외국인 지분 100%도 허용된다. 또한, 최근 들어 관료주의적 관행, 요식행위를 줄이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제조업이나 석유 생산 산업 기업 위주로 제공됐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 정부는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인 및 관광, 스포츠 등 특정 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2) 투자 인센티브

##### ○ 금융 인센티브

사우디아라비아는 개인수입과 사우디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금은 없으나(종교세 개념인 Zakat 2.5% 납부) 외국인투자 법인의 경우 20%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상 손실을 무기한 이월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도 다음과 같은 지역 또는 국제 금융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하다.

- AFESD(Arab Fund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아랍국가의 경제와 사회 개발 프로젝트 금융지원 프로그램
- Arab Monetary Fund: 회원국 간 아랍 금융시장과 금융거래 개발을 촉진, 회원국의 자원투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 Arab Trade Financing Program: 개인 및 상업거래를 위해 개인 또는 기관에 중·장기 대출 제공
- Inter-Arab Investment Guarantee Corporation: 아랍국가 간 투자에 대한 보험, 상업 및 비상업 리스크에 대한 수출 신용 제공
- Islamic Development Bank: 유망한 프로젝트와 회사에 자본과 보조금 제공 등
-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사우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채용을 지원

- 기타: 전기, 물, 토지임대 등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산업 공공 요율 제공, 천연가스 우선 할당, 킹 압둘라과학기술대학교(KAUST) 및 사우디 첨단도시 개발위원회(KACST)의 연구 지원금 제공 등

또한, 정부는 SIDF(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를 운용해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SIDF는 사우디 로컬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도 제조업 분야의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다. 제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며, 외국인 투자기업도 단독, 합작투자 등 투자 방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제조업 투자 시에만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대 융자 금액은 프로젝트 규모의 최대 75%이며, 연 2% 내외의 관리수수료를 징수하고, 대출 기간도 최대 20년이나 실제로는 평균 9.5년 정도이다. 융자신청 시 근로자 고용 및 훈련계획, 건설기법, 기본설비, 가격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완비 시 4개월 이내에 융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코로나로 인한 민간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2020년 5월 이후 정부 및 공공 금융기관은 다수의 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 사우디 재무부(MOF): 472억 달러의 기업지원 정책 수립했으며, 이 중 374억 달러는 대출 등 금융형태의 직접지원 추진
- 사우디 중앙은행(SAMA): 80억 달러 규모의 대출금 상환 연기, 중소기업 대상 133억 달러의 대출지원 프로그램 시행
- 산업광물자원부(MIM): 산업공단 내 입주한 모든 기업의 공장 운영비(전기세, 수도세 등 유지비)의 25% 면제
- 인적자원개발기금(HRDF): 2019년 7월부터 1년 동안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우디인 대상 급여의 30% 보전(월 급여 USD 1,000~4,000 대상, 최대 지원금은 1인당 USD 800 또는 급여의 50%)

#### ○ 산업별 인센티브

수출산업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 금융지원은 없으나 수출기업에 대한 항구세 감면 등 간접적 지원은 가능하다. 특정 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는 않으며 일반적 인센티브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제6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광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산업 및 농업 분야 투자 시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며(서비스 부문은 5년), 기계, 설비,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 ○ 지역별 인센티브

사우디는 주요 지역에 산업도시 또는 제조업 공단을 조성 및 운영 중이다. 산업도시(공단)에 입주할 경우 공장부지, 전력, 수도요금 등에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리야드, 제다, 담맘, 주베일 등 사우디 주요 도시에 사우디 산업공단관리청(The Saudi Industrial Property Authority: MODON) 산하에 35개 산업도시(2022년 5월 기준)가 있다. 해당 산업도시에는 총 3,000개의 공장과 300,000명 규모의 근로자가 있으며 총 667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왕실위원회 산하에 주베일과 얀부 등 2개의 대규모 산업도시가 운영 중이다. 사우디 상공부에 따르면 사우디 외국인투자의 50% 정도가 주베일 산업단지에 집중돼 있다. 사우디 정부는 향후 동 산업단지들에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상공부에서는 소규모 산업 지대를 담맘, 제다, 메카, 과심, 알-아사 등 16개 지역에 설정해 20년간 산업단지 임가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 정부는 Ha'il, Jazan, Najran, Al-Baha, Al-Jouf, Northern Territory 등 6개 저개발 지역에 사우디인을 채용하고 훈련을 제공할 경우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 세율은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10년 동안 적용된다.

- 사우디 근로자 교육훈련비 50%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
- 사우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 급여 50%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
-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약 27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5명 이상의 사우디인을 기술직이나 관리직으로 1년 이상 채용 시 추가적인 공제

사우디 정부는 최근 민관 합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00억 달러를 투자해 King Abdullah Economic City(KAEC) in Rabigh, Jazan Economic City(JEC) in Jazan, Prince Abdul Aziz bin Mousaed Economic City(PABMEC) in Hail, Knowledge Economic City in Medina 등 4개의 경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사우디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 다각화, 13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400만~500만 명을 위한 주거단지 건설, 1,500만 달러 가치의 GDP 기여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기타
  - 플랜트 합작투자 시 사우디 산업개발자금(SIDF) 융자 혜택(총 자본금의 50%까지 장기, 저리 융자, 15년 상환)
  - 산업단지 염가 입주 지원(0.26달러/m<sup>2</sup>)
  - 관세면세: 생산 원자재 및 설비면세 통관
  - 수출 시 각종 혜택 : 50% 항만 사용료 감액, 10일간 창고보관료 면제 등(단, 전력, 운송 등 국가안보 관련 분야 및 주요 공공시설관리, 그리고 전략산업인 원유탐사 및 upstream 분야에는 외국인투자 제한)
  - 일부 품목의 경우, 합작투자기업 생산제품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동종 수입상품에 20% 보호관세 부과

## 제한 및 금지(업종)

### 1) 산업부문

- 원유탐사, 시추 및 생산(국제 산업 분류코드에서 정하는 CPC5115+883 리스트의 광산 부문 관련 서비스 제외)
- 군사장비, 장치, 유니폼 제조업
- 민간 폭발물 제조업

### 2) 서비스부문

- 군사 부문 음식납품(Catering)
- 보안, 탐정 서비스
- 메카 및 메디나(이슬람 성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
- 성지순례(Hajj 및 Umrah) 관련 여행안내 서비스
- 현지 직업 사무소를 포함한 직업채용 및 고용 서비스
- 부동산중개업
- 인쇄출판업(관련 국제 분류 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 제외)
  - 전처리인쇄(88442), 인쇄기(88442), 그림 및 서예(84501), 사진(875), 라디오 및 TV 방송 스튜디오(96114), 해외 언론 사무실 및 특파원(962), 판촉 및 광고(871), 홍보(86506), 출판(8442), 보도 서비스(88442),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및 임대(88), 미디어 컨설턴트 및 연구(853), 타이핑 및 복사(87505 + 87904),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유통 서비스(96113)는 예외적으로 허용
- 국제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위탁업(국제 산업코드 621)
-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 도시 간 철도여객 운송을 제외한 육상 운송 서비스
- 국제 분류에 따른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준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
- (국제 산업코드 93191)
- 어업

\* 2007년 3월 25일부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 서비스, 의약 소매 및 개인 약국업을 포함한 도소매 유통 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서비스, 위성 송수신 서비스, 도시 간 열차 승객 수송서비스 및 항공운송 서비스 분야가 금지 분야에서 해제되어 외국인 투자 허용

## 나.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 King Abdullah Financial District(KAFD)

킹 압둘라 금융지구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가장 큰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78억 달러를 투자해 리야드 북쪽 약 1.6km 부지에 건설 중이며, 상업, 주거, 의료, 소매, 오락 등 다양한 입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GCC 내에서도 두바이, 카타르, 바레인 등의 인근 국가들이 중동의 금융 허브를 목표로 대규모 금융센터를 보유·운영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도 KAFD를 중동 최대 규모의 금융센터로 만들기 위해 공사

를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KAFD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소 Tadawul 및 CMA(Capital Market Authority) 본사, 은행 등 금융기관, 금융아카데미 등을 위치시켜 두바이가 가지고 있는 GCC 금융 허브를 지위를 차지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전시장 및 컨퍼런스, 호텔 등이 입주예정이며, 레크레이션 센터, 수로, 공원 및 스포츠 시설 등의 건설을 통해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 금융센터가 될 전망이다. 향후 각종 금융기관을 비롯해 박물관, 수족관, 금융 아카데미 등에 대한 입찰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별 상업지구(Special business zone)로 지정하여 입주 기업들에 금융 인센티브를 비롯한 비자 면제와 경쟁력 있는 규정들로 기업들을 유치하려 했으나 2018년 공사비용 초과 및 이후 코로나19 등 글로벌 경기 악화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2021년 말부터 일부 완공된 지역을 필두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지구 내에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지하철도 시범운행을 완료하는 대로 정상운행이 예정되어 미래 업무중심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KACST)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식기반 경제로 이전하기 위한 과학, 기술 개발 및 촉진을 위해 설립됐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립 과학원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동 기관은 사우디아라비아 혁신 및 외부 연구를 위한 자금 펀딩 촉진이 주요 역할이다. KACST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인텔, 톰슨 로이터 등과 같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연계, 사우디아라비아의 과학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특허 승인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KACST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도시인 제다 인근 타이프 시에 테크노파크와 연계한 과학 기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King Abdullah Economic City(KAEC)

제다 북쪽에 위치한 King Abdullah Economic City(KAEC)는 항만산업, 물류산업, 경공업 및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중인 지역으로 기본 인프라 및 주거시설은 완공되고 있으며 산업 인프라 및 레저 인프라가 지속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1억 6,800만㎡ 부지는 2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에 따르면 KAEC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업단지, 교육시설, 관광단지를 갖춘 항구도시가 될 전망이다.

◦ 2023년, 4개 신규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지정

정부는 리야드, 자잔, 라스 알카이르, KAEC 등 4곳에 위치한 신규 경제특별구역을 발표했다. 각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정하여 진출 산업군별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및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의향기업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로는 최대 20년까지 법인세율 5%로 인하, SEZ 내 대기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SEZ 내에서 또는 SEZ 간 거래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최초 5년 간 Saudization 없이 외국인력 채용 가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KAEC는 자동차산업, 소비재, ICT, 제약, 의료기술, 물류 중점으로 개발 예정이며, 라스 알카이르는 조선 및 리그 플랫폼, 자잔은 식품가공업, 금속, 물류 중점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리야드는 소비재, 컴퓨터, 제약, 의료기기, 항공부품, 귀금속 등 항공물류 연계 산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 Riyadh 1공단

<b>규모</b>	500,000㎡
<b>위치</b>	Dry Port 부근 Al-Malaz District
<b>임차료</b>	임대료: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 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b>관할기관 및 연락처</b>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11-874-917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a href="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a>
<b>비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 수도 리야드 남쪽으로 30Km 지점에 위치, 공항까지 40Km, 리야드 기차역 10Km 이내의 접근성</li> <li>○ 리야드 드라이포트 5Km 이내 위치</li> <li>○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li> <li>-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li> <li>-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li> </ul>

○ Riyadh 2공단

<b>규모</b>	19,000,000㎡
<b>위치</b>	리야드 남동부 Al-Kharj Road
<b>임차료</b>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b>관할기관 및 연락처</b>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11-874-917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a href="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a>
<b>비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 수도 리야드 남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 공항까지 50Km, 리야드 기차역 20Km 이내의 접근성</li> <li>○ 리야드 드라이포트 15Km 이내 위치</li> <li>○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li> <li>-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li> <li>-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li> </ul>

○ Jeddah 1공단

<b>규모</b>	12,000,000㎡
<b>위치</b>	젯다 남동부
<b>임차료</b>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b>관할기관 및 연락처</b>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11-874-917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a href="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a>

<b>비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 제 2도시 젓다市 남쪽 25Km 지점에 위치, 공항까지 45Km 이내로 접근 성 우수</li> <li>○ 젓다 항과의 거리 13Km로 물류여건 우수</li> <li>○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li> <li>-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 추진 계획서 등</li> <li>-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li> </ul>
-----------	--

○ Jeddah 2공단

<b>규모</b>	8,000,000㎡
<b>위치</b>	젓다 1공단 남부 35km
<b>임차료</b>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b>관할기관 및 연락처</b>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11-874-917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a href="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a>
<b>비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li> <li>-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 추진 계획서 등</li> <li>-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li> </ul>

○ Dammam 1공단

<b>규모</b>	2,704,000㎡
<b>위치</b>	Dammam-AlKhobar 고속도로
<b>임차료</b>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b>관할기관 및 연락처</b>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11-874-917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a href="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a>
<b>비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li> <li>-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 추진 계획서 등</li> <li>-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li> </ul>

○ Dammam 2공단

<b>규모</b>	25,487,000㎡
-----------	-------------

위치	Dhahran - AlAhsa Road
임차료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 - 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관할기관 및 연락처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11-874-917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a href="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a>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ARAMCO 본사 다흐란 서쪽 10Km에 위치</li> <li>○ 석유화학단지 및 프로젝트 밀집지역 담맘 남서쪽 30Km에 위치</li> <li>○ 담맘 포트 40Km, 바레인 국경 35Km 등 접근성 우수</li> <li>○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 추진 계획서 등</li> <li>-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li> </ul> </li> </ul>

**<자료원 :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 주요 지역별 여건

### ○ 리야드(Riyadh)

리야드는 사우디의 수도이며, 정치, 행정, 금융의 중심지이다. 2024년 기준 사우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782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북동부 인근 킹 칼리드 국제공항(King Khaled International Airport)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중심부와는 약 40Km 떨어져 있다. Olaya 지역이 리야드 중심지이며, Kingdom Tower 등 랜드마크 빌딩을 비롯해 주요 기업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King Fahad Road는 리야드 시내 남북을 관통한다. 농업도시 Al-Kharj, 고대 도시 Darraiya를 포함해 Dawadmi, Zulfi, Majma, Shaqraa 등이 리야드 지역에 포함되며, 2030년까지 8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리야드는 도시 경제의 성장과 교통 체증에 따른 대기오염 및 지속적인 인구 성장에 대비, 물류 및 운송 수요 충족을 위해 킹 칼리드 국제공항 확장 공사, 70~80억 달러 규모의 리야드 메트로, 버스 시스템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리야드 메트로의 경우 2013년 10월 시공을 시작해 2018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으나 저유가 여파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었다. 2021년 말부터 2024년 현재까지 시운행 중이며, 금년 중 전 구간 정상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스페인기업 FCC를 주축으로 삼성물산, Strukton and Freyssinet Saudi Arabia 등이 참가해 있다. 아울러 리야드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도 코스모폴리탄인 제다, 산업도시 담맘,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보다 종교적으로 더 보수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2017년 집권한 모하메드 빈 살만(MBS) 왕세자의 개혁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등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리야드 시즌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으며, 공연, 스포츠경기 등을 필두로 리야드 내 Boulevard라는 지역에 리야드 시즌 축제를 위한 지역을 건설하여 다양한 음식점, 게임, DJ, 연극 등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해당 공간은 리야드 시즌이 끝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국식당인 Jinji가 높은 인기를 끌었다.

### ○ 서부지역(제다, 메카, 메디나)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지역은 제다(Jeddah)와 이슬람의 두 성지인 메카(Mecca)와 메디나(Madinah)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특히, 제다는 수도 리야드 다음 사우디 제2의 도시이며 약 5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메카의 경우 매년 1,500만 명의 성지순례객들이 찾는 도시이다. 하지(Hajj) 및 움라(Umrah) 성지순례객은 매년 약 30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며, 메카의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평균 90%에 이른다. 제다, 메카, 메디나 외에 Taif, Rabigh, Qunfuzah 등의 도시가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지역에 해당한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서부지역의 교통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제다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안이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약 12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열차 3개 노선, 버스 816개, 해상교통 정류장 10개를 건설을 추진하였다. 사우디 정부의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2019년 7월 제다 시즌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으며, 한국의 슈퍼주니어가 단독 콘서트를 열었으며 약 4,000여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했다. 먼저 개최된 리야드 시즌의 뒤를 이어 2023년에는 제다에서 진행하였으며, 사파리투어, 불꽃놀이, 요트클럽, 놀이공원 등 다양한 활동을 결합하여 리야드 시즌의 성공을 이어갔다.

### ○ 동부지역(담맘, 알코바, 다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지역은 담맘(Dammam), 알코바(Al-Khobar), 주베일(Jubail) 및 다란(Darhan)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담맘은 걸프만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홍해에 위치한 제다 항에 이어 2대 항구인 King Abdulaziz 항구와 사우디아라비아

4대 공항 중 하나인 King Fahd International Airport가 위치하고 있다. 동부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1938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유전을 개발한 Dammam 7이 위치해 있다. 이 Dammam 7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으며, 아람코가 동 지역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주요 경제 구역

- 담맘(Dammam)

담맘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중심지로, 석유회사부터 케이터링 회사까지 석유 자회사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1938년 원유 발견 이래 급성장한 도시이다. 도시규모에 비해 스모그, 교통체증, 도로 시스템 미비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최근 도시를 정비하고 인공어초인 Half Moon bay와 Coral Island 등 관광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동부 지역 주요 항구인 담맘 항이 소재해 있으며, 제다와 마찬가지로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물동량이 많아 혼잡한 상황이나 현재까지는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 있다.

- 알-코바(Al-Khobar)

유전이 발견되기 전 작은 어촌이었던 알코바는 유전 발견 이후 아람코의 활동이 확대, 담맘의 북쪽 지역에 아람코의 석유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면서 크게 발전했다. 아울러 알코바를 관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연결하는 킹파드 코즈웨이(King Fahd Causeway) 완공 이후 알코바는 무역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 다란(Dhahran)

다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산업의 중심도시로서, 아람코(Aramco)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관련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석유 항인 Ras Tanura가 위치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대학 중 하나인 King Fahd University of Petroleum and Minerals가 위치해 있다. 오랜기간 아람코의 본사가 다란에 위치해 아람코 회사의 주거구역인 아람코 캠프(Aramco Camp)가 형성돼 있다.

## 2. 외국인직접투자

### 가. 개요 및 동향

국가정책 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활동을 총괄하는 전략은 2021년 10월 발표한 국가투자전략(NIS: National Investment Strategy)으로, 외국인 투자(FDI)는 물론 사우디 정부부처, 국부펀드(PIF), 민간기업 등의 자국민 투자 활동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IS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2030년까지 투자규모를 3배로 늘려 2조 리알 달성(GDP의 30%에 해당)
- 2) 국내 전체 투자 규모 2배 이상 늘려 1.65조 리알 달성(연평균 9% 성장)
- 3) 2030년까지 FDI 규모를 20배 이상 늘림(GDP의 5.7%)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② 투자자를 육성하고, ③ 투자금을 조성하고, ④ 투자 인프라를 개선하는 각종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Vision2030이 추구하는 경제성장 목표(민간 부문의 GDP 기여도 65% 달성, 비석유 수출의 GDP 기여도 16%→50%, 실업률을 7% 등)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National Investment Strategy의 핵심 내용이다.

###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024년 10월 사우디 투자부가 발표한 'Saudi Arabia Foreign Direct Investment Report'에 의하면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는 FDI 유치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연간 FDI 유입액은 SAR 96억에 달하며, 이는 해당 연도 목표치인 SAR 83억을 16%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GDP 대비 FDI 유입 비율도 2.4%에 도달하며 국가 목표와 일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2017년 이후로 FDI stock은 80% 증가하였으며, 2017년 대비 FDI 유입은 무려 240%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리야드 지역이 2023년 가장 많은 FDI 유입을 기록하며 총 SAR 33억에 달하였다. 동부 지역은 SAR 29억, 마디나 지역은 SAR 23억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그리고 도소매 무역이 있다. 이들 네 가지 분야는 2023년 전체 FDI의 약 78%를 차지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FDI는 주로 G20 국가와 유럽 연합 국가에서 유입되었다. 그중 프랑스는 전체 유입의 1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 뒤를 영국(7%)과 미국 및 인도(각각 6%와 4%)가 이었다.

[2023년 FDI 통계 발표 주요내용]

1) FDI 유입액 : 960억 SAR(256억 달러)

- 2017년 대비 약 240% 성장, 2022년 대비 50% 성장

- 경제활동 분야별로는 제조업(344억 리알), 금융 및 보험(149억 리알), 건설(134억 리알), 도소매(126억 리알), 전문·과학·기술업

(59억 리알), 광업(42억 리알), ICT(38억 리알), 부동산(26억 리알), 지원서비스업(22억 리알), 예술·엔터테인먼트(11억 리알) 순 기록  
 - 지역별로는 리야드(329억 리알), 동부(285억 리알), 메디나(232억 리알) 순으로 높음

2) FDI 재고 : 8,970억 SAR(2,396억 달러)

- 2017년 대비 약 120% 성장, 2022년 대비 13% 성장
- G20 국가 중 2023년 FDI 재고액 기준 16위를 차지 (성장률 기준 4위)
- 경제활동 분야별로는 제조업(2,587억 리알), 도소매(1,348억 리알), 금융 및 보험(1,121억 리알), 운송보관(1,112억 리알), 건설(798억 리알), 광업(332억 리알), ICT(317억 리알), 전문·과학·기술업(304억 리알), 지원서비스업(281억 리알), 부동산(217억 리알), 순 기록
- 지역별로는 동부(3,658억 리알), 리야드(2,868억 리알), 메카(1,546억 리알) 순으로 높음

3) FDI 순유입액 : 860억 SAR(230억 달러)

- 2022년 대비 90% 성장
- G20 국가 중 2023년 FDI 순유입액 기준 11위 차지 (성장률 기준 2위\*) \* 아랍코 특이치인 2022년 550억 리알, 2021년 490억 리알 투자 건 제외 기준
- 경제활동 분야별로는 제조업(321억 리알), 금융 및 보험(147억 리알), 건설(109억 리알), 도소매(105억 리알), 전문·과학·기술업(52억 리알), ICT(34억 리알), 광업(30억 리알) 순 기록

4) 2023년 국가(Ultimate Controlling Paretn)별 투자 동향, 단위: 리알

- FDI 유입: UAE(131억), 프랑스(112억), 영국(63억), 이집트(61억), 미국(55억)
- \* 권역별로는 유럽 41%, 아시아 40%, 아프리카 8%, 북미 6% 순으로 유입액이 많았음
- FDI 재고: 미국(2,023억), UAE(1,109억), 영국(696억), 프랑스(620억), 요르단(347억)
- \* 권역별로는 아시아 43%, 유럽 26%, 북미 24%, 아프리카·남미 각 3% 순
- FDI 순유입: UAE(118억), 프랑스(111억), 영국(61억), 이집트(60억), 룩셈부르크(53억)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3079	1621	23112	28055	12319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개된 정부통계나 보고서를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정부 주도로 국부펀드 PIF의 해외투자가 대외직접투자의 다수를 차지한다. 에너지산업, 농업 등 국가 주요산업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여 게임산업, 문화산업 등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투자하고 최근에는 AI 및 디지털 산업 관련 스타트업 투자도 활발하다.

사우디의 대외직접투자는 2020년 코로나로 대폭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회복세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대외 직접투자는 총 160억 7,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 감소를 기록했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14553	5411	24674	26962	16071

<자료원 : UNCTAD Stat>

### 3. 한국기업 투자

####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 한국기업투자 현황

2023년 對 사우디 투자는 약 5,000만 달러로, 2022년 대비 절반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5,6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이미 2023년 총 투자금액을 상회하였다.

최근 사우디 현지 프로젝트 활성화에 따라 신규 법인 수는 증가 추세이고, 업종별로는 과거 제조 및 건설업 일변도에서 최근에는 운수 및 창고, 정보통신,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하는 추세이다.

1980년~2023년 누적 투자금액은 56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2	33	7	111,284	29	112,360
2023	42	12	62,926	38	49,639
2024	21	6	49,745	24	56,35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 업종별 투자 동향

전체 누적 기준으로는 건설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에는 제조업 비중 상당히 증가했다. 2021년~2023년 동안 투자금액은 제조업이 건설업의 7.6배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사우디 정부의 자국산업 육성 정책으로 우리 제조기업들이 현지 투자진출을 확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2023년 기준 투자금액 4915만 달러 중 제조업이 3864만 달러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이 외에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531만 달러,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263만 달러, 건설업 25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6	4	47,455	8	82,64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0	2,626	0	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	0	40	2	40
건설업	11	1	17,586	10	14,152
도매 및 소매업	2	1	10,003	2	10,003
숙박 및 음식점업	3	0	5,121	3	5,1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	1	453	4	41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0	28,00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4	2	38,636	4	38,6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	2	0	2	2,6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7	0	60	7	60
건설업	15	3	2,811	11	2,511
운수 및 창고업	2	1	2,981	1	3
숙박 및 음식점업	1	0	9,035	0	0
정보통신업	1	0	800	0	0
부동산업	1	0	493	1	49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4	7,110	12	5,30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0	1,00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5	3	16,312	4	15,91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13	0	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	0	20	2	20
건설업	5	0	1,996	7	5,312
도매 및 소매업	1	0	68	0	0
운수 및 창고업	0	1	0	2	2,978
정보통신업	1	1	1,909	1	1,910
금융 및 보험업	2	0	14,996	1	14,996
부동산업	1	0	13,748	1	13,75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183	6	1,47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0	50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GS건설 리야드 법인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법인
업종	건설 및 공사업
취급분야	주택건설, 건축, 토목, 발전 등 종합건설
모기업명	GS건설

◦ GS글로벌 리야드 지사

진출연도	1988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기계, 금속, 화학 무역
모기업명	GS글로벌

○ LG-Shaker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에어컨 제조 및 판매
모기업명	LG전자

○ 대한전선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HV/EHV Power Cable
모기업명	대한전선

○ 두산에너지빌리티 리야드 지사

진출연도	1977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화력발전, 담수, 수처리, 원자력, 건설
모기업명	두산에너지빌리티

○ 삼성물산 리야드 사무소

진출연도	197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철강, 화학, 선박, 해양, 플랜트, 발전
모기업명	삼성물산

○ 삼성물산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건축, 토목, 발전 EPC
모기업명	삼성물산

○ 포스코이앤씨 리야드 지사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건설업
모기업명	포스코이앤씨

○ 풍산 리야드 사무소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계장비
모기업명	풍산

○ 한국수출입은행 리야드 사무소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공공행정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한국수출입은행

○ 한미글로벌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모기업명	한미글로벌

○ HD현대일렉트릭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변압기, 차단기, 회전기
모기업명	HD현대일렉트릭

○ 효성중공업 리야드 지사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변압기, 차단기
모기업명	효성중공업

○ SK에코플랜트 알코바 지사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건설, 공사
모기업명	SK에코플랜트

○ DL이앤씨 알코바 지사

진출연도	197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영업 및 프로젝트 수행 지원
모기업명	DL이앤씨

○ 대우건설 알코바 지사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종합건설
모기업명	대우건설

○ SGC E&C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토건 및 산업시설, 환경플랜트 등 설계 및 시공
모기업명	SGC E&C

○ 포스코인터내셔널 담맘 지사

진출연도	1981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철강, 기계, 화학 관련 수/출입 및 프로젝트 개발
모기업명	포스코인터내셔널

○ 한화건설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종합 건설 (플랜트, 건축, 토목)
모기업명	한화건설

○ 현대건설 알코바 지사

진출연도	197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플랜트, 발전, 전기, 건축, 토목(환경), 원자력 건설
모기업명	현대건설

○ 현대엔지니어링 사알코바 지사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EPC for Oil and Gas, Refinery, PetroChemical, Power Plant, Infra Structure
모기업명	현대엔지니어링

○ LX판토스 제다 지사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해상/항공 수/출입 국제운송, 통관, 내수 운송, IT, 물류컨설팅)
모기업명	LX판토스

○ 제일기획 리야드 지사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솔루션
모기업명	제일기획

○ 한국타이어 제다 지사

진출연도	1983
------	------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삼성E&A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198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화공, 발전 등 산업플랜트 설계/구매/공사
모기업명	삼성E&A

◦ LIG Nex1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자부품
모기업명	LIG Nex1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 4. 투자진출방식

### 가. 투자진출 형태

#### 법인

##### 1)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는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진출 방법으로, 설립 및 회사관리가 용이하고 투자자의 책임이 출자비율에 따라 제한된다. GCC 규정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외국인 참여단계를 제한하지 않으며, 산업, 농업, 컨트랙팅, 서비스 프로젝트 등에 100% 외국인 소유 회사도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25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요구조항이 없다. SAGIA(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 지역에 대한 투자, 수출 프로젝트 투자, 중요 기술투자 등은 최소 자본금 감액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은 즉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어야 하며, 현물출자의 경우 유형재 또는 특허(Patent), 상표권(Trade mark)과 같은 등록된 권리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보험이나 금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사항은 모든 주주들에게 동등한 의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최대 주주는 여타 주주들이 주식을 제3자에게 파는 것과 관련하여 선취권을 가질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매년 회계연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검증된 회계감사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가 회사 자본의 1/2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관리자는 주주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주주는 이에 따라 주식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정된 사항은 공식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법 151조에 의해 최소 1인 2인(조직) 이상, 최대 50인(조직) 미만의 개인 또는 투자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50인이 넘을 경우 1년 안에 JSC로 전환해야 한다. 투자자(조직)가 2개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자본 투자금에 한 부채금에 책임이 부과된다.

사우디 또는 GCC 투자자들의 wholly-owned 기업에게는 최소자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2,500만 리얄, 유통업(trading business)의 경우는 2,000만 리얄이며,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다. 100% 지분을 단독으로 갖는 LLC를 설립하기 원하는 외국기업은 자회사 또는 그들이 선택한 특정 개인이 최소지분만 보유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LLC는 자본금의 30%까지 매년 순이익의 10%를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경영진은 1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인이 경영진이 되어 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가 20명을 넘을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회사법상 회사의 손실이 자본금의 75%를 초과하고 회사를 지속하거나 투자자에게 부채 상환방안이 없다는 것이 30일 안에 받아들여지는 경우, 투자자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분의 3자 양도는 반드시 SAGIA(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와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분의 제 3자 양도 여부에 따라 SAGIA 라이선스, 상업등기, 회사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주주 동의안은 외국투자자들의 유일한 보호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 법규 외의 주주동의안도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다른 계약과 같이 샤리아법과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률 의무조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2)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

주식회사 설립은 유한회사에 적용되는 승인 절차보다 다소 세부적이고, 복잡하나 관련 요구사항, 운영요건이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아니며, 회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유한회사와 비교할 때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투자사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상공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절차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관은 상공부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르는 것이 좋으며, 회사정관의 일부 또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선취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회사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사람 이름으로 된 특허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회사명을 개인의 이름으로 쓸 수 없다. 주식회사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 주식회사는 왕령에 의해 규정된 허가증 없이는 주식회사로 등재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회사,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회사, 금융이나 보험과 관련된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유통주식의 최소 금액은 50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다. 상장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자본금은 1,0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 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최소 5명 이상, 회사 설립 시 각각의 주주는 보유지분 총금액의 25% 이상의 현금을 상공부에서 지정한 회사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총 입금액이 회사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관리이사를 선출해야 하며, 의장과 관리이사는 겸임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이사회 외에 별도 감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는 구성원 참여 비율에 대한 회사내규가 존재하지 않을 시 과반수의 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 인원이 3명을 넘을 시에만 유효하다. 이사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항상 공식 도장이 찍힌 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의장과 총무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회사의 회계연도가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주주는 투표권을 행사(또는 위임)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 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해야 정상적으로 성립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사 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요청할 경우 이사회에 의해 개최될 수 있으며, 의결은 회의참석 주주의 2/3 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가능하다. 아래 사항들은 임시주주총회 회사정관의 개정목록에서 제외된다.

- 회사주주로서의 기본적 권리 박탈
- 특정 주주의 금융부채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 내 등록회사를 외국으로 이동
- 회사의 국적을 바꾸는 행위

#### ○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주요 차이점

- 소유권
  - 유한책임회사(LLC) : Joint venture or wholly foreign-owned
  - 주식회사(JSC) : Joint venture or wholly foreign-owned
- 별도 법인 여부
  - 유한책임회사(LLC) : 예
  - 주식회사(JSC) : 예
- 유한 책임 여부
  - 유한책임회사(LLC) : 예
  - 주식회사(JSC) : 예
- 경영관리
  - 유한책임회사(LLC) : 소유권 비율에 따름; 투자자 20명 초과 시 감사위원회 필수
  - 주식회사(JSC) : 완전 경영 및 운영 가능
- 이윤분배
  - 유한책임회사(LLC) : 자본출자지분에 따름
  - 주식회사(JSC) : 정관 또는 주주협약에 따름
- 최소 자본 투자 제한
  - 유한책임회사(LLC) :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 주식회사(JSC) : 2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 법인세

- 유한책임회사(LLC) : 20%
- 주식회사(JSC) : 20%
  
- 투자 인센티브
  - 유한책임회사(LLC) : 있음
  - 주식회사(JSC) : 있음

## 지사

외국 기업은 지사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투자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하나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단독진출만 가능하다. 즉 유한책임회사가 투자자 별로 지분 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지사(Branch)의 경우 모기업에 책임이 있다. 신청 시 상공부가 발급하는 외국 자본투자면허, 상업등기, 본국 본사의 사업체등록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투자 종류에 따라 서비스업 지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없으며, 제조업의 경우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다. 법인형태의 지사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의 스폰서십 하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종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므로 확실한 에이전트(스폰서)가 존재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지사의 법적인 지위가 스폰서의 피고용인 형태이며, 활동 범위 역시 스폰서의 업종 및 현지 활동범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현지 스폰서 또는 스폰서가 될 파트너를 어떤 기업으로 할지 숙고해야 한다.

## 연락사무소

### 1) 연락사무소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에 따라 법인형태 이외의 외국 기업의 지사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및 기술 서비스 사무소(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office)만 허용되는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등 그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 ○ 연락사무소

정부발주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외국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한시적 법인허가(Temporary License)를 취득한 후 임시법인등록(TCR: Temporary Commercial Registration)을 통해 프로젝트를 이행하게 된다. 이때 외국 회사가 별도의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가 종료되며 TCR도 종료된다. 프로젝트 종료 후 후속 프로젝트나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연락사무소이다.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회사에만 해당된다.

#### ○ 과학·기술 서비스 사무소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상업 에이전트를 갖고 있는 외국 회사가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 연락사무소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활동 범위는 자사의 상품 구매 고객들이나 자사가 지정한 상업 에이전트(해당 에이전트는 법상 등록의무가 있음)에 대한 과학, 기술 및 자문 서비스에 국한되며, 회계감사 및 사우디아라비아인 고용의무가 있다.

#### ○ 지사와 연락 사무소 주요 차이점

- 소유권
  - 지사(Branch) : Wholly foreign-owned
  - 기술과학 사무소(TSO) : Wholly foreign-owned
  
- 별도 법인 여부
  - 지사(Branch) : 아니오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아니오
  
- 유한 책임 여부
  - 지사(Branch) : 아니오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아니오

- 경영관리

· 지사(Branch) : 완전 경영 및 운영 가능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완전 경영 및 운영 가능

- 이윤분배

· 지사(Branch) : 모회사 기준에 따름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이윤 창출 無

- 최소 자본 투자 제한

· 지사(Branch) :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없음

- 법인세

· 지사(Branch) : 20%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없음

- 투자 인센티브

· 지사(Branch) : 있음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없음

##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투자 위험성</p> <p>기존의 사우디 투자환경은 여러 배타적인 제도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활발한 투자가 어려웠다. 그러나 VISION 2030의 일환으로 사우디 정부는 다양한 사업에서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4분기부터 투자유입이 증가되었고,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전년 대비 257.2% 증가하며 19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제유가 회복 및 사우디 내 주요 프로젝트 재개, 그리고 정부 주도의 투자환경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그 위험도가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나 높은 성장가능성이 그러한 위험도를 상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설부른 진출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우디 바이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공부를 이행한 후에 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p> <p>2) 투자진출시 애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 채용의 어려움: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 의무고용제(Saudization)와 스폰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 인력의 급증에 따른 사우디 국민 고용 안정화를 위해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내 모든 기업이 사우디 국민을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우디 노동자를 채용해야 하여 기업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 그리고 사우디 노동자의 경우, 제3국민 대비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점을 사전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우디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통해야만 각종 법률행위 및 영리행위 등의 현지활동이 가능하다. 스폰서에게 제공되는 연간 비용과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해 유의가 필요하다.</li> <li>○ 복잡한 투자절차: 최근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소요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 투자청(SAGIA)의 업무처리는 담당자에 따라 요청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존재하여 기업들이 행정업무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설명 없이 투자 승인이 거부되거나 규제 및 법령, 제도 변경의 신속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존재한다.</li> </ul> <p>3) 분쟁해결</p> <p>사우디는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을 따르는 국가로 법률 체계가 우리와 다른 점이 많다. 사우디는 일반 재판부와 특별 재판부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샤리아 법원은 일반 법원에 해당되는데,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다르게 원고의 소송 제기에 대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샤리아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고가 가능하다. 특별 재판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근거한 특수하게 세분화된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며 국민권익위원회(The Civil Rights Directorate), 유통어음 위원회(The Negotiable Instruments Committee), SAMA 분쟁 위원회(SAMA Committee), 상공회의소 분쟁 조정 위원회(The Conciliation Committee at the Chamber of Commerce), 노사분쟁 해결 최고 위원회(the Primary Commission for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등이 있다. 중재인은 반드시 샤리아와 상법 전문가여야 하며 그 전문가는 사우디 법원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집행권을 가진다.</p>
------------	---

## 다. 회사 유형

### 주식회사

주식회사 설립은 유한회사에 적용되는 승인 절차보다 다소 세부적이고, 복잡하나 관련 요구사항, 운영요건이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아니며, 회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유한회사와 비교할 때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투자사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상공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절차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관은 상공부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르는 것이 좋으며, 회사정관의 일부 또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선취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회사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사람 이름으로 된 특허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회사명을 개인의 이름으로 쓸 수 없다. 주식회사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 주식회사는 왕령에 의해 규정된 허가증 없이는 주식회사로 등재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회사,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회사, 금융이나 보험과 관련된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유통주식의 최소 금액은 50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다. 상장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자본금은

10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 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최소 5명 이상, 회사 설립 시 각각의 주주는 보유지분 총금액의 25% 이상의 현금을 상공부에서 지정한 회사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총 입금액이 회사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관리이사를 선출해야 하며, 의장과 관리이사는 겸임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이사회 외에 별도 감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는 구성원 참여 비율에 대한 회사내규가 존재하지 않을 시 과반수의 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 인원이 3명을 넘을 시에만 유효하다. 이사회 회의의 모든 회의 내용은 항상 공식 도장이 찍힌 기록부에 기록돼야 하며 의장과 총무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회사의 회계연도가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주주는 투표권을 행사(또는 위임)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 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해야 정상적으로 성립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사 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요청할 경우 이사회에 의해 개최될 수 있으며, 의결은 회의참석 주주의 2/3 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가능하다. 아래 사항들은 임시주주총회 회사정관의 개정목록에서 제외된다.

- 회사주주로서의 기본적 권리 박탈
- 특정 주주의 금융부채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 내 등록회사를 외국으로 이동
- 회사의 국적을 바꾸는 행위

##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진출 방법으로, 설립 및 회사관리가 용이하고 투자자의 책임이 출자비율에 따라 제한된다. GCC 규정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외국인 참여단계를 제한하지 않으며, 산업, 농업, 컨트랙팅, 서비스 프로젝트 등에 100% 외국인 소유 회사도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2,5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요구사항이 없다. SAGIA(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 지역에 대한 투자, 수출 프로젝트 투자, 중요 기술투자 등은 최소 자본금 감액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은 즉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돼야 하며, 현물출자의 경우 유형재 또는 특허(Patent), 상표권(Trade mark)과 같은 등록된 권리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보험이나 금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사항은 모든 주주들에게 동등한 의결권이 부여돼야 한다. 또한, 최대 주주는 여타 주주들이 주식을 제3자에게 파는 것과 관련해서 선취권을 가질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매년 회계연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검증된 회계감시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가 회사 자본의 1/2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관리자는 주주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주주는 이에 따라 주식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정된 사항은 공식 관보에 게재돼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법 151조에 의해 최소 1인 2인(조직) 이상, 최대 50인(조직) 미만의 개인 또는 투자조직으로 구성돼야 한다. 만약 50인이 넘을 경우 1년 안에 JSC로 전환해야 한다. 투자가(조직)가 2개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자본 투자금에 한 부채금에 책임이 부과된다.

사우디 또는 GCC 투자자들의 wholly-owned 기업에게는 최소자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2,500만 리얄, 유통업(trading business)의 경우는 2,000만 리얄이며,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다. 100% 지분을 단독으로 갖는 LLC를 설립하기 원하는 외국기업은 자회사 또는 그들이 선택한 특정 개인이 최소지분만 보유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LLC는 자본금의 30%까지 매년 순 이익의 10%를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경영진은 1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인이 경영진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가 20명을 넘을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회사법상 회사의 손실이 자본금의 75%를 초과하고 회사를 지속하거나 투자자에게 부채상환방안이 없다는 것이 30일 안에 받아들여지는 경우, 투자자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분의 3자 양도는 반드시 SAGIA(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와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분의 제 3자 양도 여부에 따라 SAGIA 라이선스, 상업등기, 회사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주주 동의안은 외국투자자들의 유일한 보호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 법규 외의 주주동의안도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다른 계약과 같이 샤리아법과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률 의무조항을 벗어나지 않

아야 한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을 하고, CR(Commercial Register)을 발급받아야 한다. 동 과정에서 사업명, 유형 등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CR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상무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공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CR을 발급받고 나면 개인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우디 국세청(ZATCA)에도 등록을 하여야 세금처리 등이 가능하다.

##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o Al Tamimi Co.

전화번호	+966-11-416-9666
주소	Sky Tower (North Tower), 9th Floor, King Fahad Road, Al Olaia Area, PO Box 300400, Riyadh, Saudi Arabia 11372
홈페이지	<a href="https://www.tamimi.com">https://www.tamimi.com</a>
이메일	H.Song@tamimi.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비고	송형민 변호사(Song, Hyungmin)

### o Al Sharif Law Firm (Johnson&Pump)

전화번호	+966-11-462-5925
주소	Al Mousa Commercial Centre, Tower 2, 5th Floor, Office 259, Olaya Street, P.O.Box 9170, Riyadh 11433, Kingdom of Saudi Arabia
홈페이지	<a href="https://www.alshariflaw.com">https://www.alshariflaw.com</a>
이메일	johsonch51@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법인 설립 지원 경험 다수

### o Shearman & Sterling LLP

전화번호	+966-11-211-2000
주소	Kingdom Centre 24th Floor, P.O.Box 90217, Riyadh 11613, KSA
홈페이지	<a href="https://www.shearman.com">https://www.shearman.com</a>
이메일	brendan.hundt@shearma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	---

○ Ernst & Young

전화번호	+966-11-273-4740
주소	Levels 6 & 14, Al Faisaliah Office Tower, Al Faisaliah Office Tower, King Fahad Road, Olaya, P.O.Box 2732, Riyadh 11461
홈페이지	<a href="https://www.ey.com/en_sa">https://www.ey.com/en_sa</a>
이메일	mohammed.almulhim@sa.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EY 쿠웨이트 박주병 이사 사우디 담당(joobyung.park@ae.ey.com)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각 회사별 홈페이지>

## 5. 외환

### 가. 외환제도

#### 외환 제도 개요

1966년 은행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Saudi Central Bank: SAMA)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알화의 환율 및 통화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SAMA는 1986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리알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고정하는 페그제를 선택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IMF 복합통화단위인 SDR(special drawing rights)에 4.28255사우디 리알: SDR 1 비율로 고정돼 있었다.

2003년 1월 1일이 돼서야 마침내 3.75리알: 1달러의 비율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알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고정하는 페그제가 공식적으로 적용됐다. 페그제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알화는 수요 공급에 의한 단기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사우디는 안정적인 금융 및 수출입 거래활동과 민간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GCC 국가와도 고정환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페그제를 포기한 쿠웨이트를 제외한 타 GCC 국가들과의 환율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개인 재산을 존중하는 이슬람법에 의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제외하고 사우디 리알화의 자유로운 태환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자금의 국외 이동, 외환보유, 반입, 반출에 관한 규제는 없으며 외화계정 개설이 자유롭고 무역 외 지급과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도 없다. 외환거래에 특별한 금지 규정은 없으나 투기, 금융사기,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SAMA는 주요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은 상업등기가 돼 있지 않은 회사가 국내 은행에 개설한 외화 당좌계좌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은행은 사우디아라비아 화폐의 반출을 통화청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SAMA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은행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은행이 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 국내 은행이 국내외에서 리알화 표시 신디케이트론을 주선하고 외국 은행을 참가시키는 경우
-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리알화 표시 신디케이트론에 참가하거나 비거주자를 위한 외국 통화 표시 신디케이트론에 참가하는 경우
- 역외 은행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리알화 표시 신디케이트론에 참가하는 경우

#### 1) 자본의 유입과 송금

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상업등기 전 사우디 현지은행에 예치되어야 하며, 최초 예치금 외에 필요한 자본금은 없다. 필수 자본금은 현지은행 계좌에 항상 예치되어야 하며, 현지 공인 회계사가 유지 여부를 매년 감시한다. 감사나 회사의 청산은 사우디 투자부(MIS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고 세금 미납이 없다는 증빙서를 제출하면 투자금의 본국 송금에는 제한이 없다.

#### 2) 이익 송금

기업은 이익송금을 위해 세금 신고서를 사우디 국세청(ZATCA)에 제출해야 하며, 사우디 투자부(MISA)로부터 감사승인을 받고 세금 미납이 없다는 증빙을 득할 시 이익송금에 대한 규제는 없다. 배당수익 해외 송금 시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는데 해외 지사의 본사 송금은 15%, 본사 이외의 타 기업 송금은 5%이다.

#### 3) 차입금 반입과 상환

해외 차입 관련 제한이 없으며, 해외차입금의 원리금 지급 또한 제한이 없다.

#### 4) 로열티

외국-사우디 합작기업의 로열티 지급은 전액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로열티 지급 시에 로열티 지급 기

업은 법인세를 원천 징수해 사우디 국세청(ZATCA)에 신고해야 한다. 사우디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 기업 활동에 사용되는 자산 이외 소유물 처분 이득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 5) 무역대금 지급

수출입 관련 외환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

#### 6) 무역대금 결제방식

사우디의 무역대금 결제방식은 신용장 결제방식(L/C)과 송금방식(T/T) 또는 어음결제 방식(D/A 또는 D/P) 등 비신용장 결제방식이 50:50의 비중으로 L/C 결제방식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사우디 은행의 신용도가 높아 L/C방식의 거래가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금 결제 방식에서 사우디와 거래국가의 관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L/C와 T/T가 90% 이상인 반면, 구미 선진국은 D/P 또는 D/A가 5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해 제3국 은행은 매입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으나 서로 다른 주말 시스템과 종교 휴일 등의 관계로 AT SIGHT 의미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고, 사우디 은행의 신속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수일씩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6월 29일 자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말 시스템이 기존 목, 금요일에서 금, 토요일로 변경되며 1영업일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국제 금융 및 수출입대금 결제가 원활해졌다. 현지 주재 우리 기업 및 경쟁국인 일본, 대만 기업이 일상적으로 수용하는 무역대금 결제방식은 일반 상업거래 시 L/C가 및 T/T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외상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D/P, D/A 등 어음거래도 다수 사용하고 있다. 국가별 외환관리법 및 거래품목에 따라 연불수출 등의 방식이 선호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소비재 거래의 경우에는 L/C 및 T/T 방식이 대부분이다.

#### 7) 은행 신용도

제3국 은행의 보증 필요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현지 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문제가 없으며 약간의 수수료만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은행은 모두 주식회사(유한책임) 형태로서 사기업이며 국가가 지분을 보증하는 곳은 국립은행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에 등록된 상업은행은 약 10여개가 있다. 국립은행(Saudi National Bank), 리야드 은행(Riyadh Bank), 알라즈히 금융투자회사(Al Rajhi Banking and Investment Company)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 소유이며 이중 알라즈히 금융투자회사는 이자를 금하는 이슬람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그 외 은행들은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과의 합작회사 형태로 예금과 대출 이외에 외환시장 참여, 은행 간 예금, 외채와 공채 업무 등을 담당한다.

#### 외환 규제

외환거래에 대한 제약이 없어 자본, 활동경비, 배당, 수익금 등 투자 자금과 과실 송금이 자유로우며, 달러에 연동된 고정환율제를 채택해 환율변동 리스크가 낮다. 제조업 투자 시 물류비용, 세계혜택 등의 장점이 있으며, 석유화학 관련 저렴한 원료확보가 용이하다. 또 다른 장점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알(SAR)의 안정적 환율이다. 미국과의 페그제를 통해 1달러당 3.75사우디아라비아 리알의 비율로 고정돼 있다. 대외송금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6. 노무

###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USD 1 = SAR 3.75(고정)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5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00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b>비고</b>	<p>사우디 남성 대졸 초임 평균은 은행 및 대기업 최소 USD 4,000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USD 3,000, 생산직은 USD 2,000 정도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USD 500~800 정도 낮다.</p> <p>사우디 중앙부처, 공공기관 근로자 인터뷰에 의하면 정부기관 대졸 초임은 대기업과 비슷한 USD 4,000 수준이다.</p> <p>프로젝트 근로자, 호텔 및 식당 종업원 등에 일하는 제3국 저임금 노동자의 최초 고용 시 월급은 USD 1,000~1,100 수준이다.</p> <p>사우디는 2013년 2월 2일 공공 분야 최저임금을 1개월 SAR 3,000(USD 800)으로 발표한 이후, 2020년 12월 3일에는 1개월 SAR 4,000(USD 1,068)로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으며 이는 2021년 4월부터 적용돼 현재 까지 유지되고 있다.</p> <p>SAR 4,000 이하로 지급하는 사우디인에 대해서는 Nitaqat 상 사우디인 고용비율 계산 시, 0.5인으로 계산한다고 발표하여 Saudization 준수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지급이 필수이며 우리 진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p> <p>페그제(고정환율) 사용으로 국가공식 환율은 USD 1 = SAR 3.75이다.</p> <p>은행에서의 달러 매매 환율은 USD 1 = SAR 3.744 수준이고,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다.</p>				

<자료원 : 사우디 통계청, 사우디 노동사회개발부, 리야드 무역관 자체 조사>

### 나. 노무관리

#### 고용계약

##### 1) 구인 방법

사우디 내 인력 채용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한 가지는 신문 등 직원채용 광고를 통하는 것이며, 다른 방법은 리크루팅사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다. 사우디는 아직도 신문 광고가 인력 채용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일 많은 구인 광고가 아랍어, 영자 신문에 게재되고 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예: www.bayt.com)등이 활성화되어 사이트를 통해서 구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리크루팅사 역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일정 조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있는 프로젝트 시장의 경우 현장 인력을 대거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 블록 비자를 이용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인력의 경우 사우디 내 인력을 공급해주는 컨설팅사나 인력회사들이 있으며, 직원 한 명당 50~100사우디 리얄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직접 현장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사우디 내 인력회사의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사우디 정부의 스폰서십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인력 조달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사우디 정부에서 지정한 몇몇 인력회사만을 통해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자 인건비 상승 등의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이 다수 생겨났다. 그 이후 기존의 인력회사들이 건설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프로젝트 중소기업과 하청계약을 체결, 하청업체 인력의 형태로 공사현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사우디 정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 2) 고용계약 체결·해지

근로계약 시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수습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수습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주요 종교 휴일(이드 알 피트르와 이드 알 아드하), 병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자와 근로자 양측은 계약서 상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권한을 명시하지 않는 한 수습 기간에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수습 기간 이후 해고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고용계약 기간 중의 해고는 노동자가 노동 사무소(Labor Office)에 항의할 수 있으나 계약 기간 만료 시의 고용종료에는 문제가 없다. 고용 기간이 확정된 고용계약의 해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서면으로 제공돼 양측이 합의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른 정년을 넘길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주는 사우디 노동법 80조에 의거하여 보상, 사전 통보, 배상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근무 중 또는 업무를 사유로 고용주 또는 상사를 폭행한 경우
- 계약서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질서(법규명령)를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고용주의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련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했거나 정직성·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실한 경우
- 고의적으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각종 서류를 위조한 경우
- 수습 기간 중의 근로자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0일 이상 결근하거나, 연속 15일 이상 결근한 경우
- 근로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 불법적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 업무 기밀 사항을 폭로한 경우

고용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고용계약의 해지는 월급 노동자의 경우 30일 전 60일 전, 기타노동자의 경우 30일 전 서면으로 사전통지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우디 노동법 81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유지하며 아무 제재 없이 퇴사할 수 있다

- 고용주가 기본적인 계약조건이나 근로자에 대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고용주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자가 계약상의 근로조건 및 환경에 대해 속인 상황을 증명할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계약 또는 노동법 60조 항(부록2 참조)에 위반하는 일을 맡길 경우
- 고용주 및 그의 가족, 책임관리자가 근로자와 그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저지른 경우
- 고용주 및 책임관리자의 대우가 잔혹, 부당하거나 모욕적인 경우
- 근무지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요소를 고용주가 인지하고도 방치할 경우
- 고용주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자가 부당대우 및 계약 위배 등을 통해, 근로자가 계약파기 당사자처럼 보이게 할 경우

## 근로시간

사우디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며, 주당 48시간이 규정 근무시간이다. 라마단 기간에는 하루 6시간, 일주일에 36시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노동시간 규정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기본 수당에 50%가 추가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근무 역시 50%의 수당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 동 내역은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 휴식시간, 기도시간은 근무시간에 계산되지 않으나,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현지 대부분의 무슬림 근로자들은 이슬람에서 정하는 기도시간(살라)에 자유롭게 기도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며, 업무시간에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휴가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국가로 '목요일, 금요일' 주말체계를 지속해왔으나 2013년 6월 29일을 기해 '금, 토요일' 주말체제로 변경하는 왕의 칙령이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피고용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휴무일을 바꿀 수 있으나 주 근무일이 6일을 넘어서 안 된다. 유급휴가는 동일 고용주하에 1년 근무 후부터 적용되며, 5년 미만 근무 시 연 21일 이상, 5년 이상 근무 시 연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근로자 간 최초 합의한 근로계약서 및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휴가 일수 조정이 가능하다. 고용주는 업무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 시작일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주의 승인 후 상호 합의한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연도 잔여 휴가 발생 시 다음 연도로 이월 또는 유급 보상이 가능하며, 이는 고용주-근로자 간 체결한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병가의 경우, 질환으로 판명된 후 최초 30일은 100% 유급휴가, 다음 60일은 급여의 3/4을 받으며, 그다음 30일은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고용주 또는 정부기관 지정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1년간 유효하다. 고용주는 병가기간이 규정기한을 넘지 않는 한 질병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병가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모든 여성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출산 예정일 직전 4주와 출산 후 6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동안, 고용주는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임금의 50%, 3년 이상 근무했을 시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간 중 근로자에게 해고 및 그에 상응하는 경고를 할 수 없다. 여성 근로자의 남편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최소 15일의 100%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무슬림 여성의 경우는 개정법에 따라 4개월 이상의 긴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이 외에도 본인의 결혼, 배우자 혹은 본인의 직계존속 사망 시 5일, 건국기념일 1일, 자녀 출산 시 3일, 이드 알 피트르와 이드 알 아드하에 각각 4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이드 알 아드하 기간에 성지순례를 원할 시 재직 중 1회에 한해 10일~15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 해고

근로계약 시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수습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수습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주요 종교 휴일(이드 알 피트르와 이드 알 아드하), 병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자와 근로자 양측은 계약서상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권한을 명시하지 않는 한 수습 기간에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수습 기간 이후 해고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계약 기간 중의 해고는 노동자가 노동 사무소에 항의할 수 있으나 계약 기간 만료 시의 고용종료는 문제가 없다. 고용 기간이 확정된 고용계약의 해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의 동기가 서면으로 제공돼 양측이 합의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른 정년을 넘길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주는 보상, 사전 통보, 배상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근무 중 또는 업무를 사유로 고용주 또는 상사를 폭행한 경우
- 계약서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고용주의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련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했거나 정직성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실한 경우
-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위조한 경우
- 수습 기간 중의 근로자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20일 이상 결근하거나, 연속 10일 이상 결근
- 근로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 불법적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 업무 기밀사항을 폭로한 경우

고용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고용계약의 해지는 월급 노동자의 경우 30일의 사전통지, 기타 노동자의 경우 15일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문제 없이 퇴사할 수 있다.

- 고용주가 기본적인 계약조건이나 근로자에 대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고용주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자가 계약상의 근로조건 및 환경을 속인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계약 또는 60조 항에 위반하는 일을 맡길 경우
- 고용주 및 그의 가족, 책임관리자가 근로자와 그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저지른 경우
- 고용주 및 책임관리자의 대우가 잔혹, 부당하거나 모욕적인 경우
- 근무지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요소를 고용주가 인지하고도 방치할 경우
- 고용주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자가 부당대우 및 계약 위배 등을 통해, 근로자가 계약파기 당사자처럼 보이게 할 경우

## 퇴직금

노동법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바탕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1년 미만 근무 시: 없음
-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시: 월 급여의  $1/2 \times$  근무연수
- 5년 이상 근무 시: 5년까지는 월 급여의  $1/2 \times 5$ 년, 6년째부터는 연 1개월 치 월급 지급

## 다. 사회보장제

### 건강보험

1969년 11월에 제정된 사회보험법(Social Insurance Law)은 직업병, 산업재해 및 연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보험청(일반사회보험조합)(GOSI: 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이 설립됐으며, 2000년 11월 13일 해당 사회보험법이 개정돼 보험료율 및 보상한도 등이 개정됐다. 2002년 8월에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제도(Co-operative Health Insurance Scheme)를 발표했다.

- 의료보험

2002년 보건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을 명시한 단계적 의료보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의 부담률은 보험회사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고용주의 최소 부담 금액은 6만 6,650달러이며 최대 부담 금액은 26만 6,560달러로 정해져 있다.

(노동법 제144조)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적용 대상: 사우디아라비아 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와 부양가족, 다만 정부기관에 고용된 자는 제외
- 적용단계
  - 1단계(2006년 6월~2007년 5월): 50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 2단계(2007년 6월~2008년 5월): 100~500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 3단계(2008년 6월~현재): 100인 미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및 가정부 등 사고 용인

사우디아라비아인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역시 2008년부터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인의 의료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9%씩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82%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의료보험 적용부문은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에 해당되나 에이즈 관련 치료, 장기이식,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정신치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보험법인 SANED(Unemployment Insurance Law)가 왕실 칙령에 의거 승인되며 2014년 도입되었다. 고용보험은 Private Sector에 근무하는 모든 사우디인에게는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며, Government Sector에 근무하는 사우디인에게는 사회보장보험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SANED에 따르면 실직한 개인은 실직일로부터 90일 내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나, 사우디인이고 사회보장보험에 등록되어 있으며 본인의 의지가 아닌 해고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 산재보험

사회보장보험(Social Insurance)은 산업재해 부문(Occupational Hazard Branch)과 연금 부문(Annuities Branch)으로 구분돼 있다. 산재보험 부문은 2002년 9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인과 외국인 고용자 모두 적용된다. 보험료율 및 적용 대상은 사회보험법 제18조에 명시돼 있다.

## 국민연금

연금 부문은 종전부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해오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인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에 대한 연금보험제도는 1987년도에 폐지됐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종전까지 13%(고용주 8%, 근로자 5% 부담)였으나, 고용주 부담비율은 2001년부터 9%로 인상 시행했고, 근로자 부담비율은 2001년 6%, 2002년 7.5%, 2003년 9%로 상향 조정을 시행해 현재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9%씩의 연금보험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고용주가 11%, 근로자가 9%, 총 20%를 납부하게 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산재 보험료만 2%를 납부하게 된다.

## 7. 세무

### 가. 조세제도

#### 법인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체계가 없으며 15%의 부가세만 존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세는 크게 두 개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Non-Saudi, Non-GCC Company(Foreign Company)와 사우디아라비아 내국 기업, GCC-Company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외국인 출자법인의 경우, 법인 소득세 20%를 내는데 이는 2004년 기존 30%에서 20%로 인하한 것이다. 외국인투자자의 세금납부 및 회수, 처리절차 등 소요시간이 짧고 절차가 간소한 편으로 세금과 관련한 투자 환경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세금도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중 내국인 출자기업 및 합작기업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지분에 해당하는 종교세와 외국인투자지분의 법인소득세를 각각 투자한 지분비율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내국 기업의 경우 법인세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종교세에 해당하는 연 2.5% 수준의 Zakat(자선용 세금)을 납부한다. 사우디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내국인 출자기업 및 합작기업의 경우 사우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종교 세와 외국인투자지분의 법인소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임시납세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 증명서가 있어야 비자발급, 외국인 고용, 계약 입찰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상 계약액의 10%인 계약액 최종 지급분 수령에는 세금완납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증명서는 사우디 국세청(ZATCA: 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이 납세신고서를 검토해 세금 정산이 완결돼야 발급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납세체계는 유한책임회사(Limited-Liability Company)나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에 유리하다. 이 형태의 회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어디에서나 지사 설립이 가능하고, 세금신고도 지사들이 속하는 한 법인이 통합해서 단일 신고만 하면 된다. 지사의 경우, 본사의 비용할당이나 관리비는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며, 납세신고가 필요한 지사의 비용들은 세무 당국의 검사를 받기도 한다.

#### 1) 법인세 과세 대상

- 거주자 자본 회사의 비사우디아라비아 지분
-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사우디아라비아 자연인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정 사업장(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외국 기업 지사 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
- 사우디아라비아 내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 수입이 있는 비거주자
- 천연가스 투자활동에 관련된 독립체(기업 등)
- 오일과 탄화수소 관련 독립체

#### 2) 사우디 거주 규정

- 사우디아라비아 내 영구적으로 거주할 거처를 가지고 있으며 과세연도 동안 적어도 30일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문 경우
- 과세연도 동안 적어도 183일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한 경우(하루 중 잠시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문 경우, 1일로 인정하나 두 지점 간 환승 시에는 불인정)

#### 3)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율

-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세법에 따른 모든 기업 납세자: 20%
- 원유(Oil), 탄화수소 생산에 참여한 납세자: 50~85%

과세는 이익의 유보 또는 배당과 관계없이 연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합작투자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인 투자자 또는 GCC 회원국 투자자는 고정자산에 투자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 ZAKAT 2.5%(고정)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외국 기업의 경우 수익(=매출-경비)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 4) 과세소득

일반적으로 과세는 기업의 총수입을 대상으로 하는데, 회사수입, 이익은 물론 사업과 관계있는 시설의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과 자본소득, 부수 이익 등 기업활동으로부터 산출되는 모든 종류의 이윤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피고용인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의 경우 수익은 완공기준이 아니라 공정진행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자산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신고해야 한다. 해외 소득은 해외 활동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활동과 같은 시기에 같은 법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려우나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인 외국 법인의 해외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 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공급계약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서비스(플랜트의 경우 설치 등)를 수반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공급계약에 사우디아라비아 내 서비스를 적시하고 그 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가액이 과세소득이며, 서비스의 가액이 확정돼 있지 않은 경우 각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각각 계약액의 10%가 서비스 가액으로 의제 적용된다. 공급계약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서비스를 수반하지 않으면 물품공급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비과세이다. 물품 공급 부분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서비스 부분을 별도의 계약으로 분리하면 물품 공급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로열티 지급은 전액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으로 간주해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로열티 지급 시에 로열티 지급 기업은 법인세를 원천 징수해 Zakat 소득세국(ZATCA)에 신고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 이외 소유물 처분이득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 5) 공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발생한 모든 영업비용 즉, 급여(ZATCA는 소득신고서 제출 시 자세한 지급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요금, 임차료, 감가상각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자, 외국 기술과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지불, 회사 간 수수료 등은 법인세 과세 공제 대상이다. 단,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이자는 15%의 의제이익에 대해 과세된다. 배당금 지급은 공제되지 않으며,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5% 원천 과세된다. 납부세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외지급을 막론하고 공제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한책임회사(limited-liability Company)가 외국에서 영업하면서 세금을 낸 경우 그 세금에 대해 과세 대상 공제를 신청할 수는 있다. 증빙이 없는 비용, 계약액의 5%를 넘는 대리인 수수료, 회사영업과 무관한 비용, 일반 적립금, 본사 관리비용 할당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 6) Zakat

Zakat는 이슬람법(Shariah)에서 정하는 종교세의 일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인 또는 GCC 국민이 소유한 회사, 사우디아라비아인이 참여한 합작회사에 과세된다. 통상 개인 순 자산 또는 기업 총자산의 2.5% 수준에서 부과되며, Zakat 납부대상에는 자본금, 순이익, 유보이익, 일반적립금(특정 부채와 무관하고 12개월 이상 유지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고정자산, 장기투자, 이연원가에 투자된 자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Zakat 납부 대상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익 중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 지분에 대해 2.5%의 Zakat가 적용된다. 산업분야(industrial)과 상업분야(commercial)에 종사하는 Zakat 세금 납부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적절한 회계기록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7) 면세

사우디아라비아 세금체계가 매우 단순해 면세 또는 세금 관련 인센티브는 매우 드물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왕의 칙령(Royal Decree)에 따른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면세는 거의 없다. 그러나 향후 주요 공단 원 거리 지역에 조성될 산업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는 법인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8)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 Fixed Buildings: 감가상각률 5%
- Industrial and agricultural movable buildings: 감가상각률 10%
- Factories, machines, engines, hardware and software(computer software) and equipment, including passenger cars, and cargo vehicles: 감가상각률 25%
- Expenses for geological surveying, drilling, exploration, and other preliminary work to exploit and develop natural resources and their fields: 감가상각률 20%
- All other tangible and intangible depreciable assets: 감가상각률 10%

감가상각공제는 납세자의 토지 이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유형 또는 무형)에만 허용된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과세연도를 초과하는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하며, 과세연도 이후 노후화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 9) 세금신고

세금신고가 필요한 납세 대상자는 규정된 양식에 맞게 정해진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용해 세금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해, 당해연도 말로부터 120일 이내로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비즈니스 활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세금신고도 끝쳐야 한다.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이상 납세 대상자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회계사에게 검증받고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이하 총수입의 1%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금 신고 지체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단, 전술한 벌금이 다음의 부과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세금신고 지체 벌금 구간은 아래와 같다.

- 초과일: 마감기한~30일 이하 / 미납된 세금의 5%
- 초과일: 30일 초과~90일 이하 / 미납된 세금의 10%
- 초과일: 90일 초과~365일 이하 / 미납된 세금의 20%
- 초과일: 365일 초과 / 미납된 세금의 25%

세금을 회피할 의도로 납세자 또는 공인회계사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을 시에는 세금차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 현재 납세자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 장부, 기록, 계정, 또는 문서를 제출
- 이익을 줄이거나 손실을 과장할 의도로 송장 및 문서를 변경
- 과세 대상 활동에 관해 보고하지 않는 경우
- 정부 부처가 확인하기 전 고의로 장부, 기록, 문서를 손상시키거나 숨기는 경우

## 10) 납세 기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력(Hegira)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과세 대상자는 세무당국에 서양력(Gregorian Calendar)에 납부한다는 의사를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슬람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서양력과 차이가 있으므로 납세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세신고는 회계연도 말 후 2.5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신청 시 잠정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잠정세금이 최종 정산세액에 10% 이상 미달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과세는 발생한 수익을 대상으로 하는 발생주의를 따른다. 더불어 원천징수 대상 세금과 선분납 세금을 포함해 납부일을 넘겼을 경우, 납세 마감일로부터 납세일까지를 산정해 연체 30일마다 납세금의 1% 벌금이 부과된다. ZATCA는 세금연체에 초과일을 측정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세대상 수입을 누락하면 25%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 11) 자본세(capital tax)

자본세는 없으며, Zakat가 자본세 성격이다.

## 12) 자본이익의 처리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자산처분에 따른 이익은 총소득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외에서 처분한 자산에 따른 이익은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합작회사의 지분을 매각한 외국 법인은 지분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과세 대상이 된다.

- Zakat/소득세국의 계산식: 자본이익 = 합작회사의 3년간 평균이익/매출액×납입자본금

추가로 지분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 중 높은 것을 근거로 정산한다. 면세기간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면세는 합작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 해당 이익에 적용되는 것이지 본사가 획득한 지분매각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배당과세: 외국인 주주의 배당금은 원천과세하지 않으나 배당금의 해외 송금 시 5%의 원천징수하며, 외국인 주주 지분 순이익에 대한 20% 세금은 지급 배당금에서 공제된다.

- 이자에 대한 세금: 없음

### 13) 로열티와 수수료에 대한 세금

외국 기업(보험사 포함)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별도로 기장하지 않고 ZATCA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소득의 15%라는 정상 법인세율로 의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컨설턴트 수수료나 경영서비스 수수료는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며, 외국기업에 하청을 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은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외국기업은 원천 징수되는 세금을 발주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거나, 적어도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로 세무당국에 납부됐다는 증빙을 요구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상표 등에 대한 로열티를 비롯해 라이선스비, 렌트비용 등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자본으로 거둬들인 이익을 수입으로 본다. 그래서 ZATCA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이 외국주주나 제3자에게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전액을 과세대상인 이익의 배당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위험을 피하려면 계약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되 '면허', '로열티', '특허', '상표권' 등의 용어를 피해야 할 것이다.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용역 수수료는 15%의 이익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5개월 이내에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 14) 이중과세방지협정

사우디아라비아는 50개국 이상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고, 각 국가별 세부내역은 관세청(ZATCA)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한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은 2007년 3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순방 시 양자 간 체결됐다.

### 15) 기업 간 비용

기술, 엔지니어링, 연구 등의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고, 고정자산 가치의 증가나 재고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으며, 현지에서 과세대상 이익을 위해 쓰인 것이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계약과 관련해 일하는 기술인력의 급여, 여비 등 직접비용에 국한되며, 일반 간접비용의 지급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16) 지역경영회사

외국공급자의 물품을 공급하는 현지 공급자를 지원하는 기술서비스 또는 과학서비스 사무소처럼 상업활동 면허가 없는 지역사무소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 사무소의 국외 소득이나 국외 본사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매출세, 판매세, 종량세, 판매세, 소비세, 인지세는 없으며, 기타 조세로 일부 법적 서류에 명목적인 세금이 붙는 경우가 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사회보장을 위한 회사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개인소득세

사우디아라비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소득세가 없지만,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인과 GCC 회원 국민은 재산 및 소득의 2.5% Zakat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개인소득도 1975년 이래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영업을 통해 얻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Saudi Sourced Income 소득의 경우는 20%의 비례세(Flat tax)의 영향을 받는다. 회사 내 피고용인을 위한 사회보장 연금을 위해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 과세대상 소득

사우디아라비아인은 자본(판매용이 아닌 자산은 제외)과 자본소득, 가축 작물, 사업, 산업,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이익, 상업활동과 금융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자산과 금전적 재산수입, 배당에 대해 Zakat를 납부해야 한다. 제조업이나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Zakat 납부자는 적절한 회계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외에는 인정과세 대상이다.

#### ○ 개인 소득세율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나 외국인 자영업자는 소득세법에 적용돼 소득세를 납부한다.

- 개인소득: 0~16,000사우디 리알 / 개인소득세: 소득 \* 5%
- 개인소득: 16,001~36,000사우디 리알 / 개인소득세: 800 + (소득-16,000)\*10%
- 개인소득: 36,001~66,000사우디 리알 / 개인소득세: 2,800 + (소득-36,000)\*20%
- 개인소득: 66,001사우디 리알 이상 / 개인소득세: 8,800 + (소득-66,000)\*30%

## 부가가치세

사우디는 2018년 1월 1일부로 GCC 국가 중 최초로 부가세 5%를 도입했다.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비석유 부문의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사우디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이다.

2018년 세수는 1660억 리알로 2017년 대비 89.4% 증가하였다.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세금(부가가치세, 사치세, 외국인 노동자 부담금 포함)은 1130억 리알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87.9%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부가가치세는 456억 리알을 기록하며, 정부의 예산 예상치를 101.5% 초과하였다.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도 줄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가가치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석유 수입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가 3배 인상되었으며, 이는 비석유 수입 증대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이로 인해 비석유 관련 세수는 2950억 리알로 전년 대비 30.2% 증가하였고,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세금은 2320억 리알로 41.8%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입 증가는 2021년 GDP 대비 재정 적자를 더욱 축소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2022년에는 오랜 기간 지속된 재정 적자를 극복하며 GDP의 3.2% 흑자를 기록하였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결과로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으나 사우디 정부예산은 석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 높다. 고유가를 기록한 2022년에는 재정 흑자를 달성했으나, 이후 정부는 2024년과 2025년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높은 부가가치세율이 국민 생활여건에 부담이 되면서도 인하가 없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5월, 왕세자가 세율을 5~10% 수준으로 점진적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2024년 기준 정부에서는 별도 인하 계획이 없음을 밝혔고,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현 세율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 특별소비세

2017년 6월 10일부로 담배(100%), 전자담배(100%), 탄산음료(50%), 에너지 드링크(100%)에 대해 개별소비세(selective tax)를 부과하고 있다.

상기 특별소비세에 더하여 2019년 5월부터 전자담배 액상(100%), 설탕음료(50%, Sweetened Drinks)에도 추가 개별소비세(selective tax)를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Real Estate Transaction Tax: RETT): RETT는 부동산 처분에 따른 전체 가격의 5%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토지와 건물,

또는 건설 중인 구조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일부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 8.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별도의 실용신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재산 관련 기관으로 사우디의 지식재산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SAIP)은 상무부 산하에 위치한다.

사우디에서는 이슬람 율법과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상업적 이용이 이슬람법에 반하는 디자인도 등록 받을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PCT 조약의 회원국이므로 사우디를 지정국으로 하여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내단계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만 지역 협력체(GCC) 가맹국으로서, GCC 특허법에 의해 설치된 GCC 특허청을 통해 특허출원이 가능하며 특허가 등록되면 6개 가맹국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발행한다. 등록 결정된 특허가 공고되면,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우디의 디자인은 방식요건을 만족하면 등록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등록되며, 상품 분류 중 알코올음료, 돼지고기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로서 이슬람 샤리아 규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법, 사회상규에 반하는 저작물은 등록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문학과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과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에 가입했으며,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2013년 5월 가입하여, 같은 해 8월부터 발효되었다.

사우디는 2019년부터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를 파견하고, 사우디 특허심사관을 초청하여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차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 특허청과도 협업을 진행하였다. 관련하여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 사우디 개인/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상담 등 3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양 기관 간 화상회담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추진사업의 후속조치로 2022년 1월 17일, 한-사우디 양국간 지식재산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중점 추진할 5개 분야 35개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11명의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파견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한국 특허청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 9. 청산 및 철수

### 가. 청산 및 철수

#### 안내문구

청산 및 철수는 사우디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까다로우며 어렵게 느껴지는 관문 중 하나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최초 진출 과정에서의 최소자본금 등의 규정만큼 청산의 어려움이 진출여부를 고민케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청산 절차는 사우디 법령에 근거하여 아주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청산의 원인이 외부요인이 아닌 내부요인이더라도 정부 검토와 승인, 회계정보 작성 등 세밀한 사항을 요구한다. 일부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수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향후 사우디로의 재진출, 재입국 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청산 당시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 관련 법 및 절차

##### 1) 개요

사우디 내 기업입법은 1965년 제정된 회사법에 통제를 받는다. 지불 불능, 파산, 채권자 권리 등의 사안은 주로 강제청산 명령권리가 있는 영리회사 분쟁조정위원회와 고충처리 위원회 및 1996년 제정된 파산방지합의법을 따른다. 임의 청산의 경우, 사법기관의 관리감독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파트너가 사업을 해산해야 한다. 청산은 기업을 마무리 짓고 자산을 재분배하는 과정이다. 매각자산은 ① 기업 청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지불 ② 채무 상환 ③ 자본금 중 파트너의 지분 배상 ④ 잔존 흑자의 경우, 기업운영방침에 따라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데 사용돼야 한다.

법인 철수 및 청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기업이 목적을 달성했을 수도 있고 파트너와의 합작사업이 완료됐을 수도 있으며, 파트너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또한, 세금 및 경영관리 목적으로 기업을 재편성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합병이 임박해서일 수도 있으며, 중요 파트너의 은퇴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철수 및 청산 시 회사 손실이 자본의 50%에 도달할 경우, 경영자는 의무적으로 회사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해 파트너들과 논의해야 한다. 정관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 자본의 최소 75%를 보유한 파트너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들에게 기업 해체를 요청할 권리가 주어진다.

##### 2)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법인 철수는 ① 청산 원인 결정 ② 파트너 결의안 통과 ③ 청산인 선정 ④ 정부 관련 절차 ⑤ 자산 및 부채 조사 ⑥ 회계연도 말 회계 관리 ⑦ 자산 분배 순위 ⑧ 최종 보고서 작성 ⑨ SAGIA 승인의 절차를 걸쳐서 이루어진다.

##### (1) 청산 원인 결정

철수 및 청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어야 한다.

- 명시된 사업 기간 만료
- 회사 설립 목적 달성 또는 달성 가능성 희박
- 파트너 혹은 주주에게 지분 이전
- 회사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손실
- 정관상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 해체에 관한 파트너의 승인
- 기업 합병
- 만약 동업자가 중대한 사유로 철수 및 청산을 요청했을 경우, 기업분쟁위원회에서 결정

##### (2) 파트너 결의안 통과

파트너들은 총회 또는 서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 기업 운영 중단과 기업체 청산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인 이상의 청산인 임명 및 명시(단, 결의안 내용에 따라 파트너들이 청산인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음)
- 청산인의 권한 명시

결의안은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 하며, 공식적으로 사우디 신문인 Um al-Qura에 게재되어야 한다.

### (3) 청산인 선정

파트너가 청산인을 선정하면, 청산인에게 자사 및 부채의 회계감사, 통제, 부채상환 및 흑자배분 등의 권한이 위임된다. 만약 청산인이 1인 이상일 경우, 그들은 범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가진다.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의 권한을 갖게 되며, 기업은 권한 내에서 청산인의 처리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념해야 한다. 청산인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명백한 법적 책임을 가진다.

- 현존계약 의무: 현재 유효한 합의 및 제안사항을 마무리해야 한다.
- 건물 임대차 및 사무실 용품
- 고용 관련 문제: 사우디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노동계약과 관련해 고용인 친화적이다.

따라서 노동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지불해야 하므로 회사에 큰 부담이 된다. 고용 관련 문제 해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스폰서 이전 및 노동비자 취소를 포함하므로, 절차상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4) 정부 관련 절차

기업은 다음의 행동지침을 따라야 한다.

- 청산인을 대표해 행동 위임장 발행
- 회사 레터를 이용해 서신을 작성한 후, Zakat 및 소득세 관련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상공회의소로부터 감정
- 스폰서 이전 및 비자말소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와의 계약관계 합의 후, 외교부로부터 모든 종사자 비자 취소가 명시된 인쇄물 혹은 레터를 취득
  - 외교부로부터 얻은 인쇄물 혹은 레터를 이용해, 기업 노동 사무소 정보 무효화
  - 외국인투자자에게 허가증을 부여하는 SAGIA에 기업활동 중지 및 허가증 삭제 요청 파일을 제출 (전액 사우디 출자 기업의 경우 불필요)
- 사회보험 취소
- 지방자치 허가증 취소
- 상공부 회원 자격 취소
- 상업등기 취소

### (5) 자산 및 부채 조사

사전 약속된 3달 이내에, 청산인은 기업 회계감사원과 협동해 기업의 전 자산 및 부채를 상세히 조사해야 하며, 경영진은 모든 관련 사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6) 회계연도 말 회계관리

회계연도 말에 청산인과 회계감사원은 청산 절차 보고서 및 기업 회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상기 서류는 기업 총회에서 파트너에게 제공되거나, 기업 내규에 따라 처리된다.

## (7) 자산분배 순위

기업 자산분배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 청산과 관련된 지출 및 수수료
- 채무상환
- 파트너 납입자본지급
- 잔존 흑자는 기업내규에 따라 파트너에게 지급되며, 내규가 없을 시 비례 지급한다.

## (8) 최종 보고서 작성

청산 완료 후, 파트너는 최종 보고서를 승인하고 청산인은 기업 내규 요구조건 및 청산인 행동 관련 최초 결의안에 따라 청산 완료를 공표한다.

## (9) 결의안 발행

청산 완료를 공표하고 파트너의 인준은 Um al-Qura에 게재돼야 한다. 인준은 공증될 필요 없다.

## (10) MISA 승인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우디 투자부(MISA)에 신고 후 GM(General Manager)의 최종 EXIT 비자를 발급받은 후 사우디에서 출국이 가능하다.

## 3)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기업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은 2015년에 개정되고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된 회사법 10장에 명시돼 있다.

### ○ 203조:

- 청산 결정 즉시 기업은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기업 관련 문제를 마무리하고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 지위는 유지된다.
- 경영진 또는 이사회는 권한은 기업청산과 함께 소멸된다. 그러나 청산인이 정해질 때까지, 이들은 기업운동을 지속해야 한다.
- 주주총회는 청산 절차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그들의 역할은 청산인과 충돌하지 않는 한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제한될 것이다.
- 청산 기간 동안 주주는 규정이나 회사 정관 또는 세칙에 의해 설정된 회사의 서류를 액세스(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 ○ 204조:

- 청산하는 방법이 세칙이나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한, 청산은 규정의 조항에 따라 수행돼야 한다.

### ○ 205조:

- 청산은 1인 또는 1인 이상의 청산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주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사법적 청산은 관할 법원이 내린 판결에 의한다. 자발적인 청산은 주주 또는 일반 협의회의 결의로 이루어진다. 주주 간에 의견이 제3 조항에 항목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법 당국은 이에 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 사법 또는 자발적인 여부와 관계없이 청산 결정은 청산인을 임명하고 그의 권한과 수수료, 그의 권한 제한 및 청산에 필요한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청산인은 세칙 또는 회사 정관의 개정을 위해 설정된 발표 절차에 따라 청산 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
- 자발적 청산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법 명령 없이는 연장될 수 없다.

○ 206조:

- 만약 청산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청산인 임명단체에서 따로 활동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공동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 및 업무상 실수로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회사, 혹은 파트너에게 보상해야 하며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 207조:

- 청산인 임명 문서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청산인은 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 동산 및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사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다.

- 하지만 만약 청산인 임명 단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청산인은 한 번에 모든 회사자산을 매각할 수는 없다.

- 더불어 청산인은 이전 청산작업의 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청산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 회사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청산인이 수행한 모든 행위에 구속된다.

- 청산인의 권한은 규정의 조항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청산 기간 만료 시에 만료된다.

○ 208조:

- 청산인은 지불해야 하는 회사부채를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부채상환의 지연이나 분쟁 발생의 경우를 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 청산으로 인한 부채는 타 부채보다 상환 우선권을 가진다.

- 위에 서술된 바와 같이, 채무변제 후 청산인은 반드시 구성원들에게 자본지분을 반환해야 하며 회사 내규 및 정관에 따라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 만약 정관에 이와 관련된 항목이 없을 시, 수익은 지분지분 비율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 회사 순 자산이 구성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 손실분배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손실분이 나뉜다.

○ 209조:

- 취임 3개월 이내에 청산인은 기업 회계감사원과 함께 회사자산 및 부채를 조사해야 한다.

- 경영진 또는 임원은 청산인에게 회사 회계장부, 기록, 문서 및 청산인이 요구하는 상세 자료 등을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매 회계연도 말에 청산인은 차 조표, 손익계산서 및 청산 과정에 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회사정관 및 규약에 따라 승인을 위해 총회 또는 구성원에 제출된다.

- 청산 완료 후, 청산인은 그들의 활동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관 또는 부속정관에 명시된 방법으로 청산 완료를 통지해야 한다.

○ 210조:

- 사기와 위조를 제외하고는 209조 규정에 따라, 청산완료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부터는 기업운영 구성원 및 경영인, 임원, 회계감사관에 한 소송이 금지된다. 또는 청산인의 퇴직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는 청산에 관해 청산인에 한 소송은 금지된다.

#### 4) 기업 형태별 청산절차

#####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 특별주주총회 개최

○ 청산 결정에 관한 증빙서류(Testimonial)를 관보(Official Gazette)에 기재

○ 최종 청산일까지의 ZATCA 지불

○ 피고용인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노동국의 승인 획득

○ 기업부채가 없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최종 회계장부 작성

- 청산 내용을 관보(Official Gazette)에 기재
- 상업등기 철회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파트너의 의견이 첨부된 기업청산요청 서류 제출
- 정확한 청산날짜가 기재돼 있으며, 칙허 회계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최신 재무 보고서 제출
- 청산인 임명과 청산 여부에 관해 발표
- 파트너와 칙허 회계사로부터 승인받은 청산에 관한 최종 회계장부 제출
- 상업등기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ZATCA(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로부터의 납부증명 제출
- 피고용인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노동국의 승인 획득
- 청산 종료 발표

#### 합자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파트너의 의견 및 서명이 첨부된 기업청산요청 서류 제출
- 정확한 청산 날짜가 기재돼 있으며, 칙허 회계사로부터 승인받은 최신 재무보고서 제출
- 청산인 임명과 청산 여부에 관해 발표
- 파트너와 칙허 회계사로부터 승인받은 청산에 관한 최종 회계장부 제출
- 상업등기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ZATCA(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로부터의 납부증명 제출
- 피고용인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노동국의 승인 획득
- 청산종료 발표

## IV. 참고정보

### 1. 시장특성

#### 가. 시장특성

사우디는 기존에 가격이 구매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나 최근 국가 개혁을 토대로 시장 특성 역시 변화하고 있다. 가격은 여전히 구매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품질과 다양성이 주요 요인으로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구매, 거래, 배달 등이 발달했고 소비자가 더 이상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마주하던 제품 외에도 더 다양한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소비 성향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더불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국가 개혁 정책과 함께 문화적으로 사회가 개방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데, 하이퍼마켓에서 수입품을 관리하는 매대가 더욱 늘어났고, 한국제품 역시 드라마, K-POP 등의 인기를 타고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입점 제품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저렴한 가격의 대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양한 옵션을 검색하고 직접 가서 눈으로, 손으로 확인한 후에 만족한다면 비용지출이 크더라도 이를 구매하고 있다.

또한 리야드시즌, 젯다시즌, 축구경기, 골프경기,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및 관광 기회가 제공되면서 관련 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기념품의 증가로부터 해당 축제에서 소비로 이어지면서 점차 국민들이 활용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 나. 소비자 특성

##### 소비인구

2024년 5월 기준 IMF의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 인구는 33,475,000명이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층이 인구 전체의 약 50%에 달하는 젊은 국가로 성장 및 소비 잠재력이 인근국에 비해 매우 높다. 전체 인구 중 약 60%가 사우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약 40%는 제3국 출신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출신이다.

사우디 통계청 기준 2023년 4분기 실업률은 4.4%를 기록하였으며 팬데믹 이후 점진적 경기 회복 추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사우디인에 대해서만 통계 시 실업률은 6.8%이며, 이러한 자국민의 실업률이 평균 대비 높은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원 : IMF, 사우디 통계청(GASTAT)>

##### 소비 성향

###### 1) 가처분소득 증가 및 높은 구매력

사우디아라비아 소비자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따라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1인당 GDP는 33,040달러로 나타났으며 개인소득세, 소비세 등 세금제도가 없어 개인소비, 개인저축 등 가처분소득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2) 고가 VS 저가시장

사우디아라비아는 고가와 저가시장으로 양분돼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류층 이상의 사우디인은 고가,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반면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제3국 노동자 저소득층은 저가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 예로, 리야드 중심지인 Olaya지역에는 롤렉스, 에르메스, 샤넬 등 초고급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쇼핑몰이 있는데 주차를 하기 힘들 정도로 상류

층의 방문이 잦은 반면에, 리야드 중심지에서 30~40분 거리에 위치한 제3국민 밀집지역인 Batha 지역은 옛날 전통시장이나 오래된 건물 등으로 대표될 만큼 지역이 대비된다.

### 3) 제1 구매결정 요소 '가격'

사우디 바이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결정 요소는 가격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세계 주요 브랜드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비슷한 스펙의 제품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바이어 역시 구매 결정 요소로 가격을 우선시해 가격 경쟁력 강화가 시장진출 및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제조업 비중이 낮아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며, 고객 만족, A/S 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 성격이 강하다. 다만 최근 들어 저품질 중국 제품에 실망한 소비자 및 바이어들 사이에서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 4) 쇼핑물 중심의 소비패턴

이슬람 율법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영화관, 극장, 음악 등의 여가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다. 2018년에는 35년 만에 상업영화관이 재개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쇼핑물이 소비패턴의 중심에 있다. 더욱이 더운 기후로 외부 활동을 꺼리며, 가족 단위의 쇼핑물 방문이 하나의 레저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리야드, 젓다, 담맘 등 주요 도시에는 대규모 주요 쇼핑물이 다수 있으며, 쇼핑물은 남성 및 여성 의류, 화장품, 카페, 식당, 유아용 놀이 테마파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쇼핑물에서 발전하여 Zone 형태의 작은 단지형 복합쇼핑물이 많아지고 있다. 해당 단지 내에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과 레스토랑, 카페 등을 결합하여 가족 단위, 젊은층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 5) 여성 소비 증가

사우디는 종교적 이유로 여성의 사회 참여 제약이 많다. 그러나 인터넷, 위성TV를 통한 외국 문화의 유입과 해외유학 증가 등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우디 내의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도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여성 소비 증가가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여성 관련 제품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미용 기기 등 관련 제품이 유망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배달이 활성화되면서 여성의 소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6) 온라인 쇼핑 및 배달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을 경험한 사우디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입을 비롯한 신선식품 익일배송 등 한국과 유사한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게 되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구매는 증가하여, 주요 대형마트들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제품 및 신선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 및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소비자의 지갑을 공략하고 있다.

## 한국 상품 이미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K-POP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2022년 9월 30일에서 10월 1일 CJ ENM에서 KCON을 개최하며 10개 이상의 가수가 사우디를 방문하였고 총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그리고 2023년 1월 20일에는 블랙핑크가 월드투어 일환으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2만 5000여 명이 모여 성황리에 마치는 등 한국 문화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이후에도 2023년 제2회 KCON을 비롯, Gamers8 행사에서 한국관이 운영되는 등 음악과 드라마, 음식을 주축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리야드 내 한국식당도 확대 추세이다. 리야드에서 오랜 기간 비원(Korean Palace) 1곳이 한식당으로 운영되었는데, 한국식품에 대한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 나무(Namu)라는 한식당이 리야드에 신규 개설되었다. 추가로 2024년에 한국식당이 개설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사우디 내 한식 인프라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 2. 비즈니스 에티켓

### 가. 상거래 유의사항

#### 상거래 시 유의사항

##### 1) 거래 진행 및 접촉

사우디아라비아는 관료적 문화가 강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단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아주 단순한 의사 결정이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협상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며, 서둘러 결과를 도출하려는 비즈니스 진행 방식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 성사를 위해 결정을 재촉하거나 압박할 경우, 연락을 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결정이 지연 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상거래 초반에는 속도가 더딜지라도, 사우디 측의 거래 진행이 결정되면 굉장히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사우디 측에 업무진행 필요성을 언급하되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또한, 비즈니스 관계 이전에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거래 전 개인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바이어들이 초반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다가 연락이 닿지 않아 무역관으로 문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 역시 사우디 바이어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단계를 상당히 신중이 가지기 때문이다. 단, 결정이 이뤄지면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신속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바이어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사전 서류 등 내부적인 수출준비를 재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

##### 2) 대면상담의 중요성

서신이나 이메일을 통한 인콰이어리 수주 및 상담이 가능하지만, 가격 결정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면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는 대면을 통한 협상과 설득이 몸에 배어 있는 현지 비즈니스 문화 때문이다. 대면상담 시에는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사후관리 정책, A/S, 훈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품 소개 후에는 가격 상담을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귀국 후 이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우디 바이어는 가격에 매우 민감하고 협상에 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우디 기업들은 사우디인 사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층은 아랍인, 실무자는 인도, 파키스탄인 등 제3국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종별 관심사나 조그만 선물 등을 준비하는 것도 호감을 사는 방법이다. 사우디인과의 대면상담 시 Ice Breaking 주제로 스포츠나, 이슬람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도 좋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상담도 확대 되었는데, 현지 바이어들도 많이 익숙해졌으며 상담을 시작할 때나 끝맺을 때 이슬람어 인사말이나 감사인사를 전함으로써 바이어의 호감을 살 수 있다.

##### 3) 시간 문화 및 약속

비즈니스 미팅 시 사전 약속은 필수적이며 3주에서 한 달 전에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오후 시간보다는 오전에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1시간 이상 늦거나, 약속 자체를 잊는 경우도 있다. 전화, 핸드폰, 문자, 이메일 등에도 답을 하지 않거나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팅 일정을 정한 이후에도 실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상대가 약속을 어긴다고 해도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다. 또한, 사우디는 이슬람 교리에 따른 삶의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하루에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는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고,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업무를 중단하고 기도를 한다. 공식 기도시간은 30분이지만 보통 20분 내외로 기도를 수행한다. 미팅 시간은 기도시간을 피해서 잡는 것이 좋다. 기도시간과 미팅시간이 겹칠 경우 기도를 위해 중간에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높다. 일출, 일몰 등 해가 떠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기도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기도시간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큰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사전에 기도시간을 숙지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우디는 한국과 달리 금요일, 토요일이 주말이다. 회사 방문 등의 약속은 주말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4) 제1 구매요소 '가격'

사우디 바이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결정 요소는 가격이다. 사우디는 완제품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 주요 브랜드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비슷한 스펙의 제품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바이어 역시 가격을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 요소로 생각한다. 제조

업 비중이 낮아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며, 고객 만족, A/S 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 성격이 강하다. 다만 최근에는 중국산 저가제품에 실망한 소비자 및 바이어들 사이에서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면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 5) 현지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

일반 소매품의 경우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이나 하지 기간에 소비량이 급증한다. 라마단은 우리나라의 명절과 유사해 전자제품, 가구 등을 교체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활동이 왕성한 시기이다. 이에 수입업자들은 명절 대목에 맞춰 통상 3~4개월 전부터 수입을 위한 거래를 개시한다. 이에 해당 시점에 맞춰서 수입상과 접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라마단과 하지 기간에는 단축근무와 성지 순례 휴가 등으로 현지 바이어와 연락이 극히 어려우므로 모든 거래는 반드시 해당 기간 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필수이다.

#### 6) 각 도시의 시장특성을 파악하고 마케팅 개시

사우디는 리야드, 카심, 타북 등 중북부지역 시장(전체 시장의 30%), 제다, 메카, 메디나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시장(20%), 담맘, 주베일 등 동부지역 시장(15%)으로 구분된다. 각 도시는 거리상으로도 400~1,000km가량 떨어져 있다. 도시별로 산업 발달의 차이가 있어 사우디 시장진출 전 어떤 도시로 진출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 리야드를 포함한 중북부지역의 경우 약 1,000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행정수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품목의 수요가 있다. 제2도시로 불리는 서부 제다의 경우 소매제품과 자동차 관련 제품 수요가 높다. 동부 담맘의 경우는 유전 및 석유화학 플랜트가 집중된 곳으로 프로젝트 기자재 등 건설 관련 시장이 크다. 만약 담요 등 순례자를 대상으로 한 품목이라면 서부 제다 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하고, 기계 플랜트 관련 제품은 동부 담맘을 중심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 7) 에이전트 계약 유의사항

사우디는 자국시장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의 국내 비즈니스 활동 및 공공부문 입찰 참가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현지의 대규모 마케팅이 필요하거나 국내 부문 입찰참가가 필요한 경우는 현지 에이전트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에이전트 선별은 단순히 기업규모 등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향후 전담할 담당자의 적극성, 마케팅 역량, 에이전트의 현지 시장 평판 등이 중요한 검토 요소이다. 기존에 한국 기업의 에이전트 경험이 있는 현지 기업이라면 해당 한국 기업을 접촉해 현지 기업의 적극성 및 현지 네트워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발주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거래 초기부터 독점 에이전트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래 경험 없이 독점권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하며, 장기간 거래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면 변경이 매우 어려우며, 에이전트 교체를 원할 경우 이전 에이전트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독점에이전트 계약은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일부 악덕 에이전트의 경우 계약 불이행 등을 사유로 에이전트 교체를 요청할 경우 현지 비즈니스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계약서상 에이전트 해지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한편 품목에 따라 다수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브랜드 별로 별도의 에이전트를 발굴, 계약을 추진해 시장진출을 꾀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8) 결제조건 검토는 신중히

사우디는 대외무역, 외환거래 등이 자유화되어있고, 은행 신용도도 높아 신용장 거래가 원활하다. 현지 바이어는 통상적으로 최초 거래 시에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해 일람출급신용장을, 이후에는 물량에 따라 송금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거래금액이 클 경우에는 기한부신용장을 개설하기도 하나, 간혹 기한부 분납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길 희망하기도 한다(예: 6개월간 매달 3,000달러씩 송금). 한편, 현지 수입 관세를 낮추려고 일부러 언더밸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는 관세청 등 수출입 관련 기관에 적발 시 수출입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은 다양한 결제조건을 수용할 수도 있지만, 은행수수료가 부담되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일람출급신용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도가 쌓이면 다양한 결제조건을 수용해 거래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안전한 일람불신용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은행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용장 개설 시 담보를 철저히 확보하기 때문이다. 신용장 문구는 처음부터 꼼꼼히 잘 살피고 관련 서류를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랍계 은행들의 신용장은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문구 하나 수정 시 70달러가량의 하자 수수료를 청구하는 은행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9) 인내심을 통한 거래

사우디는 우리나라와 달리 느긋하고 여유있는 업무 처리가 익숙한 나라이다. 금요일, 토요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업무연락이 가능한 기간은 일주일에 4일(월-목)에 불과하다. 라마단 기간(1달)에는 공공분야 10~2시, 민간분야 9~3시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곳이 많고, 라마단 종료 축제 공휴일(Eid Al-Fitr)에는 2주~1달간 휴가를 떠난다. 현지 공공기관 발주처의 경우 벤더등록에만 2년~3년이 걸리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인내심이 필수이다.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거래 성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낙담하거나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번 만나고 성과가 없다고 해서 거래를 중단하기보다는 바이어들 꾸준히 접촉하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 바이어들이 수요가 생길 경우 단 몇일 만에 거래가 추진되는 사례도 많다. 다만, 바이어가 압박당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Urgent, Reminder 등의 단어를 써가며 자주 연락하는 것은 사우디 비즈니스 문화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경우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바이어가 자신의 존재를 잊을 때쯤 재차 접촉, 신제품을 소개하는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메일, PDF 카탈로그 외에도 Fax를 통한 레터, 카탈로그 우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사를 뜻하는 말이 있는데 IBM이라고 한다. 'I'는 인살라(Inch'allah, 신의 뜻이라면), 'B'는 부크라(Bukra, 내일), 'M'은 말리쉬(Maialish, 괜찮아)를 말한다.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말인데, 성사될 것 같은 일도, 안될 것 같은 일에도 조급하기보다 여유로운 아랍인들의 사고를 가리키는 용어로 굳어졌다. 척박한 삶을 살아가며 미래가 불확실 삶이 만들어 낸 지혜이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IBM을 긍정적인 인사로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 10) '인살라' 알라의 뜻

사우디를 비롯한 무슬림들은 '인살라(직역: 알라(신)의 뜻대로)'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인살라'는 영어의 if를 뜻하는 '인( )'과 원하다라는 뜻의 '사( )', 전지전능한 하느님을 뜻하는 '알라( )'로 구성된 표현이며 직역하면 '신이 원하신다면'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일은 알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와 관련된 일은 인간이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랍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언급할 때 이 표현을 관습적으로 사용한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상대 아랍인이 '인살라'를 말했을 경우에는 이는 의미 그대로 해당하는 업무가 '알라(신)가 주관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즉,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한 번 지켜보자, 고민해보겠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인살라'를 듣고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Yes or No와 같은 확답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자신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아랍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약속 이행을 의심하는 태도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장 좋은 요구 방법은 '인살라' 문화를 존중하면서 본인이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명확하게 언급한 후 시간 준수를 부탁하는 것이다.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자 독실한 무슬림이니 약속을 꼭 준수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고 공손하게 의사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약속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 11) 비즈니스와 개인적 인간관계는 별도

아랍상인, 특히 사우디 바이어는 한국인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비즈니스에는 매우 냉정하다. 일상 대화 시 Brother(형제) 등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비즈니스 진행 시에는 작은 실수도 이해하지 않으려 하며, 소액의 경우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나 기타 제반 비용 상승 이유를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더라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즈니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따라서 사우디 바이어와의 거래 시에는 거래 기간이나 상호 간의 신뢰와 관계없이 매 수출 건마다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12) 프로젝트 수주 시기 거래 주의

프로젝트 수주 커미션을 미끼로 한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현지 실정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왕족, 정보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정부 발주처와의 네트워크를 과시하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커미션 지급을 요구한다면 우선 의심해보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왕족, 정보기관과 관련된 인물은 일반 기업인이 쉽게 만날 수도 없으며, 국가 초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면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사기 업체는 기밀유지가 필수이며,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프로젝트 수주나 계약 건은 무산될 것이라며 비밀 유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기업체는 현지 입찰 시 관련 문서가 아랍어로 작성돼 있어 입찰내용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프로젝트 계획 및 발주서 및 직인, 서명 등이 위조된 아랍어 서류 등을 송부해 사기를 시도하기도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13) 현지 무역회사, 대기업 등 사우디 기업 사칭 주의

현지 주요 기업의 CEO 및 관계자를 사칭해 사기 대상기업의 제품에 관심이 있으며, 정부 납품을 추진하고 싶거나, 합작 투자를 원하며 접근하는 수법도 최근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메일로 거래 관련 연락을 진행하면서 정부납품을 위해서는 등록비용이 소요되거나 투자를 위한 펀드 계좌 개설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두바이 등 제3국으로 송금하라고 요청한다. 사기업체는 현지의 유력 회사를 사칭,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제공하는데 홈페이지는 유력회사 홈페이지가 맞으나 이메일의 경우 알파벳 1개를 추가한 도메인을 보내 혼동을 주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14) 아랍어 사용은 가점 요인

자신의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를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그 나라 사람 모두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대신 팔아줄 에이전트나 현지 기업인에게 현지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아랍어가 어려운 언어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중에는 영어로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인사말 등 정도는 아랍어로 익혀둘 필요가 있으며, 아랍어를 구사하는 한국 인력이 많지 않아 아랍어를 하는 한국인은 현지에서 특별하게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다.

## 나. 상담 유의사항

###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 1) 사우디 문화의 바탕인 이슬람 율법과 코란

사우디는 이슬람교의 2개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이슬람 종주국으로서 이슬람이 국교인 정교일치 국가다. 따라서 사우디에서는 이슬람 사회의 모든 규범의 근원인 코란을 바탕으로 한 샤리아 법과 이슬람의 율법이 현실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무슬림의 다섯 가지 의무인 신앙고백(샤하다), 하루에 5번 예배(살라), 희사(자카트), 단식(사움), 성지순례(하지)를 포함한 이슬람의 계율을 사회 규범으로 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엄격히 지키고 있다. 사우디 전역은 간음과 매춘행위, 음란물 유포, 음주, 돼지고기 판매, 고리대금 등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무슬림 외의 타 종교 포교 관련 행위와 이슬람 신앙생활을 해치는 가무나 요란한 음악 등도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간통죄는 처형(미혼자는 태형 후 추방), 음주죄는 태형으로 엄하게 다스리며 이는 외국인에게도 해당한다. 아울러 입국 또는 이삿짐 송부 시 술, 돼지고기, 음란물 반입도 철저히 통제한다. 따라서 사우디를 방문하거나 거래를 하려면 종교적 특성에서 비롯된 사우디인들의 고유한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 종교

사우디는 이슬람 외에 타 종교 전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타 종교 전파 및 언급을 삼가야 한다. 특히 이슬람교를 비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교역 경험을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타종교를 존중하는 편이므로,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상담이나 대화 전 이슬람 문화가 익숙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자세이다.

#### 3) 라마단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9번째 달로써, 한 달 동안 무슬림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 음료, 흡연 등이 금지되며, 음악을 듣는 등 가능한 모든 감각적 즐거움이 금기시된다. 금식은 신자들에게 인내와 자제력을 가르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영혼을 정화하며 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희생을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라마단 기간에 외국인들도 무슬림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등 종교 생활에 거슬리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지 무슬림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행자의 경우 라마단 율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나 무슬림은 여행이 끝난 후 금식하지 못한 기간만큼 스스로 금식을 한다고 한다. 특히, 외국인은 라마단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는 없으나 라마단은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슬람권의 중요한 문화인 만큼 그것을 존중하는 자

세가 필요하다. 금식 기간에는 호텔의 Room Service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라마단 기간에 금식 시간(일출 후 일몰 전까지)이 끝나고 첫 번째 식사를 '이프타르'라고 부른다. 이는 라마단 만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이프타르는 비즈니스 사교의 장이 되기도 한다. 몇몇 기업들은 대형 텐트를 설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호텔이나 식당을 빌려 거래처 및 정부 관료들을 초대한다. 이렇듯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거나 주요인사와 네트워킹을 하기도 한다.

#### 4) 복장

남성의 경우 특별히 복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나 비즈니스 미팅 시 주로 정장 또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면 충분하다. 사우디인들은 상대의 복장으로 사회적 지위, 출신 국가를 구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바이어 상담 등 비즈니스 목적에는 정장이나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장은 감색 등 어두운색 위주로 입는 것이 좋다. 사우디 남성의 경우 근무 또는 비즈니스 시 '싸웁'이라고 불리는 흰색 전통복장에 머리를 덮는 빨간 체크무늬 천인 '셰마그' 또는 흰색 등의 천인 '구트라'를 쓰고 이를 고정하는 검은 링인 '익칼'을 착용한다. 단, 해외 출장 시에는 정장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우는 외출, 비즈니스 미팅 등에도 사우디인, 외국인 여부에 상관없이 검은색 천으로 된 '아바야'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사우디 여성이나 아랍 여성의 경우 아바야에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갑 또는 머리 주위로 얼굴에만 두르는 히잡 등을 착용한다. 여성들은 쇄골과 무릎 등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몸에 딱 붙는 옷은 삼가는 것이 좋다. 외국 여성의 경우 아바야를 착용하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큰 지장이 없다. 사우디 정부는 2019년 9월 관광산업 육성정책 일환으로 외국인 여성의 아바야 착용 필수규정을 폐지했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적으로 여성의 아바야 미착용 문화가 자리 잡지 않았으며, 규정이 폐지됐다 할지라도 아바야를 착용하여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옷차림 및 여성문화

옷차림의 경우 여성들은 손목과 발목 이상의 노출이 금지돼 있고, 국적이나 가풍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외간 남자들 앞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외출 시에는 전통 의상인 아바야에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스카프를 하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며 외국인 여성도 예외 없이 아바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종교경찰(무따와)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얼굴까지 가리는 것은 가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거리나 상가에 있는 종교경찰도 여성들이 스카프를 둘렀는지 확인한다. 남자의 경우 특별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무릎을 드러내는 반바지 등 노출이 심한 복장의 경우 쇼핑몰 등 공공장소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사우디는 부부 이외의 남녀가 교제하거나 서로 어울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같이 다닐 경우 부부라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다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남녀 간의 내외를 엄격하게 지켜 여자 가족에 대한 안부나 관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 사우디를 방문한 사람들은 사우디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사진을 찍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기혼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현지의 모든 식당은 남성 독신자석(Single section)과 가족석(Family section)으로 구분돼 있으며, 일부 대형 쇼핑몰의 경우 여성 전용 쇼핑 층을 마련해놓거나 휴일 등의 특정 요일을 Family day로 지정해 남성의 단독 입장을 금지하기도 한다. 직장에서도 여성이 근무하는 경우 사무실에 여성과 남성을 격리해놓는 것이 원칙이다. 2018년 6월 24일부터 여성 운전 허용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향후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가 전망된다.

#### 6) 인사

팬데믹 이후 악수 문화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지인들 끼리는 친밀도에 따라 가벼운 포옹과 양쪽 뺨을 대는 Cheek-Kiss 문화도 있지만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지양하는 추세다. 악수할 때 아랍인들은 보통 두 손을 다 사용하며 손을 크게 흔들거나 하기보다는 손을 잡고 있는 느낌으로 한다. 왼손은 화장실에서 쓰는 손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악수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통 악수를 할 때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우디 여성은 남성과의 접촉이 금지돼 있으므로 상대가 악수를 먼저 청하지 않는 이상 간단한 목례나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적절하다. 첫 만남에서 일반적인 대화 주제는 상대방의 안부이다. 이때 이슬람 인사인 '앗살라무 알라이쿰'(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으로 인사를 건네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란, 이스라엘 등 적대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 7) 제스처

다음은 사우디 사람들과 만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제스처들이다.

- 타인에게 이리 오라고 팔을 뻗어서 손짓할 때, 손바닥이 위를 향하면 모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아래로 하고 흔드는 편이

좋다.

- 신발이나 샌들의 밑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
- 대화할 때 상대방보다 높은 장소(예: 상대방은 계단 아래, 자신은 계단 위)에서 말하는 것 역시 무례한 행동이다.
- 제스처를 취할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앉을 때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이 좋다.
- 관례로 카펫이 깔린 방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한다. 확신할 수 없다면 상대방이 리드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
- 턱을 가볍게 때리는 것은 매우 화난 상황에서 쓰이는 행동이다.
- 왼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며, 악수할 때도 두 손보다는 오른손만 내미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엘리베이터 탑승, 건물, 방 입장 시 보통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관례이다.
- 가끔 아랍인들이 대화 도중 혀를 한 번 차면서 고개를 위로 들어 올리는 행위가 있는데, 이는 모욕적인 언사가 아닌 '아니오, No'의 의미이다.

## 8) 식사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에는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예의이자 미덕으로 생각해 세 번 이상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한다. 통상 비즈니스 목적으로 만난 바이어의 경우,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식당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특별히 유의할 부분은 없으며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 된다. 다만, 식사 시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우디아라비아인의 전통음식은 굽거나 삶은 양고기 또는 닭과 쌀을 함께 조리한 '캡사' 또는 '만디'가 일반적이며 바닥에 앉아 맨손으로 식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두 다리를 포개어 앉거나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식사하면 된다. 외국인들은 식기를 사용해도 문제 없다. 다만, 손으로 식사하는 경우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오른손으로만 식사한다. 보통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손님에게 호의를 표시하기 위해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한다. 특히, 만디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으므로 남기더라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가능한 제공된 모든 음식을 한 번씩은 맛보는 것이 좋다. 사우디아라비아인을 한국으로 초청해 식사하는 경우 메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인을 포함한 무슬림들은 개, 돼지, 맹수, 맹금류 등을 먹지 않는다. 반드시 이슬람식 도축(할랄)이 된 고기만을 먹으며, 술을 권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된다. 적절한 메뉴는 소고기, 닭고기, 생선, 채소류이다.

## 7) 할랄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다.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즉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주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 제품에 해당한다. 반면,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개·고양이 등의 동물,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과 같이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을 '하람(haram)' 푸드라고 한다. 한국에서 무슬림에게 음식을 대접할 경우에는 할랄 제품으로 만든 음식이 가능한 식당을 찾아 대접하는 것이 좋다.

## 10) 선물

중동은 우리와는 다르게 선물을 하는 문화가 거의 없는 편이다. 특히, 뇌물은 이슬람에서 금기시되고 있어 첫 방문부터 값비싼 선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추후 친분을 쌓고 특별한 기회가 될 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바이어는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친분을 별개로 간주하는 편으로 선물로 인해 거래관계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때때로 주는 사람의 성의와 정성이 담긴 자그마한 선물 하나가 간혹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선물로는 인삼 제품(인삼차, 인삼 절편, 인삼 농축액 등), 한국산 IT 기기, 한국 전통문양이 들어간 수공예품 등이 무난하다. 한편, 바이어의 부인이나 자녀에게는 선물을 삼가는 것이 좋다.

## 11) 대화 주제

현지 무슬림과 친분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대화 주제들이 있다. 첫째, 국내 정치 상황, 최고 지도자 대한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즈니스를 하는 아랍인들의 경우 체제 옹호론자들이 많고, 산유국은 대체로 폐쇄적 권위주의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랍국가 전체에게 적국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 역시 삼가야 한다. 둘째, 아랍인들은 자존심과 명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종교, 문화 및 종족에 관한 비판 역시 삼가는 편이 좋다. 셋째, 현지 정권은 친미정권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다수 국민의 반미정서가

뿌리 깊고, 팔레스타인의 정당성에 대한 집착이 강해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대신 축구를 좋아해 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적절하다.

## 12) 기타

사우디 현지에는 하루 5번, 1회당 30분씩 기도 시간(살라)이 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소매점 및 음식점 등이 영업을 중단하므로 항상 이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음식점은 커튼이 설치돼 있어 주문 이후라면 예배 시간과 상관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도 중인 군중 주위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흡연하는 행위, 기도하는 방향 앞을 가로지르는 것과 같이 기도를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군사시설, Check Point, 주요 산업시설(주요 공단, 항만, 공항)등 민감한 건물들 같은 경우 사진을 찍는 것이 금지돼 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에서는 정유공장시설 촬영, 국경 지역 촬영 등으로 인해 당국에 구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와 더불어 허락 없이 무슬림 여성의 사진을 찍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또한, 사우디의 주요 산업시설에 부정합 ID를 사용해 출입하거나 근처에서 사진촬영 등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 Jarir

사이트 주소	https://www.jarir.com/sa-en/
개요	오프라인 서점 Jarir Bookstore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74년 리야드에서 작은 서점으로 시작하였다. 매출규모 및 고용인원은 공개된 바 없다.
주요 판매 품목	사무실 및 학교 용품, 어린이 장난감, 교육 보조기구, 서적 및 출판물, 예술 및 공예 재료, 컴퓨터 주변기기, 휴대폰 및 액세서리, 사진 도구, 기타 전자제품 등
특징	취미, 레저 관련 품목 종합 판매 사이트로 사우디 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 Amazon Saudi

사이트 주소	www.amazon.sa
개요	아마존이 2017년 두바이 거점을 둔 중동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Souq.com 인수하면서 사우디 도메인도 변경하였다. 아마존의 17번째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도 리야드, 젯다에 지점 설립했으며, 2021년 Amazon Prime 제도를 사우디 내 도입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7년 아마존 도메인으로 변경하면서 공식적인 아마존의 현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변경하였으며, 매출 규모는 70억 달러이며, 고용인원은 사우디 내에서만 3천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판매 품목	다방면의 제품 취급하여 총 35개 분야 850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30일 간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무료 이용가능하며,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와 연계되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해외제품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NOON

사이트 주소	www.noon.com
개요	2017년 10월 UAE에서 최초 런칭 후, 12월 사우디에 출범하였다. 아마존과 같이 직접 판매제품 및 판매자 판매제품 모두 검색 가능하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7년 설립했으며 본사는 사우디 리야드에 위치하고 있다. 매출규모는 비공개 자료이며, 고용인원은 약 5천 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의료, 가정용품, 미용용품, 영유아제품, 운동기구, 아웃도어제품, 식품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특징	아마존과 유사하게 NOON VIP 제도 운영하여 빠른 무료 배송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NOON Daily는 신선식품 온라인 사이트로 주문 후 1-2일 내 식품 직접 배달하고 있다.

##### ○ Aswaq

사이트 주소	www.aswaq.com
개요	사우디 리야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우디 유일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6년 설립되었으며, 매출규모는 비공개이나, 고용인원은 500~1,000명으로 추정된다.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가정용품, 의류, 식품, 아동제품, 자동차용품, 사무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100% 사우디 자본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이다.

◦ Desert Cart

사이트 주소	desertcart.com.sa
개요	UAE 본사를 두고 있는 사이트로 사우디,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에서 운영 중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4년 두바이 설립되었으며, 200명 정도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매출규모는 정식 공개된 바 없다.
주요 판매 품목	생활소비재 위주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1억 개 이상 제품에 대한 검색 홍보하고 있으며, 메인 화면 제품 카테고리를 주제별로 영화 포스터처럼 분류해 놓았다는 특징이 있으며, 국내제품 배송 및 해외배송까지 구분없이 제품 검색 및 구매 가능하다.

◦ Jollychic

사이트 주소	www.jollychic.com
개요	2012년 창립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2017년 사우디 진출했으며, 2019년 사우디 투자부와 MoU 체결하고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에 투자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7년 사우디 런칭했으나 매출규모 및 고용인원은 공개된 바 없다.
주요 판매 품목	의료, 미용용품, 전자제품, 가정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의류는 타 품목 대비 세분화된 카테고리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징	Jollychic Privi라는 멤버십 카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기간별로 나누어 구입 시 제품별 5-10% 할인혜택 받을 수 있고, 회원전용선물, 쿠폰 등 통해 멤버십 서비스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 가. 성공사례

#### 1) 삼성E&A,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1번, 4번 수주 계약(2024.4.3)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아람코와 8조원 규모 가스 증설 프로그램 공사 계약을 하였다. 업계에선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계약으로 보고 있다.

#### 2) 현대일렉트릭, 사우디 ERP 전문기업과 전력기기 공급계약 체결(2023.11.26)

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 고압차단기, 리액터 등 전력기기에 대해 2024년 12월까지 900억 원 이상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전력기기는 디리아 유적지를 비롯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신규 변전소에 공급될 예정이다.

#### 3) 세아창원특수강,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두수르와 스테인리스 무게목 강관공장 착공(2023.2.1)

세아창원특수강은 사우디 아람코와의 합작법인인 SGSI(SeAH Gulf Special Steel Industries)를 통해 스테인리스 무게목 강관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 4) 현대리바트, 사우디 자푸라 유틸리티 공사 수주(2022.5.6)

현대리바트는 현대건설과 사우디 자푸라 유틸리티 및 황 회수 시설공사 계약을 867억 원 규모 체결했다.

#### 5) 대한전선, 사우디 EPC와 초고압케이블 합작법인 설립(2022.3.9)

대한전선이 사우디 송배전 전문 EPC인 모하메드 알 오자이미 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 초고압케이블 공장을 설립한다. 이는 기존 대한전선 사우디법인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리야드 첨단산업단지 내 건설될 예정이며, 완공되면 GCC 국가 및 유럽으로 380kV 초고압 송전 케이블을 공급할 계획이다.

#### 6) 두산중공업, 사우디 주단조 프로젝트 수주(2022.2.11)

두산중공업은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두수르, 사우디 아람코와 합작으로 Tuwaiq 주조/단조 공장 일괄수주(EPC)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동 공장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인근 라스 알 카이르 지역 내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 건설되며, 연간 6만 톤의 주단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약 1조 원에 가까운 사우디 최대 규모의 주단조 공장이 될 전망이다.

#### 7) 두산인프라코어, 사우디 건설기계 50대 수주(2021.8.12)

두산인프라코어는 5월 중대형 굴착기 수주에 이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협력 건설사로부터 월로더 30대를 수주하고, 사우디 국영 전력회사 협력사와도 22t급 굴착기 20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75대의 중대형 굴착기를 수주한데 이어 추가 계약건으로 바레인 대형 건설사 2곳으로 부터 중대형 굴착기 12대를 수주하는 등 총 62대의 건설기계 입찰을 수주 하는 등 중동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

#### 8) 두산인프라코어, 사우디 현지 협력사로부터 총 75대의 중대형 굴착기 수주(2021.5.26.)

두산인프라코어는 두 번의 입찰에서 총 75대의 중대형 굴착기를 수주했다. 첫 번째 입찰에서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의 주요 협력사로부터 22톤급 굴착기 20대와 50톤급 굴착기 5대를 수주하였으며, 이는 지난 3월 굴착기와 월로더 총 35대 구매계약에 이은 2차 발주분이다. 더불어 두 번째 입찰에서는 사우디 국영 전력회사의 주요 협력사에서 현지 전력시설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22톤급 굴착기 50대를 수주하였다. 앞서 4월 카타르에서 굴착기 102대 납품 계약을 하는 등 최근 중동시장에서 발빠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 9)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석유화학회사 APC 자회사인 AGIC와 6.5억 달러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2021.4.13.)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 석유화학회사인 APC의 자회사인 AGIC(Advanced Global Investment Company)와 6억5000만 달러(한화 7,350억원) 규모의 PDH(프로판 탈수소) & UTOS(유틸리티 기반시설)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금번 계약식은 서울과 사우디 주베일에서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서면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우디 주베일 2공단 내 연간 84만 톤 규모의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PDH 플랜트와 UTOS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공예정이다.

## 10) 두산중공업, 7,800억 원 규모의 해수담수화플랜트 수주(2021.1.25.)

두산중공업은 디벨로퍼인 프랑스 에너지전문기업 엔지, 사우디 기업 모와 및 네스마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함께 안부 4(Yanbu 4) 해수담수화플랜트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금번 사업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제다시 북쪽 26km 지점인 알라이스 지역에 건설되며, 두산중공업은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2023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완공 시 하루 약 150만 명이 동시 사용 가능한 45만 톤의 물을 생산하여 사우디 서부 알라이스 지역에 공급하게 된다.

### 나. 실패사례

#### o 파트너사에 과도한 의존 및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중도 무효화 및 철수

A사는 사우디 파트너로부터 입수한 진출 조건만을 확인하고 모든 절차 및 진행 등에 대해 현지 파트너사에게 일임했다. 사우디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 탓에 시차와 주말이 금~토로 달라 가용한 업무시간이 짧고 언어적으로도 제한이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최초 업무 일임 후 사우디 파트너의 진척도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파트너가 해당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몇 개월간 방치되었고 이후 A사가 국내기업에게 동 건에 대해 문의했으나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사관, KOTRA 등 도움으로 파트너사와 재연결되었으나 파트너사의 입장 및 조건이 변경되면서 A사는 일시적으로 기존 진출방안을 무효화하고 철수 결정을 내렸다.

#### o 시장 및 바이어에 대한 미흡한 사전조사로 추진 보류

화장품 기업인 B사는 사우디 수출 위해 자체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을 진행했다. 현지 K-POP 인기와 한국음식에 대한 수요만 확인 후 진출키로 결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발굴한 현지 바이어와 제품등록(AR)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품등록 진행 과정에서 바이어측 요청으로 현지 수입 및 유통에 대한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디 식약청(SFDA) 제품 등록까지 완료했으나, 이후 바이어측 연락이 두절되었다. B사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바이어측에서는 제품의 시장성 검토를 이유로 답변 및 비즈니스를 지속해서 지연했으며, B사에는 다른 바이어를 발굴코자 했으나 이미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시장 진출이 계속 보류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바이어측에서 독점계약 파기를 조건으로 위약금을 요청하여 B사는 일단 해당 계약기간 종료까지 잠정 보류키로 하고 추가적인 시장조사를 결정했다.

## 5. 출입국 안내

### 가. 비자

#### 종류 및 발급절차

2019년 2월 1일 발효된 한국-사우디 사증발급 간소화에 따라 사우디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비용이 대폭 낮아졌다. 최대 90일간 체류 가능한 5년 복수비자를 약 10만 원(90달러)에 발급받을 수 있어, 사우디 출장 애로사항이 대폭 감소하였고, 2019년 9월 27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포함 49개국 대상 관광비자 발급을 시작했다. 관광비자는 온라인 및 도착비자 모두 가능하지만, 도착 관광비자 진행 시 호텔 예약증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편함도 있고 단수 입국만 허용하므로 가급적 온라인을 통한 사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 기간 내 복수 입국,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 1) 비자 종류 및 발급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에 따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의 입출국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GCC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전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사우디 입국비자 종류에는 관광, 관용, 상용, 가족방문, 핫지(Hajj) 및 우므라(Umrah) 등이 있다. 사우디는 2019년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관광비자가 없었고, 여성 단독 비자는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사우디 거주 교민, 주재원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거주증(IQAMA) 발급 후 Exit & Re-Entry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사우디 출입국을 할 수 있다.

##### ○ 관용 비자

- 대한민국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경우 '24년 2월 20일부로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 ○ 상용 비자: 방문 및 취업비자

- 방문 비자는 사우디 보증인(스폰서) 또는 바이어의 초청하에 발급받을 수 있다. 2019년 2월 발효된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에 따라 상용 방문비자는 최대 90일 체류 가능한 5년 복수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취업비자는 사우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내무부 검토 및 승인 → 외무부 검토 및 승인 단계를 거쳐 현지 대사관에서 발급한다. 단, 취업비자를 받았을 경우 입국 후 거주증(IQAMA)을 발급받아야 한다.

##### ○ 관광비자(eVISA)

- 한국국적 보유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사우디 출입국 항공권, 호텔예약증 등이 필요하다. (홈페이지 : <https://visa.visitsaudi.com/>)

##### ○ 가족방문 비자

- 거주증(IQAMA)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직계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 ○ 핫지(Hajj) 및 우므라(Umrah) 비자

- 핫지 비자는 이슬람력 12월에 행하는 이슬람 성지순례(핫지)를 위한 비자로 메카, 메디나, 제다 지역만 방문할 수 있다. 하지 기간 외 성지순례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를 우므라 비자라 하며, 두 사증은 무슬림에게만 발급된다. 우므라 비자의 경우, 30일간 유효하나 30일 이내에 성지순례를 수행한 후, 입국 후 2주 이내에 사우디를 출국해야 한다. 또한, 핫지 및 우므라 비자발급 수수료는 1회에 대해 무료이나 2회부터는 비자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 기타 비자

- 유학, 연수 등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스폰서(보증인)의 보증 하에 1개월 방문 비자를 발급한다.

#### 2) 비자발급 및 장기체류 시 유의사항

이스라엘 출입국 기록이 있으면 사우디 비자발급이 불가하므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기자의 경우 정부대표 수행단에 포함된 경우 취재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개별 취재 목적의 비자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우디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내무부로부터 거주증(IQAMA)을 받아야 한다. 외교관 및 지상사 주재원도 예외 없이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거주증(IQAMA)을 발급받으면 외국 출입국을 위해 Exit & Re-Entry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3년 11월 발효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검문 강화 법안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거주증(IQAMA) 불시 검사가 늘어나고 있다. 거주증(IQAMA) 미소지 1회 적발 시 1,000사우디 리알(267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후 적발 횟수에 따라 1,000사우디 리알씩 벌금이 증가하며, 3회 이상 적발 시 치안 당국이 내무부에 추방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3) 비자취득 절차

#### ○ 상용 목적(개별입국)

- 사우디아라비아인 스폰서의 초청장 발송(1부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1부는 방문자)
- 사우디 비자센터 사전 예약 및 접수(<https://vc.tasheer.com/>) → 비자 발급
- 초청장 발급, 비자접수 등 비자 취득까지 약 3~4주 소요

#### ○ 상용 목적(시장개척단 등 단체)

- 리야드 무역관이 대사우디아라비아 상공회의소에 비자발급 협조요청 공한 발송
- 사우디아라비아 상공회의소,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에 비자발급 요청(내무부 검토)
-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비자발급 허가 통보
- 사우디 비자센터 사전 예약 및 접수(<https://vc.tasheer.com/>) → 비자 발급
- 초청장 발급, 비자접수 등 비자 취득까지 최소 1개월 소요

#### ○ 관광비자(온라인 사전발급 또는 도착발급)

- 사우디 공식 관광비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홈페이지 : <https://visa.visitsaudi.com/>)
- 생년월일, 이름, 이메일(인증 필요), 사진(200 x 200 px), 성별, 국적,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 등록
- 여권종류, 여권 번호, 여권발행국, 발행일, 유효기간 등 여권정보 등록
- 건강보험료 결제, 관광비자 발급 수수료 등 비용 결제(약 460 사우디 리알, 선택한 보험상품에 따라 가격 차이 발생가능)
- 결제 완료 및 승인 후 등록 이메일로 관광비자 확인(신청부터 비자취득까지 약 1~2일 소요로 상당히 빠른 취득 가능)
- \* 도착 관광비자 진행 시 호텔예약증 등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발급을 통한 사우디 방문 추천

### 4) 비자 발급기관: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비자 서비스센터

주한 사우디 대사관은 정부초청 비자 이외의 모든 비자는 사우디 비자센터(<https://vc.tasheer.com/>)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비자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일 예약을 불가능하고 인터넷으로만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초청장이 아랍어로 되어 있어 사우디 비자 진행 경험이 있는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쉽다. 사우디 여행을 통해 비자접수를 진행하더라도 지문등록, 비자 인터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우디 비자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비자센터 홈페이지에서 비자신청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양식을 다운받아 여행사(또는 대리인)에 전달해야 한다. 라마단, 하지(성지순례) 기간 등 성수기에는 예약이 1달 이상 밀려있는 경우도 있으니 일정 수립에 유의해야 한다.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완료 이후 약 4~5일이다. 여권사본, 여권용 사진, 초청장, 출장증명서(Travel Order) 등의 서류가 필요하나 신청자의 소속기업에 따라 상이하니 홈페이지 확인이 필수이다.

#### ○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1동 녹사평대로26길 37
- 전화: 02-2022-7400
- 휴일: 토요일, 일요일, 양 국가의 공휴일 등
- 이용시간: 09:00~16:00
- 참고사항 : 공무수행, 정부면담 등 사우디 외무부 초청장 소지자만 접수 가능

\* e-visa(온라인 관광비자) 발급관련 주한 사우디 대사관 영사과는 동유형의 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발급 주체가 아니기에 거절사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음

\* 영사과 이메일 : Krcon@mofa.gov.sa

- 홈페이지 : <https://embassies.mofa.gov.sa/sites/SouthKorea/AR/Pages/default.aspx>

o 사우디아라비아 비자센터(VFS Tasheel International)

- 주소: 서울 중구 동호로 10길 21 광영빌딩 5층 사우디 비자센터

- 휴일: 토요일, 일요일, 양 국가의 공휴일 등

- 운영시간: 09:00~17:00

- 비자접수: 09:00~14:30

- 여권수령: 14:00~16:00

- 홈페이지: <https://vc.tasheer.com/>

- E-mail: info.seoul@tasheer.com

- 참고사항: 공무수행 이외 상용, 가족방문 등 일반비자 접수

- 문의방법: 이메일(전화문의 불가)

## 5) 비자신청 비용

공무수행을 위한 주한 사우디 대사관 신청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용, 가족초청 등 사우디 비자센터를 통한 비자접수는 90달러(약 10만 원) 정도이다. 비자접수는 Enjaz 비용, 비자발급 수수료,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별도이다. 비자접수 비용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5) 비자신청 확인

비자 신청을 완료한 후 비자신청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고유번호 또는 E 번호와 생년월일이 필요하다. 예약 고유번호의 경우 비자센터에서 받은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 휴대품 통관

### 휴대품 면세

#### 1) 면세

사우디는 세금체계가 단순하며 면세 또는 세금 관련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국왕의 칙령(Royal Decree)에 따른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면세는 거의 없다.

단, 재반출을 위한 임시반입물일 경우 사전에 ATA 카르네(Carnet)를 준비, 사우디 관세행정당국에 온라인 통관 신청시 무관세로 임시통관이 가능하다. (2024년 6월 1일부 시행)

#### 2) 반입금지(제한)품목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마약, 술, 돼지고기, 음란 서적 및 동영상은 금지되며, 이스라엘 관련 자료, 이슬람 이외의 종교 서적의 반입도 금지된다.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및 관련 문서가 있어야 반입할 수 있다.

#### 3) 상담회 물품(샘플, 카탈로그 등)관련 반입시 유의사항

- 품목 고려, 대량의 카탈로그는 전시품 배송시 함께 발송 권유
- 한국에서 샘플 핸드캐리 시, 10개 이하 수량 권장
- 여분의 여행용 아답터(3구), 노트북, 태핑 등 소프트카피(동영상, 전자카달로그 등) 자료 및 완충된 휴대용 배터리(항공기 탑승시 핸드캐리) 준비 적극 활용 권장
- 재반출전시품의 경우, 국내 상공회의소에서 ATA 가르네(Carnet)를 사전에 수령, 사우디 관세행정 당국에 직접 온라인 통관 신청 가능 (2024년 6월 1일부 시행)
- \* 신청 사이트: [https://zatca.gov.sa/en/eServices/Pages/eServices\\_294.aspx](https://zatca.gov.sa/en/eServices/Pages/eServices_294.aspx)

#### 4) 기타 출입국 유의사항

사우디는 입국 시 휴대폰 검색을 매우 철저하게 시행한다. 마약 및 무기 소지 여부를 포함해, 이슬람 문화에서 금기시하는 주류, 음란물, 돼지고기 등 반입 불허 품목을 철저하게 검색한다. 특히, 주류 반입 시 적발되는 경우 벌금, 구금, 추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니 삼가는 것이 좋다. 사우디는 엄격한 이슬람법을 지키는 사회임을 고려해 입국 시 상기 반입금지(제한) 품목의 물품은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일즈 출장 시 샘플은 통관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금·은 장신구, 시계 등의 고가품은 관세를 내야 한다. 관세유예 후 전량 재반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관세납부 후 환급절차도 복잡해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음주 상태, 노출이 심한 복장 착용자는 입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예전에는 공항, 호텔 내부를 제외하고 온몸을 감싸는 아바야 착용이 필수였으나 현재는 복장 규정이 완화되어 아바야, 그리고 머리카락을 가리는 히잡 등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전히 어깨가 드러나는 민소매나 배꼽이 드러나는 복장, 무릎까지 내려오는 짧은 반바지 혹은 치마 등 노출이 심한 복장은 착용이 금지된다. 쇼핑몰 등 일상적인 장소는 관계 없으나 관공서나 이슬람 사원 방문시에는 남성도 반바지 착용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지문등록을 제외하고 입국심사는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직원의 근무 태만,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과거 3~4시간 소요되던 입국 심사가 최근에는 30분~1시간으로 감소했다.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기준으로 비행기에서 나와 입국심사대로 가면 여러개의 창구가 있는데, 오른쪽은 사우디 및 GCC 국민, 좌측이 일반 심사대이다. 인도, 필리핀 등 제3국인 노동자의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비행기에서 내리면 최대한 빨리 입국 심사대로 가는 것이 좋다.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기록이 있으면 입국이 불가능하다. 사우디는 공권력이 매우 강력해 공무집행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반항에 가중처벌이 가해진다. 경찰 등의 동행 요구가 있으면 가급적 현장 대응을 피하고 대사관에 연락해 구제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유관기관

###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966-11-488-2211
주소	Korean Embassy, P.O.Box 94399, Riyadh 11693, Saudi Arabia
홈페이지	<a href="http://overseas.mofa.go.kr/sa-ko/index.do">http://overseas.mofa.go.kr/sa-ko/index.do</a>
비고	Diplomatic Quarter에 위치

#### ○ 주 젤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966-12-668-1990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P.O.Box 55503 Jeddah 21544 Kingdom of Saudi Arabia
홈페이지	<a href="http://overseas.mofa.go.kr/sa-jeddah-ko/index.do">http://overseas.mofa.go.kr/sa-jeddah-ko/index.do</a>
비고	Rawdah Center 2층에 위치

#### ○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야드지사

전화번호	+966-11-273-4496 (ext. 323)
주소	8th fl. Legend Tower, King Fahd Branch Road, Al Olaya, Riyadh, Kingdom of Saudi Arabia
홈페이지	<a href="https://www.ksure.or.kr/">https://www.ksure.or.kr/</a>
비고	KOTRA 리야드무역관 사무실 입주

#### ○ 한국수출입은행 리야드사무소

전화번호	+966-11-273-4496 (ext. 324)
주소	8th fl. Legend Tower, King Fahd Branch Road, Al Olaya, Riyadh, Kingdom of Saudi Arabia
홈페이지	<a href="https://www.koreaexim.go.kr/">https://www.koreaexim.go.kr/</a>
비고	KOTRA 리야드무역관 사무실 입주

#### ○ 한국전력공사 KEPCO Middle East

전화번호	+966-11-201-5754
------	------------------

주소	15 leaders Tower, 8000 King Fahad Road, Riyadh 12333-4055
홈페이지	<a href="https://home.kepcoco.kr/">https://home.kepcoco.kr/</a>

<자료원 : 외교부 및 각기관 홈페이지>

##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경제기획부)

전화번호	+966-11-203-9112
주소	Granada Business Park, Ash Shuhada, Riyadh
홈페이지	<a href="https://mep.gov.sa/">https://mep.gov.sa/</a>

### ○ Ministry of Finance(재무부)

전화번호	+966-11-405-0000
주소	Omar Ibn Al Khattab Road, Al Malaz, Riyadh 12641
홈페이지	<a href="https://www.mof.gov.sa/">https://www.mof.gov.sa/</a>

### ○ Ministry of Foreign Affairs(외교부)

전화번호	+966-9200-11114
주소	Al Washm St, An Namudhajiyah, Riyadh 12735
홈페이지	<a href="https://www.mofa.gov.sa/">https://www.mofa.gov.sa/</a>

### ○ Ministry of Interior(내무부)

전화번호	+966-11-401-1111
주소	King Fahd Rd, Al Olaya Riyadh
홈페이지	<a href="https://www.moi.gov.sa/">https://www.moi.gov.sa/</a>

### ○ Ministry of Investment(투자부)

전화번호	+966-11-506-5777
주소	Imam Saud bin Abdul Aziz bin Mohammed Road An Nakheel, Riyadh 12382
홈페이지	<a href="https://misa.gov.sa/">https://misa.gov.sa/</a>

◦ Saudia

전화번호	+966-92-002-2222
주소	Prince Saud Al Faisal, Al Khalidiyyah, Jeddah
홈페이지	<a href="https://www.saudia.com/">https://www.saudia.com/</a>
비고	사우디 국적기

◦ Council of Saudi Chambers

전화번호	+966-11-218-2222
주소	King Fahad Branch Rd, Al Mutamarat, Riyadh 12711
홈페이지	<a href="https://fsc.org.sa/">https://fsc.org.sa/</a>
비고	사우디 상공회의소

◦ Saudi Press Agency

전화번호	+966-11-401-9037/9050
주소	King Fahd Branch Road, As Sahafah Riyadh 13321
홈페이지	<a href="https://www.spa.gov.sa">https://www.spa.gov.sa</a>
비고	사우디 국영 통신사

◦ Arab News

전화번호	-
주소	P.O. Box 10452 Jeddah 21433 Saudi Arabia
홈페이지	<a href="http://www.arabnews.com">http://www.arabnews.com</a>
비고	사우디 주요 일간지

◦ Saudi Gazette

전화번호	+966-12-676-0000
주소	Dallah Street, Rehab District
홈페이지	<a href="http://www.saudigazette.com.sa/">http://www.saudigazette.com.sa/</a>
비고	사우디 주요 일간지

○ 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관세청)

전화번호	+966-11-204-8998
주소	Al Mughrizat, Riyadh
홈페이지	<a href="https://eservices.zatca.gov.sa/">https://eservices.zatca.gov.sa/</a>

<자료원 : 사우디 정부 및 각기관 홈페이지>

## 7. 물가정보

### 가. 물가정보 표

1 USD : 3.75 SAR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빅맥 단품 (USD)	4.800
2	식품	짜장면(한식당)	1인분 (USD)	20.000
3	식품	김치찌개백반(한식당)	1인분 (USD)	12.000
4	음료	우유	2L (USD)	2.93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1잔 (USD)	3.47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1.5L (USD)	0.440
7	음료	탄산음료	1L (USD)	1.330
8	의료	감기약(타이레놀 200mg)	1팩(10정), (USD)	3.040
9	교통	자동차 등록비	신규 및 연간 갱신료 (USD)	26.670
10	서비스	이발(시내 중심 외국인 애용점)	1회 (USD)	8.80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USD)	1.470
12	서비스	무연휘발유 1L(옥탄가 91)	1L (USD)	0.58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옥탄가 95)	1L (USD)	0.62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USD)	0.050
15	서비스	인터넷 이용요금	월, 300Mb Speed 기준 (USD)	76.670
16	여가	담배	1갑 (USD)	6.670
17	여가	무알콜 맥주	330ml 1병 (USD)	2.330
18	임금	대졸자 평균임금	월 (USD)	2666.67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USD)	30354.17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5.250
21	식품	쌀	1kg	2.270
22	식품	식빵	한묵음	1.600
23	식품	고기	1kg	29.190
24	식품	계란	10개	2.390

25	식품	식용유	1L	9.730
26	주거	수도세	m <sup>3</sup>	1.560
27	의료	의료보험료(1인)	월	234.190
28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18.400
29	통신	국제전화 요금	분	1.040
30	통신	휴대전화 요금	분	0.040
31	서비스	TV 수신료	1개월	9.330
32	서비스	OTT 구독료(Netflix 기준)	1개월	11.470
33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3.070
34	기타	국경일수	연간	11.000
35	교통	시내버스요금(리야드 기준)	기본요금(2시간권)	1.070
36	식품	불닭볶음면	1개	2.120
37	서비스	영화입장권	1회	12.000
38	서비스	피트니스클럽	1개월	99.910
39	의류	청바지(리바이스 501)	1벌	53.810
40	의류	운동화(나이키)	1켤레	108.050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8. 출장정보

### 가. 환전

#### 통화체계

1) 화폐단위: SAUDI RIYAL(SAR 또는 SR)

지폐에는 500, 100, 50, 10, 5, 1사우디 리얄(Saudi Riyal)이 있으며, 동전에는 50, 25, 10, 5할랄라(1사우디 리얄=100할랄라)가 있다. 동전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마트 등에서도 거스름돈은 50할랄라의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반올림하거나 계산대 앞에 껌, 사탕 등을 비치해 이에 해당하는 할랄라 액수만큼 가져가게 함으로써 절삭하기도 한다.

의장국 자격으로 2020년 G20 온라인 정상회담 개최 이후 사우디 중앙은행은 200사우디 리얄(Saudi Riyal) 지폐를 발행하기도 했다.

2) 환율

환율은 미화에 페깅(Pegging)된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USD 1 = SAR 3.75이다.

#### 환전방법

1) 환전

미화 환전의 경우 수수료는 별도 청구되지 않으며, 환율을 다소 낮게 적용하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단,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환전할 경우에는 은행계좌가 있어야 하며, 계좌가 없을 경우 환전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미화 이외의 환전 환율은 차이가 크므로 미화를 소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2) 기타

일부 외환은행에서 원화-사우디 리얄 환전이 가능하지만, 환율이 매우 좋지 않다. 사우디는 사우디 리얄-미화 고정환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차손이 크게 없으므로 미화 소지 및 현지 환전을 추천한다.

#### 신용카드 이용

현재 사우디에는 10개 이상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 애로사항은 없는 편이다. 호텔, 레스토랑, 카페, 대형마트, 편의점, 병원, 약국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대부분의 국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규모 로컬 식당 및 슈퍼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일정액의 현금 소지를 추천한다.

- 사우디 대표 상업은행
  - Saudi National Bank(SNB)
  - Saudi Awwal Bank(SAB)
  - Saudi Investment Bank
  - Al-Inma Bank
  - Banque Saudi Fransi
  - Riyadh Bank
  - Al-Rajhi Bank
  - Arab National Bank(ANB)
  - Bank Al-Bilad

## 나. 교통

### 교통상황

최근 차량의 증가로 출퇴근길에 교통체증이 매우 심해지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리야드, 제다, 메카 등 주요 도시에 지하철을 건설 중이다. 리야드의 경우 총 6개 라인, 176km의 지하철이 건설 중이다. 2013년 7월 6개 라인, 총 176km의 메트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프로젝트 규모는 약 7조 3,000억 원이다. 2021년 말부터 현재까지 일부 구간(공항-도심)은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며, 2024년 내 정상운영 계획이다.

### 버스

시내버스의 경우 리야드 시내에서 25인승 미니 버스를 노선별로 운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3사우디 리얄이다. 그러나 배차 간격이 매우 길고 시내 일부 구간에서만 운행해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차량 상태가 매우 열악해 저소득층, 제3국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지하철 개통에 앞서 지하철 연계 대형 버스를 도입했으며, 2022년 시범 운행 후 2023년 초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4사우디 리얄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배차 간격이 길고, 모든 정류소에 의무 정차 및 저속 운행으로 일반 차량 대비 2~3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이동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높지는 않아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 택시

택시 및 UBER 사용이 매우 편리하나, 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시내에서 근거리 20-30사우디 리얄, 원거리는 80~120리얄까지 올라서 가격부담이 커졌다. 리야드 택시 기본요금은 5사우디 리얄이며, 1km당 2사우디 리얄이 추가된다. 대기 비용은 시간당 30사우디 리얄이다. 일반 택시는 미터기 조작이 많고, 영어가 통용되지 않아 Careem, Bolt, UBER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추천한다. Careem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택시는 현금 및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다. 한국에서 UT(우티)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우디에서도 해당 어플로 Uber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다. 통신

### 핸드폰

사우디텔레콤(STC) 민영화 이후 통신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지역에 따라 전화 신청 후 설치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휴대전화의 경우 공항 및 시내 곳곳에 통신사별 대리점이 있어 쉽게 개통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던 기기를 가지고 와서 STC, Mobily 등의 현지 통신사를 방문해 USIM 카드를 구매한 후 장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통신요금은 STC 기준 선불 요금제(Pre-paid)의 경우 통화 시 초당 1할랄라(1사우디 리얄=100할랄라)를 지불하며, 후불 요금제(Post-paid)의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비싼 편이다.

### 인터넷(와이파이)

사우디아라비아는 통신기반시설 인프라가 양호하지 않아 인터넷 환경은 한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편이나, 최근 무선 인터넷을 비롯해 4G 및 5G의 도입 등으로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인터넷 신청은 STC, Mobily, Zain 등 주요 통신회사 대리점에서 가능하다. 무선(Wi-Fi)의 경우 라우터 및 요금제를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SIM카드 구매 후 충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과거 호텔에서 인터넷 비용을 청구했으나, 최근에는 호텔을 비롯하여 주요 카페, 커피점에서 와이파이(Wi-Fi)를 무료로 제공하는 추세이다. 라우터를 사용하는 무선 인터넷은 휴대 및 신청 방법이 간편하다. 과거 연결이 매우 불안하며 만족할 만한 속도가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많이 개선돼 속도는 서비스 광고보다는 느린 편이나 사용에 큰 불편은 없다. 유선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신청절차 및 설치과정이 복잡하나 연결이 안정적

이며 속도도 빠른 편이니 용도에 맞게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터넷 시장에는 국영기업 STC부터 Mobily, Zain, Go, Virgin Mobile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

## 라. 관광명소

### ○ 알-마스막 박물관(Al-Masmak Museum)

도시명	리야드
주소	Riyadh- AL Dirah Quarter- South of Imam Turkey bin Abdullah street and East of Imam Turkey bin Abdullah mosque
운영시간	일 - 목 : 08:00 - 21:00 금 : 16:00 - 20:00 토 : 09:00 - 20:00
휴무일	라마단, 이드(성지순례) 기간 중 휴무일 변동, 방문 전 사전 확인 요망
명소소개	압둘아지즈 선왕의 사우디아라비아 건국 관련 역사적 장소
비고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복원작업으로 임시 휴무. 재개장 일정은 아직 공지된바 없음.

### ○ 디리야 유적지 (알투라이프 유적지)(Diriyah (Al Turai))

도시명	리야드
주소	리야드 기준 북서쪽 30km 거리
운영시간	해당 유적지는 크게 Bujairi Terrace(부자이리 테라스) 상점가와 Al Turaif(알투라이프)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지구로 나뉘지며, 알투라이프 지구 입장을 위해서는 부자이리 테라스를 꼭 통과하게 되어있음. 여름시즌과 비여름시즌에 따라 운영 및 입장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1. Bujairi Terrace(부자이리 테라스) 식당가 토-화 : 오전 9시 - 밤 12시 후-금 : 오전 9시 - 새벽 1시  2. Al Turaif(알투라이프) (마지막 입장 : 밤 11시) 토-목 : 오전 10시 - 밤 12시 금 : 오후 2시 - 밤 12시 * 알투라이프 유적지는 혹서기인 여름시즌의 경우 오후 5시이후에만 입장이 가능.
휴무일	항시
명소소개	리야드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위치한 디리야(Diriyah) 유적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최초의 수도였으며, 현재 사우디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적 유적지이다. 디리야는 1446년 세워져, 18세기 말에 전성기를 누렸으며, 1818년 파괴되었다. 현재 왕궁터와 모스크, 성벽 등이 남아있으며, 2010년 디리야 일부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복원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입장료 50리얄로 내부 식당 및 카페 등에서 바우처 형태로 사용 가능하며 예약여부, 입장료 지급여부 등은 변동가능성이 높아 아래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a href="https://www.diriyah.sa/">https://www.diriyah.sa/</a>

<b>비고</b>	<p>사전 온라인 예약 필수이며, 1인당 8매까지 입장권 예약 가능. 오후 5시 이전 입장권은 무료, 오후 5시 이후 입장권은 유료임(50리얄). 50리얄 유료입장권의 경우 Bujairi Terrace(부자이리 테라스) 식당가에서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p> <p>* 입장권 예매 홈페이지 : <a href="https://tickets.bujairi.sa/en/d/3552/diriyah-access">https://tickets.bujairi.sa/en/d/3552/diriyah-access</a></p>
-----------	--

○ 킹덤센터 스카이브리지(Kingdom Centre SkyBridge)

<b>도시명</b>	리야드
<b>주소</b>	Kingdom Centre, King Fahad Road P.O.Box 230011 Riyadh 11321
<b>운영시간</b>	<p>일 - 수: 9:30 - 12:30, 16:30 - 22:30</p> <p>목 : 9:30 - 22:30</p> <p>금: 16:30 - 22:30</p> <p>목 : 9:30 - 22:30</p>
<b>휴무일</b>	라마단, 이드(성지순례) 기간 중 휴무일 변동, 방문 전 사전 확인 요망
<b>명소소개</b>	<p>킹덤 센터는 리야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랜드마크로써 윗부분이 역포물선 형태의 아치로 장식된 빌딩이다. 병따개와 흡사하게 생겼으나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인들이 머리에 착용하고 다니는 셰마그를 쓴 사우디아라비아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한 압둘 아지즈 왕의 손자인 알 왈리드 왕자가 개최한 건축 공모전을 통해 탄생했으며 호텔, 쇼핑몰, 사무실, 레스토랑,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쇼핑몰 3층은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특별 공간이며, 사진촬영, 심지어 부인을 동반한 기혼 남성의 출입도 금지된다. 전망대(Sky Bridge) 관람 가격은 성인 1명 기준 63 사우디 리얄이다. 타 전망대와는 달리 내부에 카페나 기념품점은 없으며, 기념촬영 포함 약 10분 정도면 둘러볼 수 있다. 킹덤 타워는 오늘날 명실공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 성공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됐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변하는 조명이 설치돼 어두운 밤이 되면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화려하게 장식한다.</p>
<b>비고</b>	<p>요금</p> <p>성인 : 69사우디 리얄</p> <p>10살 이하 : 23 사우디 리얄</p> <p>2살 이하 : 무료</p>

〈자료원 : 공식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반 타이(Bann Thai Restaurant)

<b>도시명</b>	리야드
<b>전화번호</b>	966-55-919-1106
<b>주소</b>	6901 4446 Al Urubah Road, Umm Al Hamam Al Gharbi, Riyadh 12328
<b>가격</b>	25~50 사우디 리얄(USD 8~16)
<b>영업시간</b>	<p>토 - 목 : 11:00 - 23:30</p> <p>금 : 12:30 - 23:00</p>
<b>휴무일</b>	정해진 휴무일 없음

소개	쌀국수, 톰양공 등 태국음식 전문점이며, 현지 거주 교민들이 즐겨찾는 식당
비고	구글지도 검색 가능

○ 가드(GAD Restaurant)

도시명	리야드
전화번호	966-11-464-1212
주소	Prince Sultan Bin Abdulaziz Road, Al Olaya, Riyadh 12311
가격	양갈비 1kg 140 사우디 리얄(USD 40)
영업시간	06:00~23:00
휴무일	휴무일 없음
소개	양갈비 전문 식당으로 가격대비 맛이 좋아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비고	구글지도 검색 가능

○ 미라지(Mirage)

도시명	리야드
전화번호	966-11-483-4216
주소	Takhassusi Street, Ar Rahmaniyyah, Riyadh 12342
가격	50~200 사우디 리얄(USD 16~64)
영업시간	일 - 목 : 15:00 - 00:00 금 - 토 : 13:30 - 00:00
휴무일	휴무일 없음
소개	도심 소재 중식당
비고	구글지도 검색 가능

<자료원 : 리야드 무역관 자체조사>

- 한국식당

○ 라멘(Ramen KSA)

도시명	리야드
전화번호	966-53 277 8022
주소	Ramen Restaurant is an authentic Korean and Japanese cuisine, located at Riyadh Park Mall, Riyadh, KSA.
가격	일반식사 및 면류, 찌개류 약 USD 20~25 구이류 약 USD 25 ~ 40

영업시간	매일 오후 1시 - 밤 12시
휴무일	없음
소개	리야드 소재 한식 및 일식당 (한식 위주, 한국풍 인테리어)
비고	홈페이지 : <a href="https://ramenksa.com/">https://ramenksa.com/</a>

◦ 나무(NAMU)

도시명	리야드
전화번호	966-53 612 3556
주소	Esplanade Mall, Hitten, Prince Turki Bin Abdulaziz Al Awal Rd, King Saud University, Riyadh 12371
가격	일반식사 및 찌개류 약 USD 15~25 구이류 약 USD 25 ~ 40
영업시간	매일 오후 1시 - 새벽 1시
휴무일	없음
소개	리야드 소재 한식당
비고	홈페이지 : <a href="https://namu.unifiedhospitality.com/">https://namu.unifiedhospitality.com/</a>

◦ 비원(Korean Palace)

도시명	리야드
전화번호	+966-53-473-1284
주소	Takhassusi Street, Near Urouba Road, Riyadh, Saudi Arabia
가격	일반식사 및 찌개류 약 USD 24~30
영업시간	일-목 : 11:30~15:00 / 17:00~23:00 금-토 : 12:30~15:00 / 17:00~23:00
휴무일	휴무일 없음
소개	리야드 소재 한식당
비고	구글지도 검색 가능

◦ 진고개(JINGOGAE)

도시명	알코바
전화번호	966-13-894-7542
주소	Al Khobar Al Shamlia, Al Khobar 34429

가격	일반식사 및 찜계류 약 USD 20
영업시간	11:00 - 14:00 17:00 - 22:00
휴무일	휴무일 없음
소개	사우디 동부 알코바 소재 한식당
비고	구글지도 검색 가능

○ 수라(SURA Restaurant)

도시명	젯다
전화번호	966-12-663-2201
주소	Prince Saud AlFaisal, Ar Rawdah, Jeddah 23432
가격	일반식사 및 찜계류 약 USD 20
영업시간	13:00 - 24:00
휴무일	휴무일 없음
소개	사우디 서부 젯다 소재 한식당
비고	구글지도 검색 가능

<자료원 : 리야드 무역관 자체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웨라톤 담맘(Sheraton Dammam Hotel & Convention Centre)

도시명	담맘
주소	Prince Mohammed Bin Fahd Road, Al Mazruiyah, Dammam 32414
전화번호	+966-13-834-5555
홈페이지	<a href="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dmmsi-sheraton-dammam-hotel-and-convention-centre/">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dmmsi-sheraton-dammam-hotel-and-convention-centre/</a>
숙박료	싱글 212 달러, 트윈 212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라마다 담맘(Ramada Dammam Hotel and Suites)

도시명	담맘
주소	Corniche Rd, Al-Hamra, Dammam 32422
전화번호	+966-13-833-3322
홈페이지	<a href="https://www.wyndhamhotels.com/hotels/dammam-saudi-arabia?brand_id=RA">https://www.wyndhamhotels.com/hotels/dammam-saudi-arabia?brand_id=RA</a>
숙박료	싱글 61 달러, 트윈 86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담맘 팰리스(Dammam Palace Hotel)

도시명	담맘
주소	King Fahd Road, Al Adamah, Dammam 32242
전화번호	+966-13-805-6060
홈페이지	<a href="http://dammampalacehotel.com/">http://dammampalacehotel.com/</a>
숙박료	싱글 102 달러, 트윈 113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아이비스 호텔(IBIS Hotel)

도시명	리야드
주소	Olaya St, Al Riyadh
전화번호	+966-11-419-9995
홈페이지	<a href="https://www.accorhotels.com/ko/hotel-8100-ibis-riyadh-olaya-street/index.shtml">https://www.accorhotels.com/ko/hotel-8100-ibis-riyadh-olaya-street/index.shtml</a>
숙박료	싱글 110 달러, 트윈 125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이그제큐티브 호텔(Executives Hotel)

도시명	리야드
주소	Olaya Main Street
전화번호	+966-11-288-5522
홈페이지	<a href="http://www.executives-hotel.com/hotel.php?hotelid=1">http://www.executives-hotel.com/hotel.php?hotelid=1</a>
숙박료	싱글 113 달러, 트윈 140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웨라톤 리야드 호텔 앤드 타워(Sheraton Riyadh Hotel & Towers)

도시명	리야드
주소	Olaya Junction of King Fahad and King Abdullah Road, P.O. Box 90807, Riyadh 11623 Saudi Arabia
전화번호	+966-11-454-3300
홈페이지	<a href="https://www.marriott.com/">https://www.marriott.com/</a>
숙박료	싱글 284 달러, 트윈 284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홀리데이 인(Holiday Inn Al Qasr)

도시명	리야드
주소	King Fahd Rd, Olaya District Riyadh 12211
전화번호	+966-11-462-5000
홈페이지	<a href="http://holiday-inn-riyadh-qasr.h-rez.com/">http://holiday-inn-riyadh-qasr.h-rez.com/</a>
숙박료	싱글 126 달러, 트윈 153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코트야드 메리어트 DQ(Courtyard by Marriott Riyadh Diplomatic Quarter)

도시명	리야드
주소	Al-Hada District, Abdullah bin Huzafah Al-Sahmi Street Riyadh 64819
전화번호	+966-11-281-7300
홈페이지	<a href="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ruhab-courtyard-riyadh-diplomatic-quarter/?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ruhab-courtyard-riyadh-diplomatic-quarter/?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a>
숙박료	싱글 187 달러, 트윈 214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웨라톤 젯다(Sheraton Jeddah Hotel)

도시명	젯다
주소	North Corniche, Ash Shati, Jeddah 21424
전화번호	+966-12-699-2212

홈페이지	<a href="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jedsj-sheraton-jeddah-hotel/?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jedsj-sheraton-jeddah-hotel/?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a>
숙박료	싱글 212 달러, 트윈 226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크라운 플라자 젯다(Crowne Plaza Jeddah)

도시명	젯다
주소	Al Corniche- Al Ma&#39;adi Road, Jeddah 23212
전화번호	+966-12-661-1000
홈페이지	<a href="https://www.ihg.com/crowneplaza/hotels/us/en/jeddah/jedsa/hoteldetail?cm_mmc=GoogleMaps-_-CP-_-SA-_-JEDSA">https://www.ihg.com/crowneplaza/hotels/us/en/jeddah/jedsa/hoteldetail?cm_mmc=GoogleMaps-_-CP-_-SA-_-JEDSA</a>
숙박료	싱글 178 달러, 트윈 209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홀리데이 인 젯다 - Al Salam(Holiday Inn Jeddah - Al Salam)

도시명	젯다
주소	Kilo 2 Al Thaghr, King Khalid Road Jeddah 22331
전화번호	+966-12-631-4000
홈페이지	<a href="https://www.ihg.com/holidayinn/hotels/us/en/jeddah/jedal/hoteldetail?cm_mmc=GoogleMaps-_-HI-_-SA-_-JEDAL">https://www.ihg.com/holidayinn/hotels/us/en/jeddah/jedal/hoteldetail?cm_mmc=GoogleMaps-_-HI-_-SA-_-JEDAL</a>
숙박료	싱글 143 달러, 트윈 157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자료원 : 호텔 홈페이지, KOTRA 리야드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 명소(Myungso Guest House)

도시명	리야드
주소	Qurtubah, 리야드 13244
전화번호	966-50-069-1497
숙박료	100~120 달러
소개	식사, 세탁, 객실청소 포함
비고	* 비용은 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 홈페이지 없음

## ○ 로얄텔1(Royaltel 1)

도시명	리야드
주소	6986 Abi Abdullah Al sqalani, Al Olaya, Riyadh 12311 3448
전화번호	966-50-241-0704
숙박료	100~120 달러
소개	식사, 세탁, 객실청소 포함
비고	* 비용은 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 홈페이지 없음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체 조사>

## 사. 치안

### 치안상황

사우디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 치안이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예멘 전쟁 악화로 국경지역 및 인근 주요 도시(사우디 남부)와 공항을 여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시내 중심가의 상점, 쇼핑몰을 제외한 외곽지역에서 만나는 현지인의 경우 영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 및 생활방식이 매우 다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전쟁 중인 예멘 국경 지역은 적색경보(출국권고)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황색경보(여행자제) 지역으로 되어 있다.

사우디 도로는 주요 고속도로라도 가로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운전습관도 매우 거칠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 도로 야간 운전 시 방목 낙타가 도로를 침범해 추돌사고가 다수 발생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적으로 안전한 편이나 제3국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유입되면서 치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특히, 리야드 바타 지역은 외국인, 특히 제3국 근로자들의 밀집지역으로 야간에는 출입하지 않는 편이 좋으며, 혼자 다니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아시아계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 및 성희롱 등의 범죄가 종종 발생한다. 사복경찰을 사칭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현금카드 등을 조사하면서 현금을 갈취하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해 경찰서에 가면 아랍어 이외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대부분 사우디인의 입장만 듣기 때문에 즉시 대사관에 법적 구제 요청을 해야 한다.

### 응급상황 대처요령

응급상황 발생 시 각 지역 모두 국번 없이 비상연락처에 연락한다.

#### 1) 교통사고

- 교통경찰 호출(교통사고): 993
- 고속도로 안전경찰 호출: 996

#### 2) 여권/지갑 분실

- 여권국 : 992
- 대사관 영사과: +966-11-488-2211 / (긴급) +966-50-080-1065
- 젓다 총영사관: +966-12-668-1990 / (긴급) +966-55-668-3432

#### 3) 응급전화번호

- 화재신고(소방서) 998
- 경찰서(범죄): 999
- 앰블런스(의료): 997

## 9. 생활정보

### 가. 주택

####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외국인은 주로 안전, 생활 편의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컴파운드 형태의 외국인 전용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외국기업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며 공급부족으로 임차료가 대폭 상승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정부 프로젝트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들 대거 유입되면서 임차료가 더욱 상승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입주 시 기존 입주자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기 계약을 조건으로 협의하는 경우 어느 정도 임차료를 할인해 주기도 한다. 공급자 중심의 비즈니스 문화이기 때문에 컴파운드는 공개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하지 않아 지인의 소개로 컴파운드 정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직접 임차하면 비용이 저렴하지만, 치안, 편의시설 미보유, 주택관리 미비 등으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외국인은 주택을 직접 소유할 수 없으며 임차만 가능하다. 현지 계약 관례상 컴파운드의 경우 최소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임차료도 전액 선납해야 한다. 임차료 환불은 불가하며, 환불을 받더라도 최소 1~2개월 임차료를 패널티로 내야 한다. 주택 임차를 위해서는 사우디 거주증(IQAMA) 보유가 필수이다. 부동산 중개비는 계약금의 5% 정도이다.

#### 전화

##### 1) 국내 전화

유선전화는 STC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통신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전화 사용방법은 한국과 유사해 동일지 내 전화를 걸 경우에는 지역 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누르며, 시외전화를 할 경우에는 지역 번호를 포함해 번호를 눌러야 한다. 전화요금은 리야드 시내의 경우, 분당 5할랄라(약 15원 정도)이다.

예: (시내전화) 리야드→리야드: 273-4496  
(시외전화) 제다→리야드: 011(리야드 지역번호)-273-4496  
(휴대전화) 011(지역번호)-273-4496

##### 2) 국제전화

사우디 국가번호는 966이며 전화 거는 방법은 다른국가와 동일하다.

예: (한국→리야드) 001(또는 002)-966-11-273-4496  
(사우디→한국) 00-82-2-3460-7114

#### 전압/플러그

주파수는 60Hz이며 전압은 110V와 220V를 동시 공급하고 있으며 혼용 사용 중이다.

플러그는 Type G(영국식 3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한국 전자제품 사용시 어댑터가 필요하다.

#### 식수

수돗물은 석회질 함유량이 높아 음용을 피하는게 좋으며,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는게 좋다. 일반 마트 및 편의점에서 쉽게 생수를 구입할

수 있다.

##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 구매방법

신차의 경우 도시 곳곳에 위치한 딜러샵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딜러사에 따라 다양한 조건의 할부 구매도 가능하다. 리스의 경우 신차 구매보다 약 20%가량 가격이 높다.

중고차의 경우 [www.expatriates.com](http://www.expatriates.com), [www.haraj.com](http://www.haraj.com), [www.saudisale.com](http://www.saudisale.com), [www.syarah.com/en](http://www.syarah.com/en) 등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구할 수 있고 개인 및 딜러 간 거래도 가능하다. 또한, 중고차 시장에서는 차량을 직접 시운전할 수도 있으며, 일정 금액을 흥정할 수도 있다. 리야드의 가장 큰 중고차 거래시장은 리야드 중남부 알-나심(Al-Naseem) 지역의 Haraj Market이며, 대부분의 현지인이 직거래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의 경우 리야드 도심의 움무 알-하맘(Umm Al-Hamam) 지역과 남동부의 알-시나이야(Al-Sinaiyah) 지역이 가장 유명하다. 사우디 정비소 정비사는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상대로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차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아랍어·영어 통역이 가능한 현지인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 현지는 정비소와 부속품 판매처가 분리되어 있다. 즉, 정비소는 부품 전문 판매상에서 부품을 구입해 공임을 받고 자동차를 정비하는 시스템이다. 타이어 교체나 간단한 정비, 세차의 경우 주변 주유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차량가격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자동차 제조사의 부재로 다양한 브랜드의 수입차가 판매되고 있다. 각 브랜드의 현지 판매 모델과 가격 수준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드라이버 아라비아: <https://www.drivearabia.com/carprices/ksa/>

### 운전면허 취득

사우디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지 면허증을 신규 발급받아야 한다. 단, 차량구입이 아닌 렌트카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혈액 및 시력 검사증(약 150사우디 리얄), 거주증(IQAMA) 원본 및 사본, 여권 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영어 및 아랍어 번역 및 인증(공식업체 진행, 50사우디 리얄), 면허 신청서, 여권용 사진, 초록파일(운전면허 시험장 내 판매) 등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신청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신청에 따라 ATM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액을 사전 납부해야 한다. 금액은 2년 80사우디 리얄, 5년 200사우디 리얄, 10년 400사우디 리얄이다. 한국면허증의 영어, 아랍어 번역 확인증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혈액형 검사증과 시력 검사증은 면허 신청서 목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미리 병원에 가서 운전면허용 시력검사와 혈액 검사를 마친 이후 받은 검사 완료증을 운전면허장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시내에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은 Takhassusi Street에 위치한 Takhassusi Dallah Driving School이다. 리야드 도심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으며, 시험장 도착 후 정문 왼편의 사무실에서 초록파일을 살 수 있다. 이후 서류구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혈액 및 시력 검사증 제출, 운전 테스트, 최종 서류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 후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받고 차레가 되면 창구에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면허증을 신청하면 약 15분 뒤 신청장 중앙에서 관계자가 호명하며 발급된 면허증을 지급한다. 시험장 직원 대부분은 영어를 못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항상 붐비며, 서류접수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오후 중 일찍 업무를 종료하기 때문에 오전 영업 시작시간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 신청 시 간혹 내무부(MOI) 시스템에 사진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항 입국심사 시 지문 등록과 얼굴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King Fahad Road에 위치한 여권 관리국(Jawazat)에 방문해 지문등록과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운전학원에서 1개월 이상 수강해야 하고 기능시험을 봐야 한다. 수강료는 800사우디 리얄(213달러) 정도이며, 주중 3~21시에 수업을 듣고 시험을 통과한 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사우디는 2018년 6월 여성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함에 따라 여성운전도 가능해졌다. 외국인 여성 역시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며, 초반에는 근로자에 한해 허용했으나 최근에는 가족 초청비자로 방문한 경우에도 발급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해외에서 운전경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기 테스트는 받아야 한다. 여성 면허 발급 장소는 일반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발급처와 분리되어 있다. 리야드의 경우 공항 근처의 여성 전용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기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현장에서 발급하고 있다.

## 다. 은행 계좌 개설

### 주요은행

- 사우디 국내 은행
  - Saudi National Bank (SNB)
  - Saudi Awwal Bank (SAB)
  - The Saudi Investment Bank (SAIB)
  - Alinma Bank
  - Banque Saudi Fransi (BSF)
  - Riyadh Bank
  - Al-Rajhi Bank
  - Arab National Bank (ANB)
  - Bank AlBilad
  - Bank Aljazira
  - Gulf International Bank Saudi Arabia (GIB-SA)
  
- 외국계 은행
  - Bank of China Limited / 중국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ICBC) / 중국
  - Banque Misr / 이집트
  - National Bank of Egypt / 이집트
  - BNP Paribas / 프랑스
  - Deutsche Bank / 독일
  - National Bank of Iraq / 이라크
  - Trade Bank of Iraq / 이라크
  - MUFG Bank, Ltd. / 일본
  - Bank of Jordan / 요르단
  - National Bank of Kuwait (NBK) / 쿠웨이트
  - Bank Muscat / 오만
  - Sohar International Bank / 오만
  - National Bank of Pakistan (NBP) / 파키스탄
  - Qatar National Bank (QNB) / 카타르
  - Credit Suisse / 스위스
  - Ziraat Bankası / 튀르키예
  - Abu Dhabi Commercial Bank (ADCB) / 아랍에미리트

- Emirates NBD / 아랍에미리트
- First Abu Dhabi Bank (FAB) / 아랍에미리트
- Standard Chartered Bank / 영국
- American Express / 미국
- J.P. Morgan Chase / 미국

## 계좌 개설방법

계좌 개설은 사우디 거주증(IQAMA) 발급 후 가능하다. 계좌 개설 시에는 스폰서(보증인)의 계좌 개설 요청 서한, 여권, 급여증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 사우디 리얄 및 달러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 시 직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타 은행 ATM 사용에 대한 수수료가 없으며, 한국인의 경우 외국계 합자은행인 SABB(HSBC)와 Samba Bank(Citi)를 많이 이용하며 사우디 은행으로는 National Commercial Bank를 많이 이용한다.

## 라. 교육

### - 주요 국제학교

#### o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Riyadh

도시명	리야드
커리큘럼	미국학제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제공
학비	연간 18,000~20,000달러(학년별 상이)
홈페이지	<a href="http://www.aisr.org">http://www.aisr.org</a>

#### o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Riyadh

도시명	리야드
커리큘럼	영국학제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제공
학비	연간 15,000~18,000달러 (학년별 상이)
홈페이지	<a href="http://www.bisr.com.sa/">http://www.bisr.com.sa/</a>
비고	리야드 시내 2개 캠퍼스(AI Hamra Campus, DQ Campus) 운영 중이며, 2024년 하반기 1개 캠퍼스(AI Waha) 추가 개소 예정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체 조사>

### - 현지학교

#### o 한국국제학교

도시명	리야드
-----	-----

커리큘럼	3명의 원어민 선생님 통해 주 12시간 영어 교육 및 아랍어 교육 방과후 과정 통해 음악, 미술, 통합놀이 과정 수행
학비	홈페이지 및 학교 전화(055-740-7480) 문의 통해 확인가능
홈페이지	<a href="http://riyadhkorea.kr/">http://riyadhkorea.kr/</a>
비고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 국적 보유해야 입학 및 전학 가능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체 조사〉

## 마. 병원

### ○ Dr. Sulaiman Al Habib Hospital

도시명	리야드
주소	Riyadh 12344
전화번호	+966-11-283-3333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사우디 최대 종합 병원 홈페이지: <a href="https://hmg.com/en/">https://hmg.com/en/</a> (해외전용url - 국내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 Dallah Hospital

도시명	리야드
주소	Fas, An Nakheel, Riyadh 12381
전화번호	+966-9200-12222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a href="http://www.dallah-hospital.com/English/Home">http://www.dallah-hospital.com/English/Home</a>

### ○ Saudi German Hospital

도시명	리야드
주소	King Fahad Branch Road, As Sahafah Riyadh 13321
전화번호	+966-11-268-5555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a href="https://www.sghgroup.com.sa/en/about">https://www.sghgroup.com.sa/en/about</a>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KOTRA 리야드 무역관〉

##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 쇼핑센터/몰/백화점

#### ○ Granada Center

도시명	리야드
주소	Exit 9, Ash Shuhada District Eastern Ring Branch Rd Riyadh 13216
홈페이지	<a href="https://twitter.com/Granadamallsa">https://twitter.com/Granadamallsa</a>
비고	종합 쇼핑몰

#### ○ 파노라마 몰(Panorama Mall)

도시명	리야드
주소	Takhassusi St, Al Mathar Ash Shamali, Riyadh 12332
홈페이지	<a href="http://www.panorama-mall.com/">http://www.panorama-mall.com/</a>
비고	실내 놀이공원이 있는 리야드내 가장 대중적인 쇼핑몰

#### ○ 리야드 파크(Riyadh Park)

도시명	리야드
주소	Northern Ring Rd, Al Aqiq, Riyadh 13511
홈페이지	<a href="https://riyadh-park.com/">https://riyadh-park.com/</a>
비고	종합 쇼핑몰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체 조사>

### - 식품점

#### ○ 까르푸(Carrefour)

도시명	리야드
주소	Exit 9, Ash Shuhada District Eastern Ring Branch Rd Riyadh 13216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공산품
비고	사우디 현지 대형마트로 리야드 곳곳 소재

#### ○ 타미미(Tamimi Market)

도시명	리야드
-----	-----

주소	King Fahd Rd, Al Olaya Riyadh 12313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공산품
비고	사우디 현지 대형마트로 리야드 곳곳 소재

◦ Lulu Hypermarket

도시명	리야드
주소	Prince Muhammad Ibn Abd Al Aziz, As Sulimaniyah, Riyadh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공산품
비고	사우디 현지 대형마트로 리야드 곳곳 소재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Fitlee 피트니스클럽

도시명	리야드
주소	Muhammad Ibn Abdulaziz Ad Daghaythir from King Fahd street Riyadh 13521 11534
홈페이지	<a href="http://fitlee.com/en/#home">http://fitlee.com/en/#home</a>
소개	개인 및 단체 트레이닝 제공 등으로 리야드 내 평판 좋은 피트니스클럽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New Year	2024-01-01	2024-01-01
Founding day	2024-02-22	2024-02-22
Eid-al-Fitr	2024-04-08	2024-04-08
Eid-al-Fitr	2024-04-09	2024-04-09
Eid-al-Fitr	2024-04-10	2024-04-10
Eid-al-Fitr	2024-04-11	2024-04-11
Eid-al-Fitr	2024-04-14	2024-04-14
Eid Al-Adha	2024-06-16	2024-06-16
Eid Al-Adha	2024-06-17	2024-06-17
Eid-Al-Ahda	2024-06-18	2024-06-18

Eid-Al-Adha	2024-06-19	2024-06-19
Eid-Al-Adha	2024-06-20	2024-06-20
Saudi National Day	2024-09-23	2024-09-23

## 10. KOTRA 무역관 안내

### ○ KOTRA 리야드무역관

####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KOTRA, Commercial Section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8th fl. Legend Tower, King Fahd Branch Road, Al Olaya, Riyadh 12313, Kingdom of Saudi Arabia
- 대표전화: +966-11-513-8469
- 대표이메일: kotrariy@kotra.org.sa
-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riyadh/>

#### 공항-무역관 이동

리야드 공항의 정식 명칭은 King Khalid International Airport이다.

리야드무역관은 리야드 공항에서 약 40km 떨어져 있으며, 리야드 시내 중심 도로인 King Fahd Branch Road에 위치한 Legend Tower 8층에 입주해 있다.

사우디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리야드 공항과 무역관 간 이동은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택시 비용은 교통 사정에 따라 80~120 사우디 리얄(약 21~32 달러) 정도이고, 요금 결제 및 안전상 이유로 Careem, Bolt, Uber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추천한다.

무역관 건물명은 Legend Tower이지만 택시기사 및 일반인들에게 건물명을 말할 경우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무역관을 방문할 경우 구글맵 등에서 KOTRA Riyadh를 검색하여 기사에게 보여주면 된다.

##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LEAP	2025-02-10 ~ 2025-02-13	Riyadh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Malham, Saudi Arabia	Tahaluf
Big 5 Construct Saudi	2025-02-15 ~ 2025-02-18	Riyadh Front Exhibition & Conference Center	dmg events
Beautyworld Saudi Arabia	2025-04-21 ~ 2025-04-23	Riyadh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1st Arabia Tradeshows & Conferences
Automechanika Riyadh	2025-04-28 ~ 2025-04-30	Riyadh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1st Arabia Tradeshows & Conferences
Saudi Entertainment & Amusement (SEA) Expo	2025-05-20 ~ 2025-05-22	Riyadh Front Exhibition & Conference Center	dmg events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